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언론정보학석사 학위논문

북한이탈청년들의 정체성 변화와 적응전략 연구  
- 성찰적 사진 인터뷰를 중심으로

2016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최정화

이 논문은 다음세대재단  
〈2015 올리볼리 문화다양성 석사논문 지원사업〉의  
연구지원을 받았습니다.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동화론’과 ‘문화적응’ 이론에 입각해 북한이탈주민을 남한사회에 적응해야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정의한 선행연구들을 비판하는 사례연구이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이 북한이탈주민의 다양한 사회·문화적인 배경과 모국과의 네트워크를 고려하지 않은 한계를 뛰어넘고자, 초국가주의 틀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본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남한에서 정착하는 동시에 북한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을 유지하는 초국적 이주민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초국가적 이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서 정체성을 어떻게 재구성 하며, 자아표현과 정보추구행위의 측면에서 어떠한 적응 전략들을 펼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 하에 10~20대의 북한이탈주민 8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모두 청년층으로서 다른 세대들에 비해 매체 활용도가 높으며, 자기계발에 있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또한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며, 개인주의적인 동시에 독특한 것들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이러한 점을 유념해두고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참여관찰과 심층 인터뷰를 수행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민속지학적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찰적 사진 인터뷰(reflexive photography interview) 방법을 통해 문제의식에 접근해보았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총 세 가지이다.

첫 번째로 초국가적 이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서 정체성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북한이탈주민은 남한과 북한 모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정체성은 서로 조화되거나 갈등하면서 제 자리를 찾아갔다. 시기별로 분석하자면 북한이탈주민은 적응 초창기엔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남한 사회의 가치에 적극적으로 동조함으로써 남한 사회의 일원이 되었다. 이를 위해 남한 사람과의 외형적인 동일화를 추구하거나 다른 북한이탈주민과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언어, 음식, 음악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의 문화를 이어나가고 있었다. 즉 남한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면서 모국의 문화와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초국적 이주민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은 시간이 지날수록 남한 사회의 현실에 부딪히게 되며 초조함과 절망감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정착 초기에는 북한 출신임을 숨겼지만, 때에 따라 북한 출신이라는 신분이 자신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전략적으로 정체성을 감추거나 드러냈다. 더 나아가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던 가치관 혹은 신념이 남한에서의 삶과 충돌을 일으키면서, 그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조율해 나갔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은 스스로 중요시하는 가치들을 견지한 채, 능동적이며 주체적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다. 또한 브로커를 통해 고향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송금을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초국가적 활동을 했다. 이러한 정체성의 변화를 겪으면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과 남한, 어느 한쪽에 고정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한쪽에 귀속된 정체성이 다른 정체성을 압도하기 보단 양쪽의 정체성이 서로 조화하거나 갈등하는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해갔다.

두 번째로는 적대 국가 출신이면서 남한 사람과 민족적 동질성을 공유하고 있는 특수한 존재인 북한이탈주민이 적응을 위해 어떠한 자아표현 전략을 취했는지 탐구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유동적이며 다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상황에 따라 전략적이며 유연한 자아표현을 보여주었다. 우선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사람과의 외형적인 동일화를 추구함으로써 ‘남한 사람처럼 보이기’ 전략을 펼쳤다. 또한 남한 사람들의 행동을 모방하며, 북한 출신임을 숨기는 전략을 취했다. 더 나아가 ‘자아(self) 강조하기’ 전략을 통해 자신의 개인성을 강조하며 특히 다른 북한이탈주민과의 차별성을 드러냈다. 덧붙여 연구 참여자들은 청년층답게 SNS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자아를 표현하였는데, 이를 통해 자신을 자랑하거나 특정 소양을 갖춘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했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은 SNS 라는 공간에서 목적과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자아’를 드러내는 동시에 인상관리를 통해 다양한 정체성을 창출해 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적응을 위해 요구하는 정보들이 무엇이고, 어떠한 정보원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며,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물건을 선택하고 구입하는, 즉 소비생활에 관한 정보를 얻어 합리적인 소비자가 되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남한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했다. 또한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하기 위해선 정부의 정착금만으론 턱없이 부족했기에, 아르바이트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했다. 더 나아가 학령기답게 대학진학과 취업에 관한 정보를 요구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자 했으며, 마지막으로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선’을 놓을 방법을 찾았다. 정보추구의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은 가족이나 고향 친구에 제한된 폐쇄적인 연결망을 이용하고 있어, 이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보다는 근거 없이 떠도는 소문위주의 정보를 얻곤 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청년층의 특징을 살려 TV와 인터넷 같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스스로 고민을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인터넷을 활용하여 정보를 찾는 행위는 가정에서 핵심적인 정보원으로 거듭나게 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디지털 리터러

시(digital literacy) 수준이 낮기 때문에, 어떤 정보가 자신에게 유용한지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종합하면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동시에 북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또한 유지하려는 초국가적 이주민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단순히 남한 사회에 수동적으로 순응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북한이탈주민은 능동적이며 주체적으로 적응을 위해 다양한 전략으로 고군분투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사회의 가치에 동조함으로써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길 원했고, 그 속에서 한계를 느껴 좌절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살아온 북한의 삶의 방식을 꾸준히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즉 이들은 이동하는 시·공간과 경험에 의해서 정체성을 재구성해가는 유동적인 자아이다.

**주요어 :** 북한이탈주민, 초국가주의, 정체성, 자아표현, 정보추구행위

**학 번 :** 2013-22846

# 목 차

제 1 장. 문제제기 .....	1
제 2 장.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 .....	4
제 1 절.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들 .....	4
1. 이주민으로서의 속성 .....	4
2. 초국가적 이주민 .....	5
3. 다른 이주민과의 차별성 .....	11
제 2 절. 자아표현 .....	15
1. 자아표현의 개념 .....	16
2. 고프만(Goffman)의 관점에서 본 자아표현 .....	16
제 3 절. 정보추구행위 .....	20
1. 정보추구행위 개념 .....	20
2. 정보추구행위에 관한 선행연구 .....	22
3. 이주민의 정보추구행위 .....	24
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26
제 1 절. 연구문제 .....	26
제 2 절. 연구방법 .....	27
1. 연구 참여자 .....	27
2. 성찰적 사진 인터뷰 .....	28
제 3 절. 연구윤리 .....	31
제 4 장.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변화 .....	32
제 1 절. 적극적으로 적응하려는 자아 .....	32
1. ‘탈북’ 경험을 통해 자신감 얻기 .....	32
2. 적응을 위해 변화하기 .....	34
3. 고향문화 이어나가기 .....	36
제 2 절. 적응과정 속 겪게 되는 혼란 .....	40
1. 남한 사회 속 한계 직면 .....	40
2. 전략적인 신분선택 .....	45
3.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 .....	47
제 3 절. 본인 삶의 ‘주인공’ 되기 .....	48
1. 능동적이며 주체적인 자아 .....	48
2. 초국가적 이주민 .....	51
3. 국가 정체성 벗어나기 .....	53
제 4 절. 소결 .....	55

<b>제 5 장. 자아표현 전략들 .....</b>	<b>58</b>
제 1 절. 남한 사람처럼 보이기 .....	58
1. 외형적인 동일화 추구하기 .....	58
2. 행동 따라하기 .....	65
3. 북한출신 감추기 .....	67
제 2 절. ‘자아(self)’ 강조하기 .....	71
1. 동일 집단 내 거리두기 .....	71
2. SNS에서 표현하기 .....	74
제 3 절. 소결 .....	79
<b>제 6 장. 정보추구행위 전략들 .....</b>	<b>81</b>
제 1 절. 필요정보 유형 .....	81
1. 일상생활 정보 .....	82
2. 진로 및 미래 탐색 .....	89
3. 고향과 연결하기 .....	93
제 2 절. 정보획득방법 .....	94
1. 일상적 정보원 .....	94
2. 정보매체 활용하기 .....	100
3. 정보행위의 어려움 .....	105
제 3 절. 소결 .....	106
<b>제 7 장. 결론 및 제언 .....</b>	<b>108</b>
<b>참고문헌 .....</b>	<b>114</b>
<b>Abstract .....</b>	<b>122</b>



## 표 목차

[표 1] 연구 참여자의 기본 인적 사항 .....	28
[표 2] 사진설명하기를 위해 요청한 목록 .....	30

## 그림 목차

[그림 1] 미나가 직접 제작한 영상의 일부 .....	38
[그림 2] 지호의 저녁식사 사진 .....	39
[그림 3] ‘나는 누구인가’에 해당되는 미나의 사진 .....	42
[그림 4] 혜수의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사진 .....	44
[그림 5] ‘나는 누구인가’에 해당되는 수지의 사진 .....	55
[그림 6] 태희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	59
[그림 7] 태희가 휴대폰에 저장한 옷 사진들 .....	61
[그림 8] 미나의 셀피(selfie)들 .....	63
[그림 9] 미나가 SNS에 올린 게시물 .....	66
[그림 10] 보라가 SNS에 올린 게시물 .....	70
[그림 11] 유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사진 .....	72
[그림 12] 혜수의 고향집과 비슷한 건물 .....	73
[그림 13] 혜수가 직접 한 네일아트 .....	75
[그림 14] 보라가 SNS에 올린 요리 사진 .....	76
[그림 15] 미나가 SNS에 올린 자격증 사진 .....	77
[그림 16] 미나가 SNS에 올린 브런치 사진 .....	78
[그림 17] 지호가 휴대폰에 저장한 아르바이트 정보 .....	88
[그림 18] 태희가 아르바이트 당시 찍은 사진 .....	88
[그림 19] 지호의 ‘꿈’을 나타내는 사진 .....	92
[그림 20] 미나가 연구자에게 보낸 문자 .....	105

## 제 1장. 문제제기

본 연구는 ‘동화론’과 ‘문화적응’ 이론에 입각해 북한이탈주민<sup>1)</sup>을 남한사회에 적응해야만 하는 수동적인 사람으로 정의한 기존의 연구들을 비판한다. 더 나아가 이주민이 이주국에 살아가는 동시에 모국의 가족, 공동체,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는 ‘초국가주의’ 프레임(Vertovec, 2001)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초국가적 이주민으로 간주한다.

북한이탈주민은 어느새 우리사회에서 큰 축<sup>2)</sup>을 차지하고 있고, 미래의 통일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던 1990년대 들어서 북한과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초기에는 지원제도 등 정책적인 관점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 뒤 점차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문제로 관심이 확대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다룬 연구들(이기영, 1999; 손문경, 2002; 강상년, 2004; 이금순, 2000; 윤인진, 2000; 김명선·이동훈, 2013 등)은 주로 동화론과 문화적응이론의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 제시에 중점을 두었다. 적응에 관한 연구방법론 차원에서는 소규모의 양적 조사나 질적 사례조사뿐만 아니라 전수조사에 가까운 양적 조사나 종단 연구 등 다양한 방법론이 동원(조정아, 2014)되었다. 이러한 문화적응을 다룬 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세밀하게 진단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착 지원에 기여했다.

그러나 이러한 적응 중심의 관점은 북한이탈주민을 남한 사회에 적응시켜야 할 대상으로 간주함으로써, 부적응의 양상들을 부정적으로만 파악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기존의 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부적응을 ‘남한 사람’이 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그들이 적응을 할 수 있게끔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

1)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뜻한다. 용어출처: 경찰학사전, 법문사

2) 2015년 12월 기준으로 약 28,795명의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70.4%이다.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30대가 29.5%, 20대가 28.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40대와 10대 순으로 나타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 동기는 ‘식량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이 전체의 47.9%로 가장 많았고, ‘가족을 따라서’가 14.1%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서 ‘신변 위협’(10.7%), ‘먼저 탈북한 사람의 권유’(7.1%),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5.4%), ‘주변사람의 권유’(4.8%), ‘통제가 싫어서’(3.7%), ‘가족을 찾거나 결함을 위해서’(3.1%), ‘자녀에게 좋은 미래를 주기 위해’(1.5%), ‘기타’(0.7%), ‘남한의 문화를 접하고 난 후 (미디어 등)’(0.6%)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자료출처: ‘2015 북한이탈주민 사회조사’, 통일부(2015)

쳤다. 더 나아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온 하나원과 하나센터<sup>3)</sup>의 정착 교육을 살펴봐도 북한이탈주민이 수동적이며 순응적인 사람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사회의 시각에서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강제로 배울 수밖에 없으며, 교육을 통하여 국가로부터 동화압력을 받게 된다(장선하, 2008). 다소 과장되게 표현하면,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의 기억은 봉인되어 잃어버린 채 탈북 과정에서 얻은 원초적 상흔을 성공적으로 치유하고 자신에게 부과되는 차별을 잘 극복하여 남한사회에 적응하고, 마침내 남한 사람으로서의 완전한 정체성(조정아, 2014)을 획득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된다.

또한 선행 연구들은 남한에서의 경제적 상황과 심리적 상태로 나누어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행태를 유형화시켰는데, 이는 북한이탈주민 각 개인의 다양한 사회·문화적인 배경과 모국과의 네트워크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북한이탈주민을 남한 내에 일방적으로 편입될 수 있는 대상으로만 간주(정병호, 2014)했지, 실제 이들이 모국과 이주국 사이를 연결하는 ‘초국가적 이주민’이라는 사실을 간과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북한이탈주민이 초국가적 사회의 장 내에서 어떻게 정체성을 재구성해나가는지 살펴보았다. 정체성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구조화되며 상황에 따라 다수의 자아가 형성(Mead, 1934; Cooley, 1902; Goffman, 1959)되기 때문에 유동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역시 초국가적 사회의 장 내에서 정체성의 변화를 겪으며 이로 인해 다중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과 ‘북한’에 동시에 연결되면서 발생하는 여러 이해관계의 충돌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남한사회에서 스스로 자아의 의미를 어떻게 확립하고 재구성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적응전략은 크게 자아표현(self-presentation)과 정보추구행위(information seeking behavior)로 구분해 그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양상들을 관찰하였다. 우선 북한이탈주민의 자아표현을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자아표현이 사회적 상황이나 관계형성을 위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요소이기에, 그들의 적응을 살펴보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유동적이면서도 다중적인 정체성은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자아표현을 연출할 것으로 사료된

3)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하나원’은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남한사회적응교육시설이다. 북한이탈주민은 이곳에서 12주간 생활지도, 사회적응교육, 기초직업훈련 등을 받게 된다. 또한 하나원은 취직 및 주민등록발급, 정착지원금 지급, 주택알선, 의료·생활보호대상자 편입을 위한 기초자료제공, 학력·자격 인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반면 ‘하나센터’는 최초 민관협력의 통일부 지정 북한이탈주민 ‘지역’ 적응센터로서 초기정착지원활동과 지역적응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자료출처: ‘남북하나재단’, [www.koreahana.or.kr](http://www.koreahana.or.kr)

다. 마지막으로 정보추구행위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선 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반세기가 넘는 분단으로 인해 형성된 사회적·문화적 이질감과 언어 및 생활 습관의 차이 등으로 남한생활에 막막함을 겪게 된다. 사람들이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면, 불확실성을 겪게 된다(Lipshitz and Strauss, 1997).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정보를 필요로 하며, 또한 어떤 경로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게 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중 10~20대의 청년층 8명<sup>4)</sup>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보고서(이호영 외, 2012)<sup>5)</sup>에 따르면 청년층(혹은 젊은 세대)는 ‘Mobile Phone & Fantasy’ 세대로 볼 수 있다. 이들은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은 휴대폰 보유율을 보이며, 성형수술이나 남성의 액세서리 착용 등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진다. 또한 유명 상표 등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자기계발에 있어서는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 처음으로 자유를 맞이하는 시기이다 보니,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여, 개인주의적인 동시에 새로운 것들, 독특한 것들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이러한 특징을 유념해두고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참여관찰과 심층 인터뷰를 수행한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민속지학적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찰적 사진 인터뷰(reflexive photography interview) 연구 방법을 통해 문제의식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사진 인터뷰를 방법론에 추가한 이유는 사진은 문자와 달리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전달 기능을 갖고 있어 사람들의 자아표현을 위한 강력한 수단(백안의, 2012)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사진을 보는 것은 이들을 심층적으로 관찰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북한’ 출신의 ‘초국가적’ ‘청년층’ 이주민이라는 연구 참여자의 세 가지 특징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이들의 정체성 변화, 자아표현 전략, 그리고 정보추구행위 전략을 살펴본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사진을 연구 방법에 도입함으로써 그동안 언어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질적 연구의 외연을 넓히려 했다는 시도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

4) 연구자는 지난 3년 동안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남한 봉사자’로서 이들의 정착지원과 학습 봉사를 해왔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연구자와 라포가 형성된 북한이탈주민이며, 이들의 혈연, 지연 관계에 있는 다른 북한이탈주민도 포함되었다.

5)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덧붙이자면 젊은 세대는 그 어느 세대보다도 문화예술이나 최신유행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얻은 정보를 쉽게 공유한다. 또한 이웃이나 동향 친지에 대해 다른 세대에 비해 덜 신뢰감을 느끼며, 인간관계에 있어 쉽게 맺고 쉽게 끊을 수 있는 자세를 취한다. 돈, 권력, 학력 등 세속적 요소들을 더 중시하며, 새롭고 흥미로운 것을 경험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모험 정신은 갖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 빈곤의 원인을 사회적 구조나 정책적 결함으로 이해하는 편이어서 다른 세대들에 비해 사회적 이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편이다.

## 제 2장.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

제 2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변화, 자아표현, 그리고 정보추구행위에 관련된 주요 이론적 논의를 다룬다. 먼저 제 1절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들로서 이주민, 더 나아가 초국가적 이주민으로서의 특성들을 제시한다. 제 2절에서는 자아표현의 개념을 정의내리고, 자아표현 연구의 대표적인 학자인 고프만(Goffman)의 인상관리기술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 3절에서는 정보추구행위 개념에 관한 정의들을 짚고, 이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알아본다.

### 제 1절.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들

제 1절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살펴본다. 우선 북한이탈주민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주한 ‘이주민’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이주민으로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북한이탈주민을 이주민으로서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초국가적 이주민으로 간주한다. 이를 위해 초국가주의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며 연구동향을 소개한다. 더 나아가 초국가적 이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논의하고자 정체성에 관한 기존 이론들과 이주민의 정체성을 다룬 선행 연구들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이 다른 이주민 집단과 차별화되는 특수성을 네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해 제시한다.

#### 1. 이주민으로서의 속성

이주(移住)는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일정한 지역에 살던 사람이 특정 지역의 경계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사는 것을 말한다(하춘광·김효순, 2014). 그리고 이주민(Immigrant)은 영구적으로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주하는 사람을 뜻한다(Li, 2003). 이주민들은 모국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 밖에 사는 수백만 사람들의 하위개념이라 할 수 있다. 국제적인 이주자(International migrant) 개념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살지 않는 사람을 뜻하지만 방문자, 이주 노동자, 그리고 유학생처럼 일시적으로 해외에 사는 사람들은 배제한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은 이주 노동자와 유학생들이 이주민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이주민의 일상을 연구하는 데 기여했으므로 이들을 이주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Caidi *et al.*, 2010). 난민은 이주민 개념에 속하지만 자발적으로 이주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

통의 이주민들과 차이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남한에 입국했기 때문에 난민이 아닌 이주민으로 간주한다.

갤브레이스(Galbraith, 1993)는 이주민들이 이주사회에 편입하는 데 동일하지 않고 이질성(heterogeneity)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이주민들은 학력, 성별, 출신지, 가족 관계, 이주국 언어 능력 등의 다양한 요소에 따라 정착하는 데 있어 매우 다른 경험을 겪는다. 또한 이주국의 제도나 정책에 대해 친숙한 이주민과 그렇지 않은 이주민은 각기 다른 이주를 체험하게 된다. 홉스봄(Hobsbawm, 2011)에 의하면 20세기 말 이후의 이주는 이전시기와 실제로 아주 다르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로 몸은 이주해 왔으나 출신국의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는 특성을 언급했다. 모국이란 주로 영토로 규정되지만 공통 관습과 전통, 공통 언어와 민속 및 종교에 의해 규정되기도 한다. 정보혁명으로 이러한 모국의 문화적 활동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활동까지 하는 시대가 도입했다. 이러한 이주민간의 교류는 새로운 차원의 문화(김영란, 2013; 재인용)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는 이주민이 더 이상 지리적 여건에 구속되지 않고, 초국가적 이주민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뜻한다.

## 2. 초국가적 이주민

### 2.1.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 개념정의

이주민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이주민이 주류사회에 녹아들어 결국엔 그들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잃어버린다는 ‘동화(assimilation)이론’으로 설명되었다(Park, 1950). 고든(Gordon, 1964)은 이주민이 주류집단의 문화적 특징을 습득하고 사회적 제도 안으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자신의 민족성을 잃어버리는 정체성 동화를 겪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동화이론을 대체하며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두 집단이 만나 문화 간의 충돌이 발생하면서 다양한 변화가 뒤따르게 되는 현상인 ‘문화적응(acculturation)이론’이 도입되었다. 문화적응은 개인이나 집단이 새로운 문화와 접촉할 때 경험하는 변화로서 무조건 한쪽 문화를 흡수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한쪽 또는 양쪽 문화에 변화가 생기는 현상이다(Redfield *et al.*, 1936). 따라서 문화적응은 원칙적으로는 중립적인 용어으로써 상호작용을 하는 두 집단 모두에 해당되나, 실제적으로 어느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더 많은 변화를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다(Berry, 1990). 그러나 문화적응은 기존의 동화이론과의 명확한 차이점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동화론과 문화적응이론을 비판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초국가주의 이론

이 대두되었다. 초국가주의는 1990년대 들어 바쉬(Bash), 쉐러(Schiller), 블랑(Blanc) 등의 학자들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 이주민이 그들의 모국과 이주국 사이에서 가족, 경제, 사회, 조직, 종교, 정치적인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유지한다는 개념(Basch, Schiller, and Blanc, 1994)이다. 현재 많은 이주연구들은 이주민이 정착하고 있는 이주국의 영토를 벗어나 모국의 가족, 공동체,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는 초국가적 양상을 강조하고 있다(Rouse, 1991; Vertovec, 2001). 또한 기존에 이주민을 설명했던 디아스포라 개념이 모국을 잃거나 모국과의 단절을 의미할 때, 초국가주의는 이주민이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평행적인 삶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초국가주의의 특징은 다른 국가들 사이에 사는 사람들을 묶어내는 연계성(linkage)과 초국가적 연계를 지속시키는 동시성(simultaneity)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과거에 비해 저렴하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과 교통수단을 제공하며, 이주민들이 초국가적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값싼 국제 전화는 이주민들을 모국과 연결해주는 사회적 접착제(social glue) 역할을 하며, 초국가적 연계망과 동시성을 더 두텁게 만든다(Vertovec, 2001). 또한 베르토벡은 초국가주의의 특징을 여섯 가지로 제시했는데, (1) 개인적인 위치가 초국가적인 사회적 회로에서 접촉점으로 작용해 경계선을 가로지르는 사회적 구성형태, (2) 한 국가 이상의 여러 국가와의 다양한 동일시에 의해 자극을 받는 새로운 의식의 형태, (3) 문화적 혼합, 혼종성, 브리콜리지(bricolage)로 특정 지워지는 문화적 동일시화 재현의 새로운 양식, (4) 지구화를 가능케 하는 초국가적 기업에 의해 설립되는 자본의 흐름, (5) 출판과 언론 등의 새로운 공학적 발전에 의해 가능해진 정치참여, (6) 멀고도 가까운 장소나 지역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구성 등이다(Vertovec, 1999a; 김홍구, 2011).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제 이주민들을 자연스럽게 ‘초국가적 이주민(transmigrant)’으로 지칭할 수 있다(Basch *et al.*, 1994). 하지만 초국가주의가 자유로운 유목민처럼 모든 제약을 초월해 영토를 넘나드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주자들이 추구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은 거창한 정치적인 행동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위한 전략으로써 생존적인 요소들이 늘 따라다닌다(Castles, 2000a). 또한 국경을 가로지르는 현상에도 영토적인 선호가 존재하기에 결국 초국가주의는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제한적인 사회적·지리적 공간속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Faist, 2010; 윤인진, 2012; 재인용).

초국가적 이주민에 의해 형성된 국경을 넘나드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는 ‘초국가적 사회의 장(transnational social field)’<sup>6)</sup>으로 불리며, 이 속에서 나타나는 행

6) 쉐러(Schiller)와 파이스트(Faist)는 ‘transnational social field’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며, 프라이즈(Pries)는 ‘transnational social space’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또한 레빗(Levitt)은 ‘transnational village’, 그리고 아파두라이(Appadurai)는 ‘translocality’, 마지막으로 베르토벡(Vertovec)은

태는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적영역에서 나타나는 초국가적 행태는 주로 송금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모국의 가족이나 친지들과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공적영역에서의 초국가적 행태는 개인 혹은 집단이 모국 사회의 정치적, 혹은 경제적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사회문화적 초국가주의는 이주국에서 모국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공동체적 활동의 형태로 나타난다(Portes *et al.*, 1999a; 김동엽, 2010; 재인용).

## 2.2.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 연구동향

쉴러, 바쉬, 그리고 블랑(Schiller, Basch and Blanc, 1994)은 초국가주의를 이주민들이 모국과 이주국을 연결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그들은 초국가주의의 활성화 요인으로 자본주의의 세계적 확산, 초국가적 비정부기구(NGO)의 성장, 탈국민적(post-national) 시민의 등장, 대중문화의 융합 등을 꼽는다. 라우스(Rouse, 1995)는 이주연구에 있어서 모국과 이주국 간의 관계라는 이항적 모델을 벗어나 ‘초국가적인 사회적 공간(transnational social spaces)’과 이주자의 ‘다중적 장소에 대한 귀속(multi-local affiliations)’의 개념을 결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초국가주의는 지리적이고 정치적인 경계를 넘어 이주민들이 이주국인 ‘이곳(there)’에도 있으면서, 모국인 ‘저곳(there)’에도 있음을 의미 한다. 구아니조와 스미스(Guarnizo and Smith, 1999)는 초국가주의를 행위주체에 의해 구분을 한다. 정부와 국제기구들의 활동을 의미하는 ‘위로부터의 초국가주의’와 이주민들과 기업의 활동을 뜻하는 ‘아래로부터의 초국가주의’를 분리하였다. ‘위로부터의 초국가주의’는 세계 금융경제에 의해 추동되는 동질적인 표준화를 구조적으로 강제하지만, ‘아래로부터의 초국가주의’는 좀 더 구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 여기에는 이주자가 송금, 편지, 전화, 친인척 초청, 위성방송 시청, 공동체 참여 등을 통해 여전히 본국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이주국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정의하는 것이 포함된다. 포르테스(Portes *et al.*, 1999a)는 초국가적 행위가 이주국 사회와 문화에 비통합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기존의 주장과 상반된 결과를 보여 주었다. 그는 미국에서 시민권을 획득한 이주민이 그렇지 않은 이주민보다 모국 정치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그는 모든 이주민들이 초국가적 행위에 참여하지 않고 그 수가 미약하다고 할지라도 향후에 점차적으로 수가 증가할 것이고 영향력 또한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캐슬즈(Castles, 2000)는 초국가적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국민적 정체성을 넘어 모순적이거나 유동적 정

---

‘transnational communities’라는 용어로 공동체를 표현했다(Vertovec, 2001).



체성을 갖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초국가적인 개인과 집단들은 그들이 사회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적응하기 위한 창조적 방법을 발견하고자 한다. 이들이 추구하는 바는 주로 정치적 또는 사회적 행동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위한 전략으로써 국가적 그리고 초국가적 사회공간에서 발생하는 생존적 요소들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김동엽, 2010). 또한 베르토벡(Vertovec, 2009)은 ‘초국가적(transnational)’을 국가가 아닌 행위자들(non-state actors) 사이에 국경을 넘나들며 유지되는 연결망이나 지속되는 교류로 정의했다. 또한 초국가주의는 초지역성(trans-localities)이나 다중 지역성, 자본의 초국가적 이동, 그리고 문화적 재생산, 정치활동의 초국가성 등의 특징들로 나타나며 결과적으로 초국가적 공동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면서 초국가주의를 민족국가의 국경을 가로질러 사람들과 기관, 제도들을 연결하는 복합적인 관계이자 상호작용으로 보았다. 따라서 초국가적 과정은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국민국가에 머무르고 있거나 넘나드는 현상으로 볼 수 있고, 흔히 특정 국가적 영토로부터 탈중심화 되는 현상인 ‘지구화’에 비해 제한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초국가주의 관점으로 국제 이주민들의 삶과 경험을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경학(2005, 2007, 윤인진, 2012; 재인용)은 인도인의 초국가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주연구에서의 초국가주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아래로부터의 초국가주의의 행위자로서 해외 인도인을 연구대상으로 그들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정치적인 삶 속에서 모국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초국가적 특성을 규명하였다. 김민정(2006)은 필리핀 이주여성들의 초국가적 행태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남편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이 여의치 않다는 것과 필리핀에 두고 온 가족에게 송금을 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이주여성이 사회적 노동에 참여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 참여하는 사회적 활동이 한국사회에 대한 접근의 한계 때문에 교회나 비공식적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는 곧 초국가적 행태와 연결된다는 것을 밝혔다. 유희연(2008)은 조기유학생의 초국가적 네트워크 특성과 정체성을 연구 하였다. 조기유학생은 이주국에서 새로운 삶을 뿌리박지만 유학원의 도움으로 본국과 다양한 연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되며, 이주국에서의 배제와 차별을 통해 민족성을 강화하거나 혹은 약화시키는 유연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장했다. 정병호(2014)는 북한과 같이 국경이 폐쇄적으로 관리되는 상황에서 그 경계를 뚫고 이루어지는 모든 비공식적이고 불법적인 ‘경계 넘기’ 활동은 ‘침투성’ 같은 역할을 하기에 ‘침투성 초국가주의(penetrant transnationalism)’의 개념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았다. 그는 일반적인 초국가적 활동과 비교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침투성 초국가’ 활동

은 비록 수적이거나 양적으로 제한된 것이지만, 일단 그 벽을 뚫고 넘나드는 움직임은 심각한 사회적 진동과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국내의 초국가주의 연구는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등의 이주자 집단, 해외에 체류하는 한국인 이주민, 그리고 국외 외국인 집단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윤인진, 2012). 그러나 상대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초국가적 프레임으로 살펴 본 연구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을 초국가적 이주민으로 간주하고, 그들의 정체성 변화, 자아표현 전략, 그리고 정보행위 전략을 논의한 본 연구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2.3. 초국가적 이주민의 정체성

정체성은 고정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구성되는(constructed) 존재이다(Jenkins, 1996). 미드(Mead, 1934)에 의하면 자아는 사회구조 속 자신의 위치와 연관되는 다양한 역할과 관련된 정체성으로 구조화되며, 이 과정 속에서 다수의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 쿨리(Cooley, 1902)는 ‘면경자아(looking-glass self)’ 개념을 통해 개인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정체성을 변화시켜 나간다고 했으며, 고프만(Goffman, 1959) 역시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정체성을 보인다고 했다. 이러한 정체성의 유동성(fluidity)은 현재에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는데, 기든스(Giddens, 1994)는 행위자인 주체는 외적 조건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조건들에 맞춰 정체성을 재구성한다고 지적한다. 바우만(Bauman, 2000)은 자신의 저서 ‘액체근대(liquid modernity)’를 통해 한때 흔들리지 않는 토대와 확실한 경계선이 있다고 믿었던 것들, 우리 삶의 기초에 놓여 있던 가족, 공동체, 국가조차도 그 견고함을 잃고 액체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형태를 바꾸어 나간다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정체성은 유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초국가적 이주민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데도 적용된다. 이주민은 초국가적 사회의 장 속에서 모국과 이주국을 연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을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관계 안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구성한다. 포르테스(Portes, 1997)는 초국적 이주민의 특징으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이중적 언어를 구사하고, 두 국가에 두 곳의 거주지를 유지하고, 이 두 곳에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이해를 추구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초국적 이주민은 한 국가에 고정되어 있는 단일 정체성이 아닌 다중적이고 가변적이며 혼종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구아니조와 스미스(Guarnizo and Smith, 1999)는 이주민의 정체성을 시·공간의

변화를 따라 움직이며, 이주민 스스로 이주상황에 적응하거나 저항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백일순(2010)은 이주민의 정체성 특징을 유연성(flexibility), 혼종성(hybridity), 그리고 위치성(positionality)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유연성’은 이주라는 변화된 환경에서 안정을 유지하면서 형태나 조직을 변경시키는 다양성과 그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으로써의 적응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되어 웅(Ong, 1999)은 홍콩출신 화교집단이 다양한 국가에서 시민권 같은 권리를 획득하여, 상황에 따라 주거와 일자리를 옮겨가며 살아가는 모습을 ‘유연한 시민권(flexible citizenship)’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정병호(2014)는 한국 전쟁 이후 분단체제 속에서 안보위기를 주기적으로 겪었던 북한 출신 실향민 출신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미국 등으로의 이주를 통해 ‘유연한 시민권’을 획득했음을 밝혔다. 두 번째로 ‘혼종성’은 이종성(heterogeneity)과 다양성(diversity)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 혼종성에 바탕을 둔 정체성은 절대 완전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형성과 재형성의 과정을 거친다. 마지막으로 ‘위치성’을 통해 이주민은 자신의 문화와 소속감을 바탕으로 자신과 타자와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안시아스(Anthias, 2006; 이슬기, 2009; 재인용)는 이주민들의 정체성을 그들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보이지 않게 만들 위험이 존재함을 지적하면서, 정체성을 위치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시각으로 접근했을 때, 이주자 집단 내의 다양한 차이들에 주목하고 이주를 과정으로 사고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고 덧붙였다. 박경환(2012) 역시 이주민들이 자신들이 떠나온 ‘거기’에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소속되어 있으며, 동시에 자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여기’에 존재하면서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이성(in-betweenness)이 특징인 위치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베르토벡(Vertovec, 2001)도 이주자의 정체성을 ‘정체성의 초국가화(the transnationalisation of identities)’라고 지칭하고 이미지, 실천, 담론, 관점의 초국가적인 흐름이 지역과 국가적 환경을 관통하면서 개인의 정체성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정체성은 네트워크와 인간, 장소, 역사와 연결되어 있으며, 모국과 이주국에서 발생하는 이중의 의식 속에서 일상의 경험, 과거와 미래가 초국가적 연계망과 자아의 초국가적 관념에 누적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초국가적 주체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곳과 동시에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곳에 영향을 받으면서 독특한 역할과 규범들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들은 정체성, 행위, 가치가 위치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을 자유롭게 구성하고 활용한다. 일례로 로빈스와 액소이(Robins and Aksoy, 2010)의 영국에 살고 있는 터키 이주민에 관한 연구가 있다.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터키 이주민이 사회생활에

서는 영어를 사용하고 영국인들과 어울리려 했으나, 집에서는 터키어로 가족들과 대화하며 위성방송으로 터키 드라마를 시청하는 등 모국의 문화를 실천하고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은 초국가적인 이주민으로서 남한과 북한에 동시에 걸쳐 있으며, 그 속에서 유동적이며 혼종적인 정체성을 형성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재구성된 정체성은 독특한 자아 표현방법으로 드러날 것이다.

### 3. 다른 이주민과의 차별성

북한이탈주민은 이주민에 속하지만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이주민 집단과는 엄연히 차별화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떠나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거주할 때는 난민에 가까우나, 남한에 와서 정착하게 살게 되면 이주민에 가깝다. 그러나 전형적인 이주민의 경우와는 달리 언어나 문화, 관습 등이 남한과 거의 비슷하다는 특징이 있다(정진경·양계민, 2004). 따라서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북한이탈주민이 다른 이주민 집단과 차별성이 두드러지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 첫째, 낮은 언어 장벽

기존의 이주민 연구에서 문화적응이 잘된 이주민과 그렇지 못한 이주민의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가 현지 언어 구사능력에서 발견(Berry, Kim & Boski, 1987)되었다는 결과처럼, 언어는 이주민들이 주류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일 중 하나이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은 다른 이주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언어적 장벽을 경험한다. 물론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에서 많이 사용하는 영어, 외래어 그리고 각종 은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럼에도 완전히 다른 언어체계를 사용하는 사회에 적응해야만 하는 다른 이주민 집단보다는 다소 유리한 위치에 있다. 실제로 이주민의 적응을 연구한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이주국의 언어를 알고 있는 이주민이 그렇지 않은 이주민보다 상대적으로 적응하는 데 유리하며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Case, 2002; Sparks and Wolfson, 2001; Shoham and Strauss, 2007; 재인용). 또한 ‘새터민 언어실태 조사연구<sup>7)</sup>’에 따르면 언어 차이로 인한 생활 불편 정도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의 36%가 ‘보통이다,’ 28%가 ‘별로 못 느

7) 자료출처: ‘새터민 언어실태 조사연구’, 국립국어원(2007).

낀다,’ 15%가 ‘전혀 못 느낀다,’ 그리고 21%가 ‘불편함을 느낀다,’ 로 불편을 느끼는 사람보다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언어 적응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효율성 문제와 관련 된 것만은 아니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언어 문제는 곧바로 정체성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심원, 2006).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어 구사 능력에는 부족함이 없으나 발음, 어휘 등의 몇몇 측면에서 표준 한국어와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대다수는 함경북도 출신이다. 함경북도 말은 성조 방언이라고 해서 남한으로 말하자면 경상도 방언처럼 높낮이가 심한 편이다. 전체적으로 억양이 두드러지고 표준 한국어와 차이<sup>8)</sup>가 확연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이 한 마디만 해도 북한에서 온 게 바로 표시가 난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차별로 이어진다.

남한 사람들의 북한어에 대한 낮은 평가와 부정적 태도는 쉽게 관찰된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들은 언어적 불안정성(linguistic insecurity)과 언어활동의 어려움을 가지며, 사투리를 교정하고 빨리 표준어를 습득하려는 노력을 한다(정경일, 2001). 또한 양수경(2013)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절반 이상(58%)이 북한어 사용 시 남한 사람들의 주목을 받거나 북한이탈주민임이 드러나 차별을 느끼는 심리적 타자화를 경험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적 타자화를 경험한 사람들 중의 40%가 그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낙인찍히고 싶지 않아서 남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피한 경험까지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에게 낮은 언어장벽은 적응에 유리한 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북한 특유의 발음과 어휘를 사용하는 것은 북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적응에 있어 불리해지기도 한다.

## 둘째, 반국가단체 출신 이주민

현재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첨예한 이념적 대립과 군사적 대결구도가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여전히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 테러위협 등 크고 작은 도발로 남·북한 간의 평화를 끊임없이 위협하며 긴장상태를 초래한다. 국지도발이 언제든지 전면적으로 비화될 수 있는 불안정한 휴전상태이므로, 북한은 현재 국가보안법에 따라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있다. 국가보안법 제 6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에 나와 있듯이 북한이탈주민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이주민 집단과는 다르

8) 자료출처: ‘새터민 구어 학습용 교육 자료 개발’, 국립국어원(2012)

게 모국으로의 귀국이 불가하다. 간혹 비공식적으로 브로커를 통해 월북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극소수에 해당되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인해 북한과의 정보통신 교류가 공식적으로 전면 금지되어 있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은 모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네트워크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다른 이주민들이 국제 통화나 인터넷을 이용해 모국의 가족들과 쉽게 연락을 주고받는 것과 매우 대조되는 상황이다. 북·중 국경지대 도시에 살고 있는 북한 사람들은 중국에서 몰래 휴대폰을 반입한 뒤 단둥이나 투먼에 설치된 통신기지를 통해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과 통화를 한다.<sup>9)</sup>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의 말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위부의 감시<sup>10)</sup>로 인해 한 달에 2번 이하로 통화를 하며, 한 번 할 때마다 10분 정도밖에 못한다고 한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은 다른 이주민 집단에 비해 모국과 연결되기 어렵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은 과거와의 철저한 단절과 완전한 동화를 요구 받는 집단(조정아, 2014)이다. 다른 이주민 집단이 인천의 차이나타운 혹은 안산의 다문화거리처럼 고향 문화를 보존하고 전시하는 것이 권장되는 반면에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의 기억과 전승, 익숙한 문화, 관습과 관행을 드러내는 것이 금지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지만 적어도 환영 받지 않는 일로 간주된다(이수정, 2011).

마지막으로 미디어 이용에 있어서도 북한이탈주민과 다른 이주민 간의 차이가 드러난다. 적응에 영향을 주는 미디어는 크게 고향의 소식을 전해주고 이주 집단의 고유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네이티브 미디어(native media)와 주류문화(mainstream culture)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응하는 것을 도와주는 호스트 미디어(host media)로 나누어진다(Bahk & Jandt, 2004; Hao & Zhu, 2004; 심원, 2006; 재인용). 그러나 북한과의 정보통신 교류가 철저히 금지되어 있어,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미디어(native media)에 대한 접촉이 쉽지 않은 상태이다. 물론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에서 북한 영화와 만화 등의 자료를 제공해주고, 유튜브(YouTube)와 같은 인터넷 상에서도 북한 드라마나 음악 등을 쉽게 찾을 수 있어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의 문화와 완전히 단절되었다고는 보긴 어렵다. 그러나 접촉가능한 네이티브 미디어의 종류, 뉴스의 절대적 분량, 뉴스의 업데이트 주기, 현지인(북한 사람)과의 직·간접적 접촉 가능성 등을 비교해 보았을 때, 북한이탈주민은 일반적인 국

9) 자료출처: ‘북한주민과 전화통화 어떻게’, 뉴시스(2011-12-21)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1220\\_0010046655&cID=10201&pID=10200](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1220_0010046655&cID=10201&pID=10200)

10) 북한 당국은 남한에 있는 사람들과 접촉한 북한 주민을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남한에 있는 사람들과 연락한 것으로 의심되는 주민들을 교화소에 보냈었지만, 김정은 정권 이후엔 더 혹독한 시설인 관리소, 이른바 정치범수용소로 보내는 등 처벌의 강도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자료출처: ‘북한, 탈북자 처벌 강화’, VOA(2015-02-11)

<http://www.voakorea.com/a/2636654.html>

가 간 이주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문화교류(심원, 2006)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셋째, 한민족 인식 공유

대부분의 이주민 연구가 서로 다른 인종 혹은 민족 간의 문화 접촉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을 다룬다. 반면에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사람들과 한민족이라는 강한 민족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미군과 소련군에 의한 두 개의 정부가 남과 북에 수립되기 전 까지 한반도에는 하나의 국가아래 단일 민족이 존재했었다. 이러한 민족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남·북한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집단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자족적, 온정적, 그리고 연대적 가치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사회는 분단과 동시에 서로 다른 이념에 바탕을 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두 사회는 인위적으로 서로간의 차별화의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이질화를 초래하였다. 1990년대에 통일의 필요성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남한에서는 91.6%에 달하는 많은 사람들이 통일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했고, 그 이유로 ‘같은 민족이며 동포’라는 정서가 통일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통일의식이 변화하여 통일에 대한 의식이 약화되었고 그 이유도 ‘전쟁발생방지(27.3%)’, ‘선진국이 되기 위해(17.6%)’ 등 실리적인 문제들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은 90%라는 높은 비율로 통일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갈망하고 있었다. 그 배경에는 같은 민족이며 동포라는 민족주의 정서와 당위론적 논리가 바탕에 깔려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김병로·최경희, 2012).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갖게 되는 불만은 같은 민족으로 취급하지 않는 남한 사람들의 태도에 기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자신들을 동일민족으로 대우해주지 않으며 오히려 우월감을 가지고 무시하는 남한 사람들의 태도는 이들에게 상처가 된다.

### 넷째, 차별화된 적응지원

북한이탈주민은 다른 이주민 집단과 달리 남한에 도착하자마자 국적을 취득하며, 미등록 체류자가 되거나 추방의 위험도 거의 없다. 또한 정착금과 임대아파트, 및 정착교육을 제공받는 등 특혜에 가까운 정부지원을 받는다. 이는 한민족 이주민 중에서도 중국 조선족이나 러시아나 중앙아시아의 과거 소비에트연방에 속했던 국가

출신의 동족 이주민에 대해서 비자 발급조차 제한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오직 북한 출신 이주민의 정착을 위해서만 지급되는 정착 지원금은 냉전시대로부터 내려온 체제 경쟁 비용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온 사람들은 사회주의의 문제점과 자유민주체제의 우월성을 몸으로 증명해주는 증인이기 때문이다(정병호, 2014).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에서 2개월 동안 남한 사회의 이해, 사회적응 능력배양, 기초 소양교육, 직업훈련 등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더 나아가 하나원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정착지원과 신변보호 등 사후관리가 이어진다. 우선 정착지원은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 사회·종교단체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정착지원금, 직업훈련, 취업알선, 학교편입 및 교육비 지원, 자매결연, 의료지원 등의 각종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하나원에서 남한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적응교육을 받으며, 주거알선, 가족관계 등록창설, 정착금 등 기본적 지원을 받는다. 그 다음 신변보호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신변보호담당관이 지정되며, 북한이탈주민의 신변을 보호하고 관련 상담업무를 수행한다.<sup>11)</sup> 정병호(2014)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특별 지원은 그들이 정착 초기에 비교적 빠른 생활 기반을 갖추게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전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존적인 존재로 길들여지는 치명적인 장기적 적응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은 일반적인 이주민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북한’ 출신으로서의 특수성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따라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북한은 공식적으로 모든 정보통신 교류가 금지되어 있으며 북으로의 이동 또한 불가하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은 모국과의 연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인터넷을 통해 북한의 음악이나 영화를 접하고, 고향음식을 만들어 먹는 등 고향에서의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브로커를 통해 고향에 송금을 하거나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기도 하는 등 모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초국가주의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제 2절. 자아표현

북한이탈주민의 자아표현 전략을 살펴보기 위해 제 2절에서는 자아표현의 개념을 정의하고, 고프만(Goffman)의 인상관리기술을 논의한다. 이번 절에서 고프만의 이론을 검토한 이유는 자아표현에 대한 연구가 고프만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고프만은 그의 저서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를

11) 자료출처: 『2012 통일백서』, 통일부(2012).



통해 사람들이 상호작용 과정에서 어떻게 자신의 실제 자아를 특정 방식으로 관리하여 타인에게 보여주는지 분석했다. 고프만의 주장은 자아표현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이론적 뒷받침이 되기에 이번 절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 1. 자아표현의 개념

자아표현이란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를 알리는 과정이다. 박기순(1998)은 자아표현을 자발적이고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자기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신명희(2007)는 자아표현을 사람들이 자신의 특별한 이미지를 언어, 혹은 외형 등을 통해 타인들에게 전달하려는 언어적,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한 종류로 보았다. 따라서 자아표현은 언어행위와 비언어행위를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다른 이에게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자아표현은 자신의 정신성 및 사회성에 여러모로 영향을 끼치게 되며, 특히 대인관계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 어떤 사회적 상황이나 관계형성에 있어서 자아표현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요소가 되는데, 왜냐하면 누군가와 상호교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나를 알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야하기 때문이다(김유정, 2008). 존스와 피트만(Jones and Pittman, 1982)에 따르면 자아표현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반응하게끔 영향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자아표현은 궁극적으로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더욱 생산적인 대인관계를 지속시켜주며, 더 나아가 자신의 인지적, 감정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에 관련되어 고프만(Goffman, 1959)은 우리의 삶이 수많은 일상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되고, 사람들은 타인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아를 의도적으로 연출한다고 밝혔다. 고프만의 주장은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겠다.

## 2. 고프만(Goffman)의 관점에서 본 자아표현

### 2.1. 인상관리기술

셰익스피어는 “모든 사람은 배우로서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여러 역을 연기한다,” 고 말한 바 있다. 고프만(Goffman, 1959)은 셰익스피어가 이야기한 인생의 연극론적 측면을 사회학 관점에서 현실에 적용시켰다. 그는 인간의 삶을 공연이 행해지는 무대,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무대 위 배우의 연기로 표현하였다. 공연은 일상

생활에서 개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인상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러한 공연이 이루어지는 곳은 무대이며, 무대는 전면영역과 후면영역으로 분리된다.

전면영역은 관객을 위해 상황을 정의하는 일반적이고 고정된 형태로 규칙적으로 기능하는 공간이다. 공연자는 무대에 서게 되면 자신의 관점에서 상황을 정의한 후, 마치 가면을 쓰듯이 전면을 상황정의에 맞도록 갖추고, 자신의 의도를 적절히 조정하여 청중에게 가장 좋은 인상을 보이도록 노력한다(김하나, 2012). 전면영역에서는 정보 통제를 함으로써, 감춰야 하는 사실들을 은폐하여 공연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프만은 무대전면을 무대장치와 개인의 무대장비로 더욱 세분화시켰다. 무대장치는 행위자들이 연기를 할 경우 일상적으로 거기 있어야 할 물리적 배경을 뜻하며, 개인의 장비는 행위자의 외모와 태도를 가리킨다. 외모는 공연자의 사회적 지위를 암시해 주는 의사 가운, 단정한 머리 스타일 등을 나타내며 태도는 공연자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지를 관객들에게 말해 주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후면영역은 관객의 접근을 막음으로써 공연에 의해 조장된 인상과는 모순되는 공연자의 행위들이 벌어지는 장소라 할 수 있다. 후면영역에서는 공연자들이 가면을 벗고 긴장을 풀며, 자신에게 기대되는 행동을 수행하지 않을 자유가 주어진다. 이러한 후면영역들이 관객에게 노출된다면 공연자가 전면영역에서 얻으려 했던 인상과의 불일치를 유발하게 된다(Goffman, 1959). 일상생활에서의 공연은 전면영역과 후면영역이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공연자든 관객이든 전면과 후면을 동시에 취할 수는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김병서, 1983).

전면영역에서 공연자는 ‘인상관리기술’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인상을 드러낸다. 고프만이 제시한 인상관리기술에는 ‘Dramatic Representation(극적실현)’, ‘Idealization(이상화)’, ‘Maintenance of Expressive Control(표현통제의 견지)’, ‘Misrepresentation(허위표현)’, ‘Mystification(신비화)’, 그리고 ‘Reality and Contrivance(실제와 계략)’이 있다. 우선 ‘Dramatic Representation(극적실현)’은 공연자가 자신의 행동을 외부에 더 잘 보이게 할 수 있도록, 더 크게 표현을 한다는 의미이다. 즉, 그 일을 실제 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그 일의 의미를 표출하는 데 더 많이 시간을 소비하고, 보이는 부분을 부각시켜 극적으로 연기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Idealization(이상화)’는 공연자가 관객에게 이상화된 이상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공연자는 이를 위해 일반적인 가치와 모순되는 자신의 요소를 억압하고 은폐하는 연기를 해야만 한다. 반면, 공연자가 자신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세밀하게 겸손을 내세우고 부와 능력과 정신력 및 자존심을 낮추어 표현하

기도 하는데, 고프만은 이를 ‘부정적 이상화’로 불렀다. 고프만의 예를 들면, 미국의 여대생들은 종종 데이트를 할 때, 남자친구보다 자신의 지성과 재능을 낮추어 보이거나 남자친구보다 수학을 더 잘할 수 있음에도 이를 숨기며, 남자친구와의 운동경기에서 일부로 져주기도 한다. 세 번째로 공연자는 ‘Maintenance of Expressive Control(표현 통제)’에 의존함으로써 공연을 방해하는 일관성 없는 기분이나 혼란상태 등에 빠지지 않게 된다. 즉, 고프만은 인간으로서 우리는 순간마다 변하는 기분과 에너지를 가진 다양한 충동으로 되어 있는 창조물이지만 등장인물로서 관객 앞에서 공연을 할 때 우리는 혼란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모든 지정된 시간에 완전히 동질적인 공연을 하고 있음을 신뢰받기 위해서는, 정신의 관료화(bureaucratization of the spirit)가 기대 된다 하였으며, 이러한 정신의 관료화는 사회적 훈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타인에게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이런 이미지의 형성에 혼란을 가져오는 결함들을 끊임없이 집중적으로 찾아내고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장현미, 2014). 이와 함께 고프만은 ‘Misrepresentation(허위표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는 사실을 다른 모습으로 꾸미어, 즉 허위로 표현하는 거짓말이나 사기로 볼 수 있다. 많은 공연자들은 사실을 허위로 표현하는 능력과 동기를 갖고 있고, 오히려 부끄러움, 죄책감, 공포만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는 것을 막는다. ‘Mystification(신비화)’는 공연자들이 관객으로부터 접촉에 제한을 가하고, 덮어버리며,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 즉, 고프만은 공연에서 행위자는 특정 측면은 강조하고 다른 면은 감추는 방법들을 취함으로써 관객들의 접촉을 통제할 수 있으며, 이는 관객들로 하여금 경외심을 갖게 함으로써 신비화의 상태에 있게 한다고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Reality and Contrivance(실재와 계략)’을 통해 공연자는 그들이 현재 공연하고 있는 과정이 그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 것이며, 적어도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는 인상을 조장시킨다. 관객 또한 그들 나름대로, 그들 앞에 있는 공연자를 개인의 총체라고 가정하기도 한다. 공연자들은 그들의 연극 순서에 따른 현재 공연 및 현재의 관객과 그들의 관계가 그들 자신에게 특별하고도 유일한 것이라는 인상을 조장하려고 한다(김하나, 2012). 그러나 고프만은 정직하고 성실하며 진지한 공연이 처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견고하게 실제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덧붙여 모든 세계가 다 연극 무대는 아니지만, 세상이 다 연극 무대가 아니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는 것 또한 쉽지 않다는 점을 언급했다(Goffman, 1959).

그러나 고프만의 주장은 이론이나 방법론으로서 완성되지 못했으며, 전개방법이나 개념정의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굴드너(Gouldner, 1970)

는 모든 상황마다 정체성이 다르게 표현된다는 고프만의 주장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굴드너는 고프만의 이론이 사람들을 상황적으로 살도록 초대(송성화, 1985)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사람들은 타인에게 이상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애써야하기 때문에, 모든 사회적 관계는 상대방의 ‘가면’을 들여다보는 스파이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전략한다고 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고프만의 인상관리 기술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자아표현을 분석하는 데 있어 유용한 분석틀로 볼 수 있다.

## 2.2. 전략적 게임관점에 따른 자아

고프만은 앞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아를 ‘전략을 취해 게임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끄는 능력(gamemanship)’을 가진 존재라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에 관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를 판단한 후 거기에 기초하여 전략적으로 행동한다(Goffman, 1959). 전략적 게임의 관점에서 공연자는 자신이 추구하는 긍정적인 자아이미지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측면이 부각되는데, 자신의 좋은 인상을 드러내거나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불리한 정보는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이다(장현미, 2014). 고프만은 게임 상황에서 공연자가 고려해야 할 것으로 (1) 상대방의 움직임 (상대방은 어떤 행동을 하려는가? 누구와 접촉하려 하는가?), (2)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들(상대방의 취향, 목표), (3) 상대방의 정보현황 (특정한 상황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공연자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는가?) 등을 언급하였다.

또한 그에 의하면 공연자는 인상관리를 위해 스스로 보호하는 ‘방어속성과 시도책략’ 그리고 위협을 가하는 접촉들을 전략적으로 피하는 ‘회피’와 같은 전략적 행위들을 한다. ‘방어속성과 시도책략’은 ‘연극학적 충성’, ‘연극학적 단련’, 그리고 ‘연극학적 용의주도’로 구성된다. ‘연극학적 충성’은 공연자들이 자신의 공연을 성공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팀의 비밀을 지켜야만 하는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가리킨다. 공연자는 ‘연극학적 단련’을 통해 본의 아닌 실책을 저지르지 않고, 스스로 감정을 억누를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극학적 용의주도’는 성공적인 공연을 위해 공연자들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돌발사건에 대비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한 공연의 무대 후면이나 전면에서의 접근은 공연자들 뿐 아니라 관객이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통제되는데, 그들은 자신이 그런 영역에 들어가려 함을 깨달았을 때 ‘보호 책략’을 행한다. 관객은 공연자들의 실수나 공연자의 인상과 현실 사이의 불일치를 보게 되었을 때, 이러한 것을 못 본체 하거나 실수에 대한 변명을 쉽게 받아들이게 된다고 한다. 덧붙여 ‘요령에 관한 요

령’은 공연자가 암시에 민감해야 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함을 뜻한다. 공연자는 어떤 식으로든 사실을 왜곡해서 표현할 경우, 왜곡표현의 에티켓(거짓말을 할 때 농담의 낱새를 나타내는 등)을 간직해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적대국 출신인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특수한 신분 속에서 어떻게 자아표현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고프만(Goffman, 1959)의 이론처럼 북한이탈주민이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만을 보여주려는 전략적 자아표현을 취한다면, 그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본문에서 자세하게 서술하겠다.

### 제 3절. 정보추구행위

제 3절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보추구행위 전략을 살펴보기 위해 정보추구행위 개념을 정의하며, 이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다. 또한 이주민들에게 정보추구행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밝힌다. 그리고 이들이 어떤 종류의 정보를 주로 필요로 하며 어떻게 정보원을 선정하여 정보를 획득하는지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소개한다.

#### 1. 정보추구행위 개념

정보에 대한 정의는 각 학문 분야에 있어 학자들마다 관점이나 견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규정할 수가 없다. 정보학자 더빈(Dervin, 1983a)은 정보는 결국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만 의미를 지니는 주관적 산물이라며, 특정 개인의 정보에 대한 요구는 정보 자체의 객관적인 특성이나 가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주관적으로 형성되며 지속적으로 변화한다고 정의 내렸다. 케이스(Case, 2002)는 정보를 핵심적 재료 혹은 차이를 만드는 어떤 것으로 규정하며, 외부 환경에서 기인한 것이든 내면의 세계에서 비롯된 것이든 인간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정보추구행동에 관한 연구는 정보행태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정보행태에 관한 연구는 원래 ‘일반자 연구’라는 명칭 아래 1940년 이후 정보요구 및 이용에 관한 경험적 연구로 발전되었다. 이후에 정보요구 및 이용에 관한 연구는 ‘정보추구’로 용어가 바뀌었는데, 이는 정보원, 정보채널 등을 파악하려는 인간 중심의 연구로 변화하였음을 나타낸다(사공복희, 2003). 정보추구라는 용어는 정보 이용자인

사람에게 강조점이 이동하면서 선호되기 시작하였는데(Case, 2002), 즉 시스템을 어떻게 이용하는가와 같은 시스템 중심의 접근에서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태를 비롯한 정보 이용자 중심의 연구로 전환된 것이다(백혜란·이기춘, 2006; 재인용).

크리켈라스(Krikelas, 1983)는 정보추구행위가 지각된 요구를 만족하는 메시지를 식별하기 위해 취해지는 개인들의 활동들이며, 정보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어떤 자극이라고 인식했다. 켈도우(Kuhlthau, 1991)는 정보추구란 불확실성에서 시작하여 이해에 이르는 구성의 과정으로, 특정한 문제나 논제에 관한 지식의 상태를 확대하기 위해 정보로부터 의미를 발견하는 이용자의 활발한 구성주의적 활동이며, 이러한 문제해결과정을 정보추구로 보았다. 윌슨(Wilson, 1999b)은 정보추구를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는 요구의 결과로서 의도적인 것으로 정의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Case, 2002, 2007)는 정보추구를 역동적인 과정으로 간주한다. 그에 따르면 정보추구는 정보에 대한 요구를 인식한 추구자가 적합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적절한 정보원을 선정하여 정보를 취득하고, 정보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한 후 이용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여기서 정보원은 사회관계망, 공식적인 기관, 인터넷 기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접근가능성, 이용용이성, 비용, 친숙성 및 신뢰성이 높은 비공식 정보원에 의존한다(양순우, 2010).

정보행위(Information Behavior)는 이와 같은 정보추구와 관련된 인간의 총체적 행위로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능동적’이란 의미는 정보 채널 및 정보원과 관련된 자발적인 행위를 뜻하며, ‘수동적’ 정보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무심히 잡지를 훑어보거나 TV 광고를 통해서 얻는 등의 것과 관련 있다. 즉 정보행위는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요구를 인식하고 그 정보를 찾고자 탐색하며 후에 그 정보를 이용 및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동을 뜻한다(Wilson, 2000).

지금까지 정보추구에 관한 연구들 중 진정한 인간의 ‘정보요구’가 무엇인지 깊이 있게 탐구한 것은 거의 없다. ‘정보요구’의 개념에 의문조차 갖지 않은 연구도 많다. 오히려 대부분의 저자들은 정보요구는 그냥 존재하는 것이고, 별로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한다(사공복희, 2003). 정보요구에 대한 학자들의 설명은 정보의 본질, 왜 사람들은 정보를 추구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정보를 이용하는가에 대하여 그들이 가정하고 있는 바를 반영해 주는 연속선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케이스(Case, 2002)는 정보요구를 행위자가 세운 목표를 이루는 데 지식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는 과정 혹은 행위자 스스로 정보 부족이라는 것을 지각한 채 부족한 부분을 발전시키려는 것으로 보았다. 크로우포드(Crawford, 1978)에 의하면 정보요구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거나, 의견을 수정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등 다

양한 분야의 흥미와 동기에 의해 발생한다고 한다. 정보요구는 정보지향(orienting information)과 문제 지향적 정보(problem-specific information)로 나눌 수 있다. 정보지향은 미디어나 다른 정보원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의 행사나 습관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 예로 종교적이거나 문화적인 행사, 정치적인 이슈 등이 있다. 문제 지향적 정보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언어, 고용, 주거, 교육, 교통, 은행 등에 관한 정보를 가리킨다(Savolainen, 2008).

마지막으로 정보공유는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개념이다. 정보 공유는 네트워크의 설립, 유지, 그리고 확장을 통해 개인들 사이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뜻한다.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이러한 정보공유는 초국가적인 연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Caidi and Allard, 2005).

## 2. 정보추구행위에 관한 선행연구

초기의 정보추구행위는 이용연구(use studies)로 불려졌다. 쉘논과 위버(Shannon and Weaver, 1949)는 정보에 대한 대중적 개념을 발생시켰다. 그들의 커뮤니케이션 모델에 따르면 메시지의 출처와 목적지는 연속선상의 양 끝에 위치해 있고, 그 둘은 메시지에 의해 연결된다. 메시지는 송신기에 의해 신호로 변환되고, 이 신호는 어떤 종류의 채널을 거쳐 수신기로 보내진다. 수신기는 그 신호를 목적지로 보내기 위해 다시 메시지로 변환시킨다. 채널은 메시지를 방해하거나 왜곡할 수 있는 잡음의 영향을 받는다. 그들의 모델 중 ‘피드백’의 역할은 수용자의 능동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는 이들의 모형 버전을 올리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Case, 2002; 재인용). ‘능동적 수용자’에 대한 이들의 제안은 ‘이용과 충족’(Katz, Blumler & Gurevitch, 1974)이론으로 이어졌다. 이용과 충족 이론은 수용자는 능동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와 동기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언론매체를 사용하며, 수용자의 미디어 이용은 목적 지향적 행위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용과 충족 연구에서는 몇 가지 공통된 논리를 가정하고 있다. 첫째, 수용자는 능동적인 존재이며, 목적 지향적이다. 수용자는 미디어가 전달하는 내용을 단순히 무비판적이고 획일화된 형태로 받아들이지 않고, 욕구를 충족시키고 필요성에 따라 미디어를 선택하고 이용한다. 둘째, 수용자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디어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대안을 추구한다. 셋째, 수용자는 그들의 능동적인 욕구에 의해 선택적으로 미디어를 결정한다. 넷째, 미디어의 가치 판단은 수용자 개인의 인식에 따라 다르다. 이용과 충족 이론은 수용자의 능동적인 태도를 중시하고 절대성이 없는 상대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간다는 데에서 그 의미(김재호, 2007)를

찾을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능동적인 수용자의 정보행위는 정보탐색(information seeking)이라는 개념으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정보탐색이라는 개념이 오직 정보를 찾아내는 것만 강조하고, 사람들이 정보와 상호작용하는 수많은 방법들을 다루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따라서 1990년대에 들어서 정보행위(information behavior) 혹은 정보실행(information practices)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기도 했다. 정보행위에 대한 연구는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시작되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법, 보건, 사회과학 분야 등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왔다(Bates, 2010).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정보행위에 대한 모델이 제안되어 왔다. 윌슨(Wilson)은 이용자연구와 정보행위를 동일 선상에서 이해하는 출발점에서 시작하여 정보요구 및 정보탐색행위를 아우르는 정보행위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1980년대 이용자 중심적 패러다임의 변화와 그 궤를 같이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윌슨(Wilson, 1981)은 정보추구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써 환경적 요소(직업 환경, 사회적 환경, 경제적 환경), 역할(사회적 역할, 직업관련 역할, 일의 수행 정도) 그리고 개인 본인의 욕구(생리적, 인지적, 애정 욕구) 등의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정보 이용자의 지각된 정보요구에 의해 정보원과 상호작용으로 정보추구 행위가 발생하며, 정보가 이용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의 정보가 상호 교류되기도 하고, 정보 전달이 수행된다. 이러한 정보추구의 결과는 정보요구의 만족과 불만족으로 종료된다(김갑선, 2005). 그러나 여전히 정보행위보다 정보추구 개념이 통용되고 있으며, 정보추구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 메토예르-두란(Metoyer-Duran, 1991)은 게이트키퍼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게이트키퍼(ethnolinguistic gatekeepers)들이 그들의 민족 커뮤니티에서 정보전파자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정보를 찾기 시작하면서, 게이트키퍼의 역할은 줄어들고 있다.

해리스와 듀드니(Harris and Dewdney, 1994)는 사람들의 정보 행위를 6가지 원칙, (1) 정보 요구는 도움추구자(helper seeker)의 상황으로부터 발생된다, (2) 도움을 요청하거나 요청하지 않는 것은 다양한 요인(factors)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3) 사람들은 가장 접근이 용이한 정보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4) 사람들은 기관이나 단체보다 대인관계, 특히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먼저 얻고자 한다, (5) 정보추구자(information seeker)는 정신적인 지지도 기대한다, (6) 사람들은 정보를 찾는데 있어 그들의 습관패턴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다, 로 구분하였다.

사보라이넨(Savolainen, 1995)은 일상생활에서의 정보추구(Everyday Life Information Seeking, 이하 ELIS) 연구의 개요적 틀을 제공하였다. 그는 일상생활이



적응하기 위해 또는 직업적 과제 수행과는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적 요소를 수집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의 습관과 태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일상의 의미 있는 선택을 하게 될 때 개인의 가치와 신념을 이용하도록 한다고 보았다. 또한 일상생활의 정보추구를 구성하도록 상호작용하는 영향요인으로 생활방식(way of life)과 생활태도(mastery of life)를 제안하였다. 생활방식은 삶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활동 중에서 시간예산, 소비모형, 취미에 영향 받아 특정 활동에 주어지는 선호이며, 정보추구에서는 특정 정보원이나 채널을 선호하는 근거로 사용된다. 생활태도는 이러한 일상체계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으로,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든 일상의 문제해결에 접근해 가는 일반적 준비이다. 이는 적응성에 따라 낙관적-인지적, 비관적-인지적, 방어적-감정적, 비관적-감정적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의 정보추구는 현재사건에 관한 적응적 정보추구와 구체적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정보추구로 나눌 수 있다.

존슨과 그의 동료들은 (Johnson *et al.*, 1996)는 정보추구란 선택된 정보원반자로부터의 정보의 입수라고 단순하게 정의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정보추구는 일차적으로 의도적이라는 점이 가정되며, 이 의도성은 개인이 마음에 두고 있는 특정 목적의 성취와 관련된다고 하여, 정보추구가 목적적 행위임을 말해 준다.

피셔와 페티그루(Fisher, 2005, Pettigrew, 2000)는 인포메이션 그라운드(information ground)의 개념을 설명했는데, 이는 하나의 목적으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자발적이면서 우연한 정보 공유가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식당, 미용실, 버스, 식료품점, 교회 등이 있다.

### 3. 이주민의 정보추구행위

이주민은 전형적으로 정보빈자(information poor)에 속하며, 그들은 일상생활에 대한 정보를 찾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Fisher *et al.*, 2004). 이주국에 대한 불확실성, 지식과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감정들은 이주민들이 정착을 위한 정보를 찾게끔 한다. 특정한 문화에서 성장하고 거주한 사람들은 특정 사고와 신념을 가지는데, 다른 문화권의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사람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불확실성, 지식의 격차, 그리고 정보의 부족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감정들은 사람들의 적응을 돕고자 정보요구 행위를 야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이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에 필수 요건이라 할 수 있다(Shoham and Strauss, 2007). 따라서 이주민의 정보행위는 ‘생존’과 직결된 것이

라 볼 수 있다.

정보는 이주민이 새로운 문화에서 인지도(cognitive map)<sup>12)</sup>를 창조하는데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이주민이 새로운 사회에서 그들의 위치를 강화시키고 정착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Bar-Yosef, 1968). 충분한 정보 없이 이주민은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이주민이 이주국에서 제공해주는 다양한 지원, 주거, 고용, 교육, 보건 등에 관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획득하기 어려우면, 이주민은 정착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Caidi and Allard, 2005).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이루어진 이주민의 정보행위에 관한 연구에서, 이주민은 그들의 사회, 경제, 교육, 문화, 인종적인 요소들로 인해 정보 빈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더 나아가 이주민들은 소비생활, 교육과 리터러시, 고용, 가족계획, 보건, 법, 행정, 교통, 복지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정보에서 소외되었음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Childers, 1975; Caidi et al., 2010; 재인용).

초국가주의는 이주민의 정보행위에 있어서 유용한 틀이 될 수 있다. 이주민은 모국과의 관계를 모두 끊고 이주국에 완전히 흡수 되는 것이 아니다. 대신에 이주민은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인 연계를 통해 모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추구와 교환은 기본적인 초국가 행위이며, 다양한 기술과 미디어를 통해 이주민들의 네트워크 사이에서 일어난다(Faist, 2000).

본 연구에서는 이주민의 정착을 위해선 정보가 필수불가결하며, 이주민은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능동적으로 정보추구행위를 한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해 북한이탈주민의 정보추구행위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사람들은 거시적인 개념의 정보보다 일상생활을 위한 정보를 요구한다는 사보라이넨(Savolainen, 1995)의 주장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정보유형을 구분하고, 일상적 정보원과 정보매체로 나누어 정보획득 과정을 논의한다. 더 나아가 북한이탈주민이 정보행위에서 겪는 어려움을 밝히고자 한다.

---

12) 인지도(cognitive map)는 미국의 학습 이론가인 톨만(Tolman)에 의해 제안된 개념으로, 학습 시에 인간이나 동물이 소유하게 되는 문제 해결이나 목표 달성의 방법에 대한 정신적 표상이다.

자료출처: '인지도',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73779&cid=41990&categoryId=41990>

## 제 3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제 1절.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초국가적 이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이 어떻게 정체성을 재구성 하며, 자아표현과 정보행위의 측면에서 어떠한 적응 전략들을 펼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연구에 있어 ‘북한’ 출신의 ‘초국가적’ ‘청년층’ 이주민이라는 연구 참여자의 특성을 유념해둌으로써 이러한 특성들이 복합적으로 정체성과 적응 전략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연구 문제를 도출해내었다.

**연구문제 1. 초국가적 이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은 어떻게 정체성을 재구성하는가?**

연구문제 1에서는 초국가적 이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간파하게 되는 자신들의 집단적 위치를 바탕으로 어떻게 정체성을 새롭게 구성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시도들은 어떻게 읽힐 수 있을지를 해석하고자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초국가적 행태를 분석함으로써 이들이 북한과 남한을 동시에 연결하고 있는 초국가적 이주민임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문제 2. 북한이탈주민이 자아표현 전략을 취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며 그 전략들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북한이탈주민은 적대 국가 출신으로 남한 사람과 민족적 동질성을 공유하고 있으나 상이한 정치사회체제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연구문제 2에서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 속의 북한이탈주민이 적응을 위해 어떠한 자아표현 전략을 취할 것인지 살펴볼 것이다.

**연구문제 3. 북한이탈주민은 적응의 전략으로 어떠한 정보추구행위를 하는가?**

연구문제 3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적응을 위해 요구하는 정보들이 무엇이고, 어

떠난 정보원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며,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술할 것이다.

## 제 2절. 연구방법

###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남한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 북한이탈주민이다. 남한 정부는 공식적으로 5년 간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한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의 일원으로서 무리 없이 살아가도록 적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5년으로 정한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 와서 이질감을 느끼고 온갖 시행착오를 경험하지만 4년에서 5년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대체로 한국사회에 정착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원 퇴소 이후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이탈주민은 남한 사람들의 이웃으로 입주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남한 사회를 피부로 느끼게 된다. 그리고 바로 이때가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장 혼란스럽고 정신없는 단계에 속하며, 내·외면적으로 변화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변화 및 그 속에서 일어나는 적응 전략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남한에 장기간 거주한 사람보다 5년 이하의 기간을 가진 사람으로 선정했다. 또한 본 연구는 참여자의 사진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는 초기 남한 거주시기부터 현재까지 휴대폰이나 카메라를 통해 사진을 찍고 저장한 사람이어야만 한다. 물론 인터넷이나 지인을 통해 다운로드한 사진 역시 포함된다. 카카오토티,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참여자 역시 연구에 적합하다.

연구자는 지난 3년 동안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학습 봉사를 해왔다. 이러한 봉사경험을 통해 라포(rapport)가 형성된 북한이탈주민들 중 위의 조건에 적합한 사람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의 혈연·지연 관계에 있는 다른 북한이탈주민들까지 인터뷰 대상으로 확장시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10~20대 청년층 여성들이다. 그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변화하는 유동적인 정체성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사진을 찍고 저장하는 행위에 쉽게 익숙해졌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적응과정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정체성 변화를 직·간접적으로 표현한다. 덧붙여 SNS를 통해 정체성을 증명하고 사교적 연결망의 유동적인 연대 속에서 자아를 공적으로 소개하는 ‘네트워크화’된 자아(김연주, 2014)의 모습을 갖

추기도 한다.

다음은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이름은 모두 가명임을 밝힌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기본 인적 사항

번호	이름	나이	입국연도	고향	현재직업	탈북경로
1	미나	25	2014	함경남도 리원	대입준비	직행
2	보라	27	2013	양강도 대흥단군	대학생	중국거주(9년)
3	수지	24	2011	함경북도 무산	대학생	직행
4	유미	24	2013	함경북도 무산	대입준비	직행
5	지호	28	2012	함경남도 함흥	아르바이트생	직행
6	태희	27	2013	함경북도 무산	대학생	직행
7	혜수	18	2015	함경북도 청진	고등학생	직행
8	환희	20	2015	함경남도 고원	대학생	직행

## 2. 성찰적 사진 인터뷰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변화, 자아표현, 그리고 정보행위를 복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방법이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 인터뷰를 넘어서 성찰적 사진 인터뷰(reflexive photography interview)를 방법론으로 도입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질적 연구로서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 최대한 접근하기 위해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연구현상의 의미를 이해하고 발견하는 형식이다. 계량화하기 어려운 개인의 인식과 경험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에 적합하다. 성찰적 사진 인터뷰는 기존의 언어 중심으로 진행되던 인터뷰 기법에서 더 나아가 사진을 놓고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법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사진을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사진이 정체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자아표현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영준(1998)은 사진이 항상 고도의 선택적인 판단의 결과이며, 그것을 사람들이 좋아하게끔 만드는 그 구조는 바

로 성적, 국가적, 문화적 정체성과 밀접히 연관 된다고 했다. 즉, 사진은 사람들의 정체성에 따라 다르게 어필하며, 거기에는 자신이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정체성의 전략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또한 와이저(Weiser, 1988)는 사진을 촬영하는 사람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자기 자신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만을 사진에 담거나, 반대로 사진에 아예 담지를 않기 때문에 사진을 통해 그 사람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사진은 일상생활을 기록하기 위한 매체뿐만 아니라 자아표현 매체로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사진을 살펴보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 변화, 자아표현, 더 나아가 정보추구행위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하게끔 도와준다.

또한 성찰적 사진 인터뷰는 기존의 미디어·문화연구 분야에서 이루어진 단발성 인터뷰 중심의 질적 연구가 갖는 한계를 성찰적으로 되짚어보고, 언어 중심적 질적 연구 디자인의 외연을 넓히려는 새로운 모색이라는 방법론적 의미도 지닌다(이상규·홍석경, 2014). 사진을 이용한 인터뷰는 언어보다는 이미지에 친숙하고 영상을 통한 소통능력이 높은 연구대상, 혹은 외국인, 이주민, 기타 소외자 등 언어를 통한 공적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많이 이용된다(Banks, 2001; Prosser & Schwartz, 1998; 이상규·홍석경, 2014; 재인용). 이와 같은 사진 설명하기 연구 방법은 (1) 사진에 묘사된 구체적인 사회적 관계나 문화적 형태의 예시들이 좀 더 넓은 범위의 추상적인 것, 일반적인 것에 대한 토론의 근거가 될 수 있고, (2) 희미한 기억에 또렷함과 포커스를 줌으로써 세부적 묘사가 풍부해지며, (3) 인터뷰 대상자가 특정한 장소에 위치 지어져서 연구자에 의해 담달 당하는 어색함이 사진의 존재로 인해 줄어들 수 있고, (4) 직접적인 눈의 마주침 없이 연구자와 인터뷰 대상자가 함께 사진을 향해 집중함으로써 사진이 일종의 중립적인 삼자 역할을 할 수 있으며, (5) 연구자와 인터뷰 대상자 사이에 존재하는 지위의 차이라든지 인터뷰 대상자가 실험 당하고 있다고 느낄 때 벌어질 수 있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사진의 내용이 항상 무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Banks, 2001; 김연주, 2014). 즉, 사진을 이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구조화된 인터뷰 내에서 반응과 기억, 토론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인터뷰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간헐적으로 이루어졌고, 총 8 명의 북한이탈주민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인터뷰 과정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1차 인터뷰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탈북 이전 생애단계별 경험을 구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참여자들의 살아온 삶과 환경을 이해하는 것은 남한 사회 속에서 재구성되는 그들의 정체성 양상과 적응 전략을 분석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 2차 인터뷰에서는 본격적으로 ‘성찰적 사진 인터뷰’를 진행

하였다. 우선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그들의 휴대폰 사진첩과 SNS의 사진들을 연구자에게 공유해주고 설명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동의를 얻은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표 2>의 사진 목록에 맞는 사진을 추가로 준비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사진 목록을 추가로 제시한 이유는 연구 참여자들 중 몇몇은 휴대폰에 보관한 사진들과 SNS에서의 기록들을 삭제하기도 했고, 소극적으로 활동한 사람들도 있어 충분한 연구 결과를 얻는데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진은 각 목록별로 1장 이상 준비할 것을 요청했고, 자신이 직접 찍거나 기존에 찍어둔 사진 중에서 선택하거나,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사진으로 대체해서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인터뷰 전에 미리 사진을 연구자에게 전달할 것을 요청했다. ‘성찰적 사진 인터뷰’를 위해 이상규·홍석경(2014)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표 2> 사진설명하기를 위해 요청한 목록

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li> <li>· 존경하는 사람, 또는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li> </ul>
주변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가족      · 나의 친구들</li> <li>· 나의 집</li> <li>· 남한 사회      · 북한 사회</li> </ul>
개인적 취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가 좋아하는 음식      · 내가 싫어하는 음식</li> <li>· 내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li> <li>· 내가 좋아하는 노래      · 내가 좋아하는 가수</li> <li>· 내가 좋아하는 장소      · 내가 싫어하는 장소</li> <li>· 내가 가장 좋아하는 물건      · 감명 깊게 읽은 책</li> </ul>
개인적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복을 연상시키는 일</li> <li>· 스트레스 혹은 분노를 자아낸 일</li> </ul>
미래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의 꿈</li> <li>· 10년 후 나의 모습</li> </ul>

2차 인터뷰에서는 미리 준비된 사진들을 함께 보면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질문은 사진 자체의 내용, 등장인물, 사진이 찍힌 시점, 왜 그 사진을 선택했고 다른 사진은 선택하지 않았는지 등, 사진 이미지 자체와 그것의 생산 및 선택에 대한 질문을 포함했으며, 그로부터 다른 이야기가 이끌어져 나오는 경우, 해당 주제에 대한 추가 질문을 통해서 면접을 이어갔다. 연구에서 진행된 심층면접은 1:1로 이루어졌고, 동의하에 음성녹음을 하였으며, 이를 녹취하여 자료화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변화, 자아표현, 그리고 정보추구행위를 살펴보고자 했다.

### 제 3절. 연구윤리

이 연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관리 및 보안 계획을 제출하였고 이를 이행한다.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를 가명과 기호로 표기하고 연구 참여자의 연구 참여 사실에 대한 비밀 유지 등의 원칙을 준수한다.



## 제 4장.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변화

북한이탈주민은 자의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자 남한에 온 이주자들이기에 기본적으로 남한문화를 배우고 수용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의 삶을 모두 부정하고 남한 사회에 동화되려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초국가적인 이주민으로서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평행적인 삶을 유지하려한다. 따라서 그들은 남한과 북한의 정체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서로 조화되거나 갈등하는 관계에 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정체성 협상(identity negotiation)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정체성 협상은 어떤 상황에 공통된 이해를 조율해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연하게 타협(김영순 외, 2014)함으로써 갈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문화 간 교류가 활발한 전 지구적 이주 시대에 정체성 협상은 이주국에서의 안정적인 정착과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유동적인 태도로 볼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북한 출신 초국가적 청년이주민’이라는 특성을 유념하여 이들이 남한 사회에서 어떠한 정체성 변화를 겪으며, 그 속에서 어떻게 정체성 협상을 벌이는지 살펴본다.

### 제 1절. 적극적으로 적응하려는 자아

제 1절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 퇴소 이후 남한 사회에 공식적으로 진입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정체성의 변화를 분석한다. 이 시기에 삶의 방식, 가치관, 행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는지 알아본다.

#### 1. ‘탈북’ 경험을 통해 자신감 얻기

앞서 선행연구에서 언급했듯이 북한이탈주민은 다른 이주민 집단과 뚜렷한 차이를 가진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이주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남한에 오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은 목숨을 걸고 국경을 비밀리에 넘어야하므로, 이는 단순한 이주가 아닌 ‘탈출’로 봐야 한다. 그 이유는 북한에서 탈북은 엄중한 처벌과 보복의 대상이고, 탈북과정에서 브로커에 의해 인신매매 및 복송될 위험이 곳곳에 수없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험난한 과정을 겪은 북한이탈주민에게 남한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자 반드시 정착해야 하는 장소로 인식된다.

죽음을 불사하고<sup>13)</sup> 남한에 온 북한이탈주민은 극적인 환경의 변화와 남한 사회 내 정체성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생존자’로서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생존 경험으로부터 얻은 자신감은 젊은 세대일수록 남한 사회와 체제에 적응하기 위한 ‘적극성’으로 전환된다(권나혜, 2006). 생존경험을 통한 자신감이 남한 사회 적응에 있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는 하나원 교육도 한 몫 한다. 하나원에서는 남한 사회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는데, 이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있어 큰 희망이 된다. 또한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사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오는 경우가 많다. 연구 참여자들 중에도 남한에 먼저 정착한 가족이 ‘살기 좋으니 그냥 오라,’ 해서 넘어오기도 하고, 북한에서 비밀리에 본 남한 드라마를 통해 환상이 생겨 탈북 한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항상 내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확실성과의 사투에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사회의 가치에 ‘순응’하며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전략을 취한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만의 독특한 경험인 ‘탈북’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는다.

“탈북 경험은 제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안 해본 특별한 경험을 한 거잖아요. 힘들 때마다 ‘탈북도 했는데 뭔들 못하겠어?’라는 생각을 자주 해요. 열심히 하다보면 여기서 성공할 거라고 믿어요.” (유미, 24세, 2015-12-26)

연구 참여자 유미는 남한에 미리 정착한 엄마가 보내준 브로커와 함께 단 둘이서 두만강을 건넜다. 156cm의 유미에게 두만강의 물살은 너무나 강했고, 결국 유미는 강을 건너다가 발을 헛디뎈 중심을 잃고 떠내려가고 말았다. 다행히 브로커가 의식을 잃은 유미를 잡고 물 밖으로 꺼내 겨우 살 수 있었다. 또한 연길에서 만난 조선족 브로커에 의해 인신매매당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조선족 브로커 집에서 하룻밤 머물 때 유미는 방에서 자는 척 하면서 북한 브로커와 조선족 브로커의 이야기를 엿들었는데, 조선족 브로커가 ‘그냥 농촌에 팔아버리자,’라고 한 말을 듣고 다음 날 새벽에 도망쳤다. 유미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휴대폰을 빌린 후 남한에 있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 상황을 설명했고, 엄마는 2시간 안에 유미가 숨어 있던 건물로 새로운 브로커를 보내주었다.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긴 유미는 처음엔 ‘탈북’ 생각만 해도 진저리났다고 했지만, 남한 사회에 살아가면서 탈

13) 이는 연구 참여자인 유미의 말에서 따온 것이다. 유미는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비장하게 두만강을 건너며,’라는 표현 방식으로 탈북 과정을 설명한다고 했다.

북을 통해 자신감과 자부심을 얻는다고 한다. ‘한 번 죽다 살아났기에 못할 건 없다,’ 라는 마음가짐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강을 건넜는데 브로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옷은 물에 다 젖어서 산을 걷는데 너무 추워서 이가 딱딱 물리고. 그런데 갑자기 중국 군인이 전지를 비추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눈 속에 옅드렸어요. 진짜 추워서 차라리 총 맞고 싶었어요. 그거에 비하면 여기에서 적응하는 건 어려울 거 없어 보여요. 복지사 선생님한테 여기서 정착 못하는 사람 있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왜지?’ 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환희, 20세, 2015-12-19)

연구 참여자 환희 역시 유미처럼 탈북과정에서 위협에 처했었다. 두만강을 건너면 중국 측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겠다는 말과 달리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결국 환희는 온몸이 젖은 채로 눈 덮인 산을 홀로 걸었다. 그러던 와중에 중국 군인이 갑자기 전지를 비추어서 체포당해 북송당할 뻔했다. 아찔한 순간을 넘긴 그녀에게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로 느껴졌다. 사회복지사로부터 남한 사회에 적응을 못해서 자살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소리를 듣자, 환희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반응하였다. 환희에게 남한에서 정착하는 것은 탈북과정에 비하면 특별히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한국에 있는 거지들이 제일 이해 안 돼요. 일하면 살 수 있지 않아요? 한국은 열심히만 하면 잘 살 수 있는 곳인데 왜 빌어먹으면서 거지로 살까라는 생각이 컸어요. 전 거지될 바엔 자살해서 죽고 말겠어요.” (환희, 20세, 2015-12-19)

또한 환희는 남한에서 구걸하고 있는 거지들이 제일 한심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남한은 북한에 비해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기회가 많은 곳 인데, 왜 열심히 일하지 않고 구걸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환희와 비슷한 맥락으로 많은 북한이탈주민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계층 간의 이동이 자유로운’ 남한 사회의 가치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한다. 남한 사회를 기회와 선택이 주어지는 열린사회, 모든 것이 법대로 움직이는 법치국가(장선하, 2008) 등으로 파악하고 남한 사회의 가치에 순응하며 적응을 해나갔다.

## 2. 적응을 위해 변화하기

남한 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의지는 외형적인 변화를 통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사람들의 옷, 헤어스타일, 언어 등을 모방함으로써 남한 사람들과 외형적인 동일화를 추구한다. 이 부분은 <제 5장. 자아표현 전략들>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었다.

또한 빠른 시간 안에 적응을 하겠다는 북한이탈주민의 적극성은 때론 어지럽고 질서 없는 모습을 자아내기도 한다.

“처음에 왔을 땐 마음이 무척 조급했어요. 빨리 정착하고 싶다는 의욕이 강했어요.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느라 잠도 몇 시간 못 잤던 거 같아요. 뭐든지 다 해보고 싶었어요. 실패기도 했지만, 마음이 엄청 바빴어요.” (미나, 25세, 2015-12-20)

미나는 하나원에서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되어 대학교 수시 원서를 준비하는 동시에 아르바이트를 4~5군데 지원했었다. 하루 빨리 남한 사람처럼 생활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감과 초조함 때문이었다. 이는 다른 연구 참여자들에게도 쉽게 관찰 할 수 있었는데, 연구 참여자들은 하나원에서 퇴소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가 가장 의욕적이면서도 도전정신이 강한 때였다고 회고했다. 북한이탈주민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남한 사회의 가치를 몸소 실천함으로써 증명해나가려고 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정착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이유로 북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멀리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사회에 퍼져있는 탈북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스스로를 부정적인 이미지로부터 분리시키는 전략을 추구했다(권나혜, 2006). 이러한 이유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출신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출신지를 거짓으로 대답하곤 했다. 즉 부정적인 사회적 표상에 부합하는 동료 집단과 스스로를 분리하기 위해 ‘거리두기(distancing)’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다(Kusenbach, 2009). 주류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일부러 이주국의 사람들을 사귀고자 하는 이주민의 태도는 익히 기존 이주연구에서 밝혀진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주민들이 민족성이 강조된 자기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를 정보 공유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과 달리 북한이탈주민은 교류하는 것조차 꺼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나원에서 나올 때 다들 연락처 교환하고 그러던데, 저는 안했어요. 뭐, 딱히 친한 사람도 없었지만, 똑같은 처지니까 서로 도움 안 될 거 같더라고요.” (미나, 25세, 2015-12-20)

“처음에 ○○ 고등학교<sup>14)</sup>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남한 사회에) 적응 못한다고 가지 말라고 했어요. 거기 가면 공부 안하고 연애만 한다고요.” (혜수, 18세, 2016-01-17)

“한국 사람들이랑 만나야지 많이 배운다는 게 맞는 말인 거 같아요. 북한 사람들끼리 다니면 거기서 거기에요. 더 많이 알아봤자, 우리에게 대한 복지에 관한 거?” (태희, 27세, 2015-12-20)

공통적으로 위의 세 사람은 남한 사회 적응을 위해 북한 사람들과 의도적으로 멀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남한 사회에 최대한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지, 고향 사람들과 만나서 낯두리하거나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었다. 미나는 현재까지 연락 하고 지내는 하나원 동기가 한 명도 없다. 애초부터 자기와 똑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혜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준에 맞게 교육을 제공해주는 새터민 청소년 대안학교를 뒤로 한 채,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했다. 연구 참여자 태희 역시 북한 사람들과 만나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라 발전이 없다며, 고향 친구들과 자주 연락을 안 했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스스로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으며, 그 양상은 남한 사람과 외형적 동일화와 행동을 모방하고, 의도적으로 고향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남한 사회에 적응하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의 문화와 단절되고 북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볼 수 있는가?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을 이주국과 모국에 연결되어 있는 초국가적 이주민으로 바라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의 문화와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동시에 남한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는 유동적인 정체성을 보여준다.

### 3. 고향문화 이어나가기

교통과 통신매체의 발전으로 이주민들은 모국의 가족들과 소통하기가 쉬워졌으며, 모국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용이해졌다. 문화란 국가나 조직 같은 특정 집단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지배적인 가치관, 행동양식, 신념 등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Malinowski, 1948). 각 집단의 문화는 언어, 주거, 음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초국적 실천이 투자와 송금 형태를 통해 실제로 일어나는 활동만으로 이해될 필요는 없기에 모국의 문화를 실천하는 것은 엄연한 초국가적 행위로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사람을 모방하고 남한화 되려고 고군분투하지만, 여전히 북한의 문화와 가치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모국 문화 실천 방식은 언어, 음식, 음악 같

14) ○○ 고등학교는 대표적인 새터민 청소년 대안학교이다.

은 영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주로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후면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가족들이랑 있을 땐 북한 사투리로 말해요. 엄마랑 이모는 아직도 말투를 못 고치셨어요. 그래서 저도 엄마랑 대화할 땐 그냥 고향에서 해왔던 것처럼 북한 사투리 쓰죠. 그게 편하니까요.” (수지, 24세, 2015-12-22)

수지는 북한 억양을 많이 고친 연구 참여자 중 한명이었지만, 집에서 가족들과 대화할 때는 자신도 모르게 북한 사투리가 나온다고 했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사람들과 같은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억양과 어휘에서 차이를 보인다. 북한 특유의 억양은 남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보여주는 단서로 작동하기 때문에, 많은 북한이탈주민은 사투리를 고치려고 한다. 그러나 가족 혹은 고향사람들끼리 있을 땐 일부러 남한 사람처럼 말하려고 의식할 필요가 없기에 북한말투로 대화를 나눈다. 특히 청년층의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사람들과 있을 경우엔 표준 한국어로 말하려고 하고, 집에서는 북한 사투리를 사용한다. 이는 미국의 1.5세대<sup>15)</sup> 이주민들이 학교나 직장 같은 공간에서는 영어를 사용하는 대신, 집에서는 중국어나 스페인어 등의 모국어로 대화를 나눈다(Kibria, 2000)는 기존의 많은 연구들과 매우 유사하다.

다니코(Danico, 2004)는 1.5세대 한국계 미국인들에 관한 연구에서 1.5세대의 특성을 이중 문화적이고 이중 언어적이라는 것과 함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이들이 세대적 정체성과 인종적 정체성을 전환(switch)할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지적한다. 1세대 한국계 미국인들이 한국에 더 가깝게 느끼는 대신 미국인처럼 통과(pass)되지 못하는 반면, 1.5세대들은 모국에서 태어났으나 미국에서 태어난 것으로 통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2세대들은 이주민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들과 차이점을 가진다. 이슬기(2009)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언어와 문화를 공유한 한민족 간의 이동으로 1.5세대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이주 1.5세대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인종적 정체성을 전환할 수 있다는 특성은 10대~20대 초반에 탈북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연구 참여자들의 다중적인 정체성 구성 방식은 이주 1.5세대, 더 나아가 조기유학생 등이 경험하는 양상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모국 문화실천은 언어 사용뿐만 아니라 음식에서도 확연히 나타

15) 이주 1.5세대는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이주 국가에서 성장한 사람들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중간세대(in-between generation)라고도 불린다. 보통은 10대, 성인기 이전에 이주한 사람들을 1.5세대로 규정하고, 이중 언어 구사와 이중 문화성을 그 특징으로 설명한다(신재영, 1996; Westin, 2003; 이슬기, 2009; 재인용).

난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느끼하고 달다는 이유로 남한 사회의 음식을 좋아하지 않았다. 비록 북한에 있었을 때보다 더 풍부한 식재료를 접할 수 있고, 외식할 곳도 많지만 그들은 고향에서의 식습관을 선호했다.



<그림 1> 미나가 직접 제작한 영상의 일부

“학원에서 만난 고향 언니들이랑 직접 북한 순대를 만들었어요. 제가 여기 와서 진짜 먹고 싶었는데, 여기서 파는 순대랑은 맛이 틀려서 못 찾았거든요. 언니들도 너무 그림다고 해서, 날 잡아서 같이 해서 먹었어요.” (미나, 25세, 2015-12-20)

미나는 학원에서 알게 된 고향 언니들과 함께 북한 순대를 만들었다. 남한에서 파는 순대는 북한순대와 맛이 다르다면서, 결국 직접 만들게 되었다고 했다. 또한 미나는 추억으로 기록하고자 순대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했다. 그러나 평소 대부분의 활동을 SNS에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했지만, 특이하게도 순대 만드는 사진이나 영상은 올리지 않았다. 얼굴도 모르는 카카오톡 친구들에게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내비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습은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미지는 강조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철저하게 은폐하는 고프만(Goffman, 1959)의 ‘인상관리’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 지호의 저녁식사 사진

〈그림 2〉는 지호가 찍은 저녁식사 사진이다. 지호는 시중에 파는 남한 김치 맛이 너무 밍밍해 못 먹겠어서, 직접 김치를 담갔다고 했다. 북한 방식대로 생선을 넣고, 김치 속을 전부 갈아서 만들어야 제 맛이 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호는 다른 건 다 적응해도 음식만큼은 못하겠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외식을 해야 할 때 가끔 청양고추를 따로 싸가서 같이 먹는다고 했다. 그림 속 김치 옆에 있는 계란 음식은 고향에서 어머니가 자주 만들어주신 반찬이다. 계란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해 그 위에 얇게 썬 고추를 얹어 프라이팬에 튀긴 요리이다. 맨 왼쪽은 김치 만둣국인데, 슈퍼에서 파는 냉동만두를 사용했기 때문에 고향 맛이 안 났다며 아쉬워했다.

음식뿐만 아니라 연구 참여자들은 음악과 같은 대중문화에서도 고향 문화를 이어나가고 있었다.

“모란봉악단 음악 좋아해요. 그 음악이 제가 추는 춤이랑 딱 잘 맞아요. 한국 음악은 제 춤이랑 안 맞아요. 또 한국 노래는 시끄럽고, 웅얼거려서 좀 별로인 거 같아요.”  
(환희, 20세, 2015-12-19)

환희는 주로 모란봉악단 음악을 인터넷에서 찾아 듣는다고 했다. 하나원에서 만난 또래 친구들이랑 만나면 집에서 모란봉악단 같은 북한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춤을 춘다고 한다. 그럴 때마다 마치 북한에서 증폭기를 틀고 친구들과 춤췄던 기억이 살아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서 북한의 문화를 실천하는 행위는 ‘북한 사람’으로서의 관습을 유지하려는 시도이자,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으로서의 두 문화에 속해 있음을 뜻한다.



## 제 2절. 적응과정 속 겪게 되는 혼란

제 2절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적응 하는데 있어 겪게 되는 어려움을 논의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서 마주하는 문제점과 한계는 무엇이며, 이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탐구한다.

### 1. 남한 사회 속 한계 직면

‘탈북도 했는데, 뭔들 못하겠어!’ 라는 북한이탈주민의 자신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남한 사회의 현실에 부딪혀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죽을 고비를 극복한 열정이나 도전 정신으로도 뛰어 넘지 못하는 현실의 벽에 마주쳤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남한 사람들과의 소통과 관계 유지에 관한 고충을 공통적으로 털어놓았다. 덧붙여 정병호(2004)는 북한이탈주민이 처음 겪게 되는 아파트 문화는 새로운 이웃과의 소통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하기 때문에 그들이 남한 사람들과의 교류가 담당형사나 자원봉사자 같은 사람들로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영구임대주택 아파트에 거주함으로써 자신이 남한 사회에서 밀바닥 계층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이로 인해 초조함과 절망감마저 느끼게 된다.

“하나원에서 나왔을 때, 컴퓨터 학원 다니고 영어 배우느라 엄청 정신없었어요. 워낙 북한에서의 기억이 안 좋아서 처음엔 생각도 안 났었어요. 근데 점점 엄청 그리워요. 맨날 하늘 보고 고향 친구들 생각해요. 여기서 친구가 없으니까. 외로워서 우울증 오는 줄 알았어요.” (환희, 20세, 2015-12-19)

“하도 옆에서 ‘한국사람 많이 만나야 된다, 그래야 적응 빨리한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회계 학원 다닐 때 저보다 한 살 위 한국 언니를 만났거든요. 살아온 환경이 달라서 그런지 얘기 거리가 많지 않다고 해야 하나. 그러니 멀어지더라고요. 이 사회에 적응하려고 아무리 제가 한국사람 만나는 걸 원하면 뭐해요. 막상 만나면 말할 내용이 없는데.” (태희, 27세, 2015-12-20)

하나원에서 환희와 태희는 남한을 ‘자기가 노력한 만큼 얻는 얻을 수 있는 곳’이라 배웠다. 생존 경험을 통해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환희와 태희는 남한 사회에 완벽하게 적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일부러 하나원 동기 모임에도 나가지 않는 등 고향 사람들과 최대한 거리를 두려고 했다. 환희는 친한 친구가 없어

서 많이 외로웠고, 이로 인해 우울증까지 걸릴 뻔 했다고 털어놓았다. 하루 종일 학원에서 컴퓨터 자격증을 준비하고, 영어를 배우는 등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마음 한 구석이 허한 느낌을 달랠 수 없었다. 남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환희에게 먼저 말 걸어주는 사람도 없어서 주로 홀로 학원에서 시간을 보냈다. 사이가 안 좋았던 고향 친구들마저 현재 환희에게는 그리움의 대상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태희 역시 회계 학원에서 만난 남한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 자기가 먼저 말도 걸었지만, 남한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 나간다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 무엇보다 태희는 남한 사람들과 공통분모가 없어 대화가 끊긴다는 고충을 털어냈다. 남한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외로움은 환희와 태희가 자신들의 의지만으로 쉽게 뛰어넘지 못하는 장애물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아무리 자신들이 열심히 생활해도 남한 사회 경쟁체제에서는 뒤쳐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다. 자신들이 남한 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자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장선하(2008)는 윌리스(Willis, 1978)의 ‘간파(penetration)’와 ‘제약(limitation)’으로 이러한 시각을 이해하고자 했다. 간파란 한 문화적 형태 안에 있으면서 그 구성원들이 처한 삶의 조건과 전체사회 속에서의 그들의 위치를 꿰뚫어보려는 충동을 의미하는데, 어느 면에서 이는 어떤 중심을 가진 것도 아니고, 본질주의적인 것도 아니며 개인주의적인 것도 아니다. 윌리스는 영국의 노동자 계급의 아이들이 자신이 처한 사회적 위치를 간파한다고 보았다. 이는 기존의 자본주의적 질서 하에서 직업교육을 착실히 이수하여 사무직 노동자가 되는 것이 개인을 위한 약간의 보상은 있지만 계급적인 보상은 주어지지 않는 사회현실을 꿰뚫어 보게 된다는 것이다. ‘제약’은 그러한 충동의 충분한 발전과 표출을 혼란시키고 방해하는 이런 저런 장애요소와 이데올로기적 영향을 가리킨다. 북한이탈주민 역시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자본주의적 체제의 모순이나 부당한 지배구조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간파’하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적응을 감내해내는 ‘제약’의 모습을 보인다.

“점점 지내다 보니 제가 부족하니까 사장은 못 될 거 같아요. 잘해봤자 사장 부인 정도? 제가 여기 사람들보다 여러모로 부족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렵죠.” (미나, 25세, 2016-04-02)

연구자가 장래희망을 물어보자 미나는 대뜸 ‘사장’은 못하겠다고 말했다. 부모님께서 북한에서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셔서, 마음만 먹으면 가업을 물려받아 사장

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남한에서 사장이 되려면 학벌뿐만 아니라 돈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연스럽게 사장이라는 직업에서 자신을 배제시켰다. 그리고선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부각하며, ‘사장 부인’은 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림 3〉 ‘나는 누구인가’에 해당되는 미나의 사진

“나는 그냥 모래 같아요. 탁 나가면 밑에 깔린 게 모래잖아요. 모래가 아니라면 자그마한 돌이랄까요?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작은 돌이요.” (미나, 25세, 2016-04-02)

미나는 덧붙여서 사진연구 목록 중 ‘나는 누구인가’에 해당되는 사진으로 모래 위에서 찍은 자신의 모습을 가져왔다.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것이 크게 어렵다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웬지 모르게 자신이 존재감 없는 모래와 돌 같이 느껴진다고 했다.

“처음에는 검사가 되고 싶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도 되기 어려운데 할 수 있겠냐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제 실력으로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로 바꿨어요.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거.” (환희, 20세, 2015-12-19)

환희는 하나원의 정착교육을 통해 검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고, 검사가 되어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는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다. 하나원 퇴소 이후 남한봉사자와 학원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말했더니, 남한 사람들도 되기 힘든 걸 북한이탈주민인

내가 할 수 있겠냐는 식으로 반응했다고 한다. 환희는 제대로 도전하기도 전 북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보이지 않는 현실의 장벽을 마주하고 결국 사회복지사로 꿈을 바꿨다.

“하나원에서는 대학가는 거 엄청 쉽다는 식으로 말해요. ‘너넨 다 받아주니까 서울대 넣어. 직업 어떤 거 하고 싶어? 의사? 변호사?’ 이렇게 말하니까 저희는 막 환상에 부풀려서 딱 나왔는데, 직접 수시 준비해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싶었죠. ‘하나원에서는 다 서울대 간다고 했는데, 나는 왜 못가지?’ 하면서 좌절감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유미, 24세, 2015-1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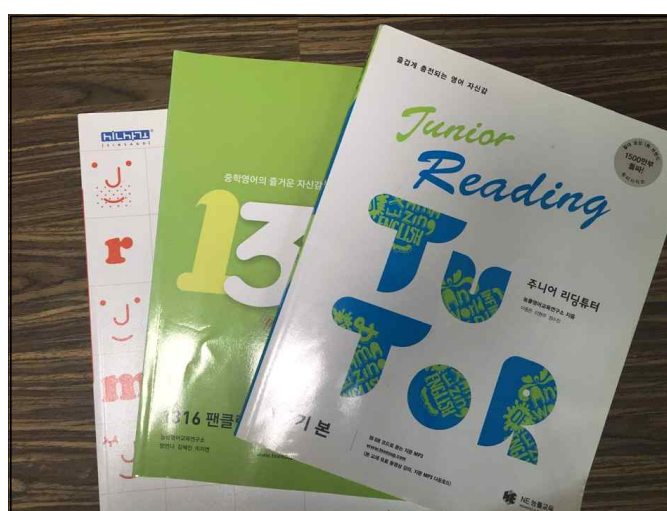
유미에 의하면 하나원에서는 학령기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입시에 있어 일종의 ‘환상’을 심어준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은 특별전형에 활용하여 지원 시 대학 수학능력시험 자격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명문대에 쉽게 진학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다. 비록 특별전형이었지만 지원 시 요구되는 필수서류 및 면접 준비 등에 대한 안내는 부족했다. 실제 유미는 가고 싶은 대학에 영어면접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하여 낙방하고 말았다. 주어진 기회가 있었음에도 명확한 정보와 확실한 전략 없이 입시에 임했다가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 유미는 남한 사회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직접 경험했다고 한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이탈주민은 자신들의 의지만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또한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라는 남한 사회의 가치에 점점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며, 애초부터 남한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남한 사회에서 자신들이 열심히 한 만큼의 보상을 얻기 힘들며, 사회적 혹은 경제적 위치를 상승시키는 것은 실현되기 어려운 일임을 체감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경쟁력의 차이는 교육, 특히 ‘영어’에 의하여 재생산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영어가 정말 어려운거 같아요. 영어를 많이 배우고 싶어서 미국 가서 살고 싶어요. 여가 애들은 어릴 때부터 영어를 배워서 잘하는데 전 그러지 못했으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혜수, 18세, 2016-03-26)

“열심히 준비해서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영어가 문제예요. 아휴. 친구들은 그래도 잘 하는 편인데, 저는 기초가 없으니까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원어민 수업 있는 날에 일부러 학교 안 갈 때도 있거든요. 진짜 이 영어를 좀 해야지 취업도 잘 할 텐데, 너무 어려워요.” (태희, 27세, 2016-04-03)

혜수와 태희가 언급한 대로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영어’다. 북한 사투리를 고치는 것도 버거운 북한이탈주민에게 영어는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장벽이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약 29%<sup>16)</sup>의 북한이탈주민 학생이 영어공부하기 위해 휴학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학과 취업, 승진 등 남한 사회 전반에서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은 영어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남한 사람들에 비해 낮은 수준의 영어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신들이 쉽게 계급 상승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림 4〉 혜수의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사진

이러한 한계에 부딪힌 북한이탈주민들은 ‘눈높이’를 낮춤으로써 자신들의 위치를 간파해나가고 있다. 또한 남한 사회에 무조건 순종하여 편입되기보다 자신들의 남한 정착교육과정에 의문을 가지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복지사 선생님이 취업 패키지 소개해주셔서, 면접 봐서 호텔에 취업하게 됐어요. 호텔 사우나에서 손님들 열쇠 꺼내주고 그런 일이었어요. 처음엔 선생님이 ‘일 먼저 해봐라. 여기 좋은 회사다,’ 라고 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시작했는데, 어우, 다리 아픈 것도 아픈 건데, 보람찬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열쇠만 하루 종일 꺼내주는 데 여기서 뭘 배우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싶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처음엔 다 그렇다, 참아봐라, 남한 사람들도 다 그런 과정 거친다,’ 라고 하시길래 그런가 보다 했지만, 저한테 정말 안 맞는다는 걸 제 스스로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좀 안돼서 그만 뒀어요. 지

16) 자료출처: ‘2014년 북한 이탈주민 실태 조사’, 통일부

금도 잘 그만됐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버텨봐라, 해봐라’ 라고 하는 건 좀 아니다 싶었어요.” (미나, 2015-12-20)

미나는 2015년 5월에 하나원에서의 모든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남한 사회 정착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취업’ 과 ‘학업’ 둘 다에 관심이 있다고 한 그녀의 말에 사회복지사는 바로 미나의 현실적인 조건에 어울릴만한 일을 찾아서 소개했다. 미나는 자신의 적성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8월부터 한 호텔의 사우나에서 일하게 되었다. 미나가 하는 일은 하루 종일 사우나 카운터에 서서 손님들에게 열쇠를 꺼내주는 일이었다. 몸이 고단한 것도 문제였지만, 재미도 없고 무엇보다 보람을 느끼지 못했다. 사회복지사는 조금만 더 참고 적응해보라고 권유했으나, 결국 미나는 한 달 만에 일을 그만두었다. 미나는 결국 취업이 아닌 학업의 길을 선택했다. 그녀는 무조건 자신의 속사정도 모르고 무조건 참고 버텨보라는 식의 적응교육방식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언급했다.

“제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 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취직이 보장된다고 센터에서 말해주니까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닥 만족하지는 않아요.” (수지, 24세, 2015-12-22)

수지는 취직이 잘 된다는 하나센터 선생님의 조언으로 한 사립 대학교 치위생학과로 진학했다. 모든 경쟁적 조건에서 남한 사람보다 뒤처지는 상황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은 가능성 있는 분야로의 취직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때로는 취업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려 없이 진로를 정해주는 남한 사회의 방식은 그들의 불만을 자아내기도 한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은 자신들이 처해진 상황을 뒤집을 수 없기에, 개인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수준정도로만 자신들의 불만을 풀어냈다.

## 2. 전략적인 신분선택

북한이탈주민은 사적인 공간에서는 고향 음식을 먹고 음악을 듣는 등 북한 문화를 꾸준히 지키며 실천해나갔다. 그러나 공적인 공간에서는 ‘북한 출신’이라는 사실을 최대한 숨기려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또한 남한 사람들의 외형을 모방하려고 하며, 북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멀리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남한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이탈주민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북한 출신’이라는 신분이 자신에게 손해뿐만 아니라 이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앞서 선행연구검토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북한이탈주민은 일정 금액의 정착금과 임대아파트를 받아 초기 정착에 들어가며 교육을 위한 학자금과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 등의 각종 정부지원을 5년간 받고 있다. 즉 북한이탈주민은 ‘새터민’이라는 집단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새터민’이라는 이름으로 받는 혜택들을 통하여 다시 이 특정한 집단에 귀속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장선하, 2008).

“교수님한테 제가 먼저 가서 북한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북한에서 와서 잘 모르니까 과제나 시험 볼 때 편의탈까, 그냥 제 사정 좀 봐달라는 식으로요.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하고 난 뒤 웬지 모르게 교수님께서 더 챙겨주시는 거 같고, 과제 점수도 (남한) 친구들에 비해 잘 주시는 거 같아요.” (태희, 27세, 2016-04-03)

평소 북한출신임을 밝히기를 꺼려했던 태희는 대학교에 가서 스스로 자신이 북한에서 왔음을 주변 친구들과 교수님께 말했다.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특수성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이 공부하는 데 있어 뒤떨어질 수도 있으니 감안해달라는 의도였다.

“강남에 유명한 영어학원이 있는데 탈북자는 70% 할인이래요. 한국 애들도 많이 다니고 건물도 6층인가 7층짜리인가 그래요. 처음에 갔더니 직원이 무슨 수업 듣고 싶냐고 물어봐서 ‘북한이탈주민인데요.....’ 라고 조용히 말했더니 잘 안내해주더라고요. 괜히 옆에 사람들 들을까봐 엄청 신경 쓰이긴 했는데, 할인은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를 위한 혜택인데.” (지호, 28세, 2016-03-27)

연구 참여자 지호 역시 평소 태희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6개월 넘게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포차 직원들도 지호가 조선족인 줄 안다. 이처럼 자신의 신분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지호이지만 북한이탈주민의 신분으로 이득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당당히 취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은 상황에 따라 북한 출신이라는 정체성을 전략적으로 감추거나 혹은 드러낸다. 이는 자신들에 관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를 판단한 후 거기에 기초하여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고프만(Goffman, 1959)의 ‘전략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게임을 이끄는 자아’와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 3.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남한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배우고 수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남한 사람 화’ 된다는 것에 내적 갈등을 겪기도 했다. 북한에서 내재화된 가치와 남한 사회에서 새로 습득한 가치가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 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남한물 들었다,’ 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했는데, 개인마다 의미하는 바는 달랐다. 어떤 사람은 남한물이 들었다는 것을 남한 사회에 적응을 잘 한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한 반면, 다른 사람은 남한 사람처럼 이기적이고 물질적으로 변했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였다.

“남한물 든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만큼 남한 사람이랑 비슷해졌다는 거죠. 하나원 동기들 끼리 오랜만에 보면 ‘너 남한 물 다 들었네,’ 그래요. 그 말은 촌스러워 보이지 않고 남한 사람처럼 세련되어 보인다는 거죠.” (환희, 20세, 2016-04-03)

환희는 남한물이 들었다는 건 남한 사람이랑 비슷해졌다는 뜻이므로 고향 친구들과 사이에선 좋은 의미로 통한다고 했다. 더 이상 북한 사람 티가 나지 않고, 남한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잘 꾸미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또한 남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남한 사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남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보이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하나원에서 친하게 지낸 언니가 있는데, 줌 깍지(깍쟁이)같이 변했다고 해야 하나. 밥 먹으러 갔을 때도 따로 계산하자고 해서, 아니 저 언니가 왜 저렇게 정이 없어졌나 싶었죠. 원래 우리는 그냥 여유 있는 사람이 내고 그런데, 여기는 자기가 먹은 것만 내는 문화니까 되게 정 없어 보여요. 근데 그게 여기서 사는 방식이니까 나도 그래야 되나 고민 되요” (지호, 28세, 2016-03-27)

지호는 하나원에서 친하게 지냈던 언니가 남한물이 제대로 들었다면서 남한 사람처럼 깍쟁이같이 행동한다고 했다. 원래 북한에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사거나, 여유 있는 사람이 계산을 하는데 남한 사람들은 몇 천원도 무조건 나눠서 계산하려고 한다며 정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지호는 알고 지내던 고향 사람들이 기존의 태도를 고쳐 남한 사람처럼 개인주의 적으로 행동할 때 화가 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으론 남한 사회에 적응하려면 자신도 기존의 가치관을 고쳐야 하는 건 아닌지



내적 갈등이 생긴다고 했다.

“여기는 자유연애 많이 하잖아요. 북한에서는 한번 사귀 애인이랑 꼭 결혼까지 가야 되구 또 결혼 안할 생각으로 만나는 사람은 좀 드물죠. 옆 시선이나 집안에서 그런 걸 받아주지 않아요. 암튼 여기서 우리 친구들(북한이탈주민)이 이사람 저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그럴 때 특히 어른들이 남한물에 점점 물든다 걱정할 때가 있죠.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나, 2016-04-02)

미나는 남한과 북한의 연애문화가 상이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종종 갈등을 겪는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연애가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은 연애경험이 매우 적다. 그러나 남한에는 사람들이 결혼 제도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연애하는 문화가 자리잡혀있다 보니, 미나는 연애방식에 있어서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다고 말했다. 자유연애를 하고 싶으면서도 내심 가족들의 눈치가 보이고, 또한 남한 방식의 연애는 문란하게 느껴져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사회에 갓 진입했을 땐, 남한 사회의 가치에 동조하고 이를 무조건 습득하고자 했다. 하지만 시간이 점차 흐를수록 북한에서 생활했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많이 다른 남한 사회에서 혼란을 겪기 시작했다. 무조건 남한과 북한, 어느 한쪽의 방식을 따르기 보단 스스로 조율해나가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시켰다.

### 제 3절. 본인 삶의 ‘주인공’ 되기

마지막으로 제 3절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모습을 다룬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행태를 살펴본다. 더 나아가 초국가적 이주민으로서 유동적으로 정체성을 재구성해가는 과정을 분석한다.

#### 1. 능동적이며 주체적인 자아

북한이탈주민은 전체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인 사회에서 살아 왔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 적이 드물고, 또한 선택을 스스로 해본 경험도 적다(윤인진, 2009).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초기적응시기에 하나원 같은 기관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라 행동하곤 했다. 그러나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스스로 중

요시하는 가치들을 견지한 채 능동적이며 주체적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기 시작한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선택들은 때론 현실과는 동떨어지고 이상적이기만 할 때가 있다. 혹은 남한 사람들이 보기엔 답답하고 이해불가능한 의사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그래도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에 의미를 둔다. 보통의 사람들이 그러하듯 그들 역시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라고 단순하게 받아들인다.

[보라의 독서일지에서 발췌한 내용]

내가 <마당을 나온 암탉>을 좋아하는 이유는 ‘자유를 찾다’라는 이미지가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 현실에 비추어 보면 지난 나의 삶도 양계장과 다름없는 삶이었다 (…). 어떻게 보면 사람의 삶도 같다. 양계장 닭처럼 사는 사람, 마당의 암탉처럼 사는 사람, 잎싹처럼 사는 사람.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삶이 있다. 잎싹의 이야기는 단순히 야생 오리를 키운 기이한 암탉 이야기가 아니다. 태어난 것은 운명이지만,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할지는 자신의 몫이다. 지금 나의 삶은 양계장을 나와 마당으로, 마당을 나와 더 넓은 푸른 하늘로 갈 단계인 한국에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나의 목표 그리고 꿈을 이루어 가고 있다. 꿈이 없었던, 아니 꿈이 뭐였는지 모르고 살았던 지나온 삶을 나의 기억으로부터 잊으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지금은 잊으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 건넌 강이 얼마나 깊은지 건너 와서야 알게 되었고, 내가 넘었던 산이 얼마나 높은지 넘어와서야 알게 되었듯이, 지난날들이 없었다면 오늘도 내가 누구인지 잊고 또는 모르고 살았을 것이다.

위 글은 보라가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책을 읽고 독서일지에 작성한 내용에서 일부 발췌한 것이다. 보라는 1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홀로 브로커를 따라 중국 산둥성으로 갔다. 두 사람 몫의 브로커 비용을 구하지 못했던 어머니가 보라 먼저 남한으로 보내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둥성에서 브로커가 밀고로 인해 중국 공안에 잡혔고, 보라는 브로커가 잡히자마자 무작정 도망쳤다. 한참을 걸어 산둥성의 한 농촌에 도착한 뒤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다행히 마을 사람들은 보라를 공안에 신고하지 않았고, 무려 5년이 넘는 시간동안 돌봐주었다. 19살 때 보라는 마을에서 친하게 지냈던 한족 언니를 따라 청도시로 갔고, 남한에 오기 전까지 그 곳에 있는 조선족 식당에서 먹고 자며 약 2년 넘게 일을 하였다. 독서일지에도 썼듯이, 보라는 남한에 오기 전까지는 꿈이 뭐였는지도 모른 채 살아왔다. 공안의 감시를 피해 하루하루 먹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녀는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미래를 계획할 여유조차 없었다. 그러나 자유로운 미래 설계와 꿈의 실현이 가능한 남한의 시민으로 살게 되면서, 자신이 한 인간으로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게 되었다. 주변에서는 간호사나 치위생사 같은 전문직을 추천해주었지만, 중국어 실력이 뛰어난 보라는 무역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는 꿈을 키웠다. 하나원 퇴소 직후 스스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대안학교를 알아보았고, 그 곳에서 검정고시와 대입을 준비했다. 현재는 서울의 한 유명 사립 대학교 중국어학과에 진학해 그 누구보다 활발한 대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나원에서 나왔을 때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회계랑 컴퓨터 자격증 먼저 따라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하도 취직하라고 난리여서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경리 계약직 면접도 한 두 번 보고요. 그런데 저는 진짜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탈북자를 위한 학교 좀 알아봤어요. 강원도에 기숙사 제공해주는 곳이 있다길래, 거기 가서 영어랑 수학 배웠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워낙 없어서 뭐랄까.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1년 정도 다니다가 다시 알아봤어요. 그 동안 저를 보살펴주시고 잘 챙겨주신 선생님들한테는 정말 죄송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죠. 거기에 있으면 좋은 대학 들어가기 힘들 거 같았어요. 경기도에 있는 ○○ 대안학교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대입 추천서도 써주신다 하고, 확실히 체계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으로 끊어서 들어갔어요.” (유미, 24세, 2015-02-16)

유미의 어머니와 외삼촌은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일자리를 구해 가게에 보탬이 되라고 누누이 말했다. 그러나 유미는 보통의 남한 사람들처럼 대학교에 가서 좋아하는 공부를 실컷 하고, 적성에 맞는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싶었다. 하나원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땐 자신보다 미리 남한에 왔던 어머니와 외삼촌의 충고를 받아들여, 회계와 컴퓨터 자격증을 공부했다. 그리고 나서 수원에 있는 조그만 사무실의 경리로 취직했지만, 공부를 하고 싶어 얼마 안 가 그만두었다. 유미는 가족들의 지지 없이 스스로 강원도의 한 대안 학교를 찾아 입학했다. 하지만 그 곳의 학생이 점차 줄어들면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기가 어려워졌고, 유미는 다른 대안학교를 찾아 최근 옮겼다. 대학 입학에 대한 조급함을 누르고 자신의 학습능력을 키우고자 22살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3학년으로 입학했다. 충분히 시간을 두고 기초학력과 사회 상식 등을 충분히 다지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유미는 끊임없이 자신의 진로와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하는 ‘성찰적 자아’의 모습을 가지기 시작했다.

기든스(Giddens, 1991)에 따르면 자아 정체성은 개인의 성찰적 활동 속에서 일상적으로 창조되고 지속되어야 할 어떤 것이다. 또한 자아는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할 ‘성찰적 기획’의 대상이다. 즉 우리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대로의 우리가 아니

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창조해야만 한다. 현대 사회의 개인이 복잡하고 다양한 선택에 직면하여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 자아 정체성을 능동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해야 하는 것처럼 유미와 보라 역시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되어 주체적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자율성이 허락되지 않았던 북한 사회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일이다. 초기 적응시기에 그들은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존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컸다면, 현재 그들은 ‘성찰적 기획’의 대상인 독립적 자아로서 자신 본연의 가치에 집중하고 있다. 그들의 정체성은 남한이라는 사회적인 관계에 의해서 구성되고 재구성되며 다양하고 유동적이며 모순적이고 이질적일 수 있다(박태진, 2010)는 현대적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다.

## 2. 초국가적 이주민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이탈주민은 고향 음식을 먹거나 음악을 듣는 등 일상생활의 문화실천을 통해 모국과의 연계를 이어나갔다. 북한이탈주민은 그들이 본국의 가족과 맺는 관계, 그리고 이주를 실천하는 방식이 경계를 넘는 이주민의 삶, 나아가 초국가적 이주민과 연결시킬 수 있는 지점을 제공한다(장선하, 2008).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과 남한 사이를 연결하는 일련의 사회관계를 만들어내고 이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시간이 흘러 북한에 ‘선’을 놓을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북한이탈주민은 브로커를 통해 고향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송금을 한다. 이주국에 적응한 이주민일수록 모국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한다(Portes *et al.*, 1999a)는 선행 연구처럼, 북한이탈주민 역시 남한 생활에 있어 안정을 찾아갈수록 다양한 초국가적 활동을 보인다. 베르토벵(Vertovec, 2001)은 이러한 송금 행위를 초국가적 이주민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언급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매년 전 세계적으로 600억 이상의 송금이 모국과 이주국 사이에서 일어나며, 이는 특정한 장소와 그룹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송금은 현재 북한이탈주민 사이 내에서도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고향 부모님께 알바해서 모은 돈을 다 보냈어요. 수수료는 한 3~40% 떼요. 엄청 비싸죠. 그래도 고향으로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깐 아까워도 할 수 없죠.” (태희, 27세, 2015-12-20)

태희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서 탈북 의사가 전혀 없기에, 송금만이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를 3~40%나 지불하면서까지 고향에 돈을 보낸다고 한다.

‘2015년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sup>17)</sup>’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 대상자 400명 가운데 64%가 ‘북한으로 송금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대북 송금 경험자 비율은 2012년 47.4%, 2013년 50.5%, 2014년 59%로 점차 늘고 있다. 덧붙여 정병호(2014)는 송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이 국경을 넘나든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은 밀반입 시킨 중국 휴대전화로 북한 내 가족들과 통신을 하기도 하고, 브로커를 보내 사람을 들여보내거나 빼내오고, 심지어는 DVD나 USB로 남한 드라마를 보내기도 한다.

특히 중국을 통해 밀반입된 휴대폰은 북한주민들이 중국이나 남한에 있는 가족 혹은 친구와 접촉하는 유일한 통로이다. 북한에 기근이 극심했던 1990년대부터 북한주민들은 중국에서 몰래 휴대폰을 들여오기 시작했다. 북한의 장사꾼들이 중국에서 음식과 물품을 몰래 들여오려고 이런 휴대폰을 사용했고, 기근을 피해 남한으로 건너온 탈북자들도 북에 남겨둔 가족들에게 중국 전화와 SIM(가입자식별모드)을 보내려 거간꾼들을 고용하기 시작했다. 북한에도 이집트 통신사 오라스콤의 합작회사 고려링크가 있어 현대 휴대폰 가입자가 300만 명을 넘지만, 국제전화는 철저히 금지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 내 가족들과 연락하기 위해 중국 휴대폰을 계속해서 밀반입시키고 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줄지 않는 탈북을 막기 위해 방해전파기를 늘렸고, 이로 인해 최근에는 휴대폰 통화 자체가 대단히 어려워졌다. 이와 함께 불법 영상물 및 휴대폰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당국은 북·중 국경지대에 전파 장벽 및 전파 장애기를 설치하고 독일의 첨단 전파 감지 장비를 도입하는 등 북한 주민의 영상물 시청과 휴대폰 사용 방해를 강화했다. 심지어 국가안전보위부 산하에 주민의 ‘손전화’를 단속하는 전담 조직까지도 신설했다.<sup>18)</sup>

“얼마 전에 진짜 어렵게 아빠랑 통화했어요. 새엄마가 많이 아프시네요. 암이시래요. 그 소리 듣자마자 어찌나 눈물이 나오던지. 아빠는 기죽지 말고 굳세게 살라고 말 해주셨어요. 둘이 전화기 붙잡고 하염없이 울기만 했어요.” (유미, 24세, 2015-12-26)

함경북도 무산 출신인 유미는 어렵게 ‘선을 놓아서’ 고향에 계신 아버지와 통화를 했다. 무산은 중국과 맞닿은 국경지역이기 때문에 중국산 핸드폰을 들고 산에

17) 자료출처: ‘2015년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 북한인권정보센터

18) 기사출처: ‘北주민 유일한 외부통로는 중국서 밀반입한 휴대전화기’, 연합뉴스(2016-03-2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27/0200000000AKR20160327036900009.HTML>

올라가야 남한과 통화가 연결된다고 한다. 통화는 고작 10분 남짓밖에 안되었지만, 유미는 수화기 너머 생생하게 들리는 아버지의 목소리 때문에 마치 아버지가 남한 내 다른 지역에 있는 것처럼 느꼈다고 했다. 유미는 아버지로부터 새어머니의 수술 비용을 보태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렸다. 공식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네트워크는 차단되어있지만, 북한이탈주민은 상상 이상으로 고향의 가족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북한에 있는 어머니의 수술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남한에 있는 딸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보탠다는 일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송금은 북한에 있는 가족을 남한으로 데리고 오는 일에 비하면 그나마 간단한 일로 여겨진다. 북한이탈주민은 평소 돈을 저축한 후 브로커 조직을 통해 북한 가족들을 탈북 시키고 있다. 국내 탈북 브로커 조직은 주로 탈북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조직에 1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에 전국 조직망<sup>19)</sup>을 갖고 있다. 김정은 체제 이후 북·중 지역의 경비가 강화되면서 탈북비용이 급등해 북한 내부에서 탈북하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매달 브로커를 통해 10명의 북한주민이 탈북 한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들 대다수가 남한에 정착한 가족들이 보내준 브로커를 통해 탈북 하였다. 그리고 마치 대를 이어가듯이, 연구 참여자들은 북한에 남아 있는 또 다른 가족들을 남한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가족에게 송금하거나 연락을 하는 등 모국과 상호작용하며 남한에서의 삶을 이어나간다. 북한이탈주민이 만들어가는 사회적 연결망은 대규모 자본의 이동, 어디에서나 환영받는 글로벌 엘리트들의 자유로운 이주로 칭해지는 ‘위로부터의 초국가주의’와는 달리, 사회자본이 빈약한 개인의 생존전략(윤인진, 2012)으로써 행해지는 ‘아래로부터의 초국가주의’의 성격을 가지므로 더욱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은 남북한 분단체제의 가장 엄중한 냉전적 국가보안법을 양쪽으로 어기면서 바로 그 경계를 넘나들면서 발생하는 ‘초문화적 자본’을 기반으로 새로운 ‘초국가적 가족, 공간, 연계망(정병호, 2014)’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 3. 국가 정체성 벗어나기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남한 정착 기간이 길수록 국가 정체성에 얽매이지

19) ‘탈북 브로커 비용 급등, 일반 주민들 기획 탈북 꿈도 못 꺾,’ 노컷뉴스(2016-04-19).  
<http://www.nocutnews.co.kr/news/4581125>

않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국가 정체성은 사회 정체성의 일부로써 한 개인이 국가와 민족이라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을 뜻하며, 국가의 체제가 존속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요소로서 ‘국민적 일체감’, ‘국가 소속감’, 혹은 ‘민족적 주체성’이라고도 표현된다. 국가 정체성은 심리적인 요소로서 국가 체제에 관계없이 개인이 심리적으로 국민의 일원으로서 유대감과 연대 의식 및 자각을 지닐 때에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신을 조국의 일부분으로 동일시하며, 자기 조국에 대한 충성심을 발휘한다(김상일, 2014).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은 북한과 남한, 어느 한 쪽으로 고정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한쪽에 귀속된 정체성이 다른 정체성을 압도하기보단 양쪽의 정체성이 서로 조화하거나 갈등하는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했다. 상황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강조하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출신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다. 초국가적 이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은 매우 유동적이며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에 TV에 탈북자가 나와서 이제 뻗속까지 한국인 다 됐다고 하는 데 좀 이해가 안 됐죠. 뻗속까지 한국인이 다 됐다면 북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없앤 건가, 그게 가능한가 싶었어요. 저는 북한 사람이다, 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은 못 하겠어요. 뭐든지 처음엔 어렵지만, 살다보면 다 적응하잖아요. 제가 미국에 가면 또 그 사회에 적응해서 미국 사람에 가까워지겠죠.” (유미, 24세, 2016-02-16)

유미는 TV 프로그램에 나온 어느 북한이탈주민의 말을 인용하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남한 사람이 다 됐다는 것은 북한 사람으로서 가졌던 습관이나 신념을 상실했다는 건인데, 그건 이미 체화된 것이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신은 남한과 북한의 정체성을 섞어서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모든 사람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존재라며, 만약 미국으로 이민을 갔으면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까지 가졌을 거라고 답했다.



〈그림 5〉 ‘나는 누구인가’에 해당되는 수지의 사진

“처음에는 북한 정체성이 더 확실했죠. 그런데 여기서 사니까 정체성 변화가 생기는 거 같아요. 딱히 한국인 정체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호주에서 1년 정도 살았어요. 이민 생각해서 간 건데, 비자 문제 때문에 다시 돌아와야 했어요. 북한에선 상상도 못했죠. 제가 호주에 살러 간다는 거 자체가. 이리저리 이동하니까 제 자신이 ‘철새’ 같아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속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요. 그래서 호주에서 찍은 이 사진이 ‘철새’인 저를 좀 잘 나타낸다고 생각했어요.” (수지, 24세, 2016-02-27)

위의 연구 참여자들은 초국적 이주민으로서 한 국가에 고정되어 있는 단일 정체성이 아닌 다중적이고 가변적이며 혼종적인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국가정체성이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하게 표현해주지 않음을 보여준다. 북한이탈주민은 과거 두만강을 건너 남한에 왔듯이, 언제든지 기회가 생기면 이주할 수 있는 초국적인 자아로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 제 4절. 소결

이번 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 속에서 겪는 정체성의 변화를 시기별로 분석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은 이주국과 모국을 동시에 이어나가는 초국가적 이주민이다. 따라서 이들은 남한과 북한 모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정체성은 서로 조화되거나 갈등하면서 제 자리를 찾아 간다. 본고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남한 사회에서 어떠한 정체성 변화를 겪으며, 그 속에서 어떻게 정체성을 유연하게 타협함으로써 갈등을 조정해나가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북한이탈주민은 적극적으로 남한사회에 적응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이들은 다른 이주민과 달리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남한에 왔다. 극적인 환경의 변화와 남한 사회 내 정체성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은 험난한 탈북의 생존자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감은 남한사회의 체제에 적응하기 위한 ‘적극성’으로 전환된다(권나혜, 2006).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남한 사회의 가치에 적극적으로 동조함으로써 남한 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게 되는데, 남한 사람과의 외형적인 동일화를 추구하거나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일부러 다른 북한이탈주민과 거리를 둔다.

남한 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적극적으로 남한 사회의 가치에 동조한다고 해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의 문화와 단절되고 북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다. 이들은 언어(북한 사투리), 음식, 음악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의 문화를 이어나가고 있다. 즉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의 문화와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동시에 남한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는 유동적인 정체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탈북도 했는데, 뭔들 못하겠어,’라는 북한이탈주민의 자신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남한 사회의 현실에 부딪히게 된다. 이들은 의지만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남한 사회의 한계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초초함과 절망감마저 느끼게 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정착 초기에는 북한 출신임을 숨기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북한 출신이라는 신분이 자신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정체성을 전략적으로 감추거나 드러낸다. 더 나아가 북한이탈주민은 남한과 북한의 가치관 차이로 인한 내적 갈등을 겪게 된다. 이들은 ‘남한 사람 화’ 된다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님을 인지한다. 또한 북한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던 가치관 혹은 신념이 남한에서의 삶과 충돌을 일으키면서, 북한이탈주민은 그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조율해 나갔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은 스스로 중요시하는 가치들을 견지한 채 능동적이며 주체적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다. 때론 이들의 결정은 현실과 동떨어지고 이상적이지만, 북한이탈주민은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했던 과거와는 달리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에 의미를 둔다. 또한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브로커를 통해 고향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송금을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초국가적 활동을 한다. 베르토벡(Vertovec, 2001)은 송금 행위를 초국가적 이주민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정체성의 변화를 겪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국가 정체성은 북한이탈주민을 완전하게 설명해주지 못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과 남한, 어느 한 쪽에 고정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한쪽에 귀속된 정체성이 다른

정체성을 압도하기보단 양쪽의 정체성이 서로 조화하거나 갈등하는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했다. 북한이탈주민이 초국가적 이주민으로서 매우 유동적이며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제 5장. 자아표현 전략들

자아표현은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를 알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체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북한’ 출신 ‘초국가적’ 그리고 ‘청년층’ 이주민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복합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자아표현에 영향을 준다. 더 나아가 북한이탈주민은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인상관리를 하는 등 전략적인 자아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번 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특수한 존재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자아표현 전략들을 사용하며, 그 전략을 취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탐구해본다.

### 제 1절. 남한 사람처럼 보이기

제 1절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두드러지게 사용하는 ‘남한 사람처럼 보이기’ 자아표현 전략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들을 시도하며, 그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 1. 외형적인 동일화 추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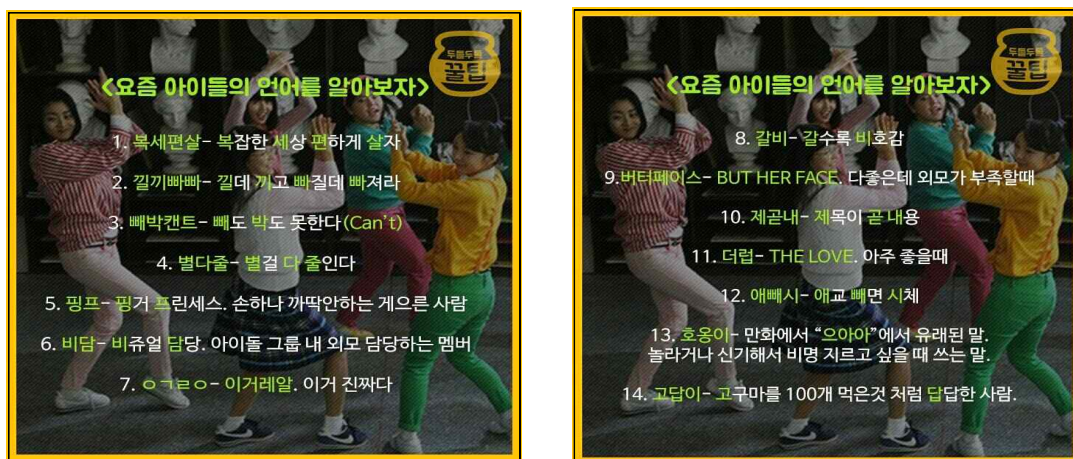
다른 이주민 집단과 달리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사람과 신체적인 모습이 유사하고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이들은 옷차림, 머리 모양, 화장 방식 등에 변화를 주면 남한 사람들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남한 사람과의 외형적인 동일화를 추구한다.

“(연구자) 선생님 목소리 좀 듣고 따라하게 녹음 좀 하면 안 될까요? 얼른 사투리 고치고 싶은데 잘 안되네요.” (지호, 28세, 2015-12-18)

지호는 연구자를 만난 자리에서 연구자의 목소리를 녹음 하고 싶다고 했다.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남한 사람의 발음과 억양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호는 북한 특유의 억양보다 표준 한국어에 가까운 언어를 구사하기 시작했다. 연구자가 이러한 변화를 말해주자 매우 기뻐했다. 지호에게 북한 억양은 반드시 고쳐야만 하는 것으로 주입되어있었다. 이처럼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특유의 발음과 억

양을 고치고자 노력한다. 이들에게 언어교정은 남한 사회에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사실 북한이탈주민의 억양이 남한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 있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남한 내에도 경상도와 전라도 등 다양한 사투리가 통용되듯이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역시 방언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억양을 고치고자 고군분투 하는 모습은 하나원의 교육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하나원의 언어적응 프로그램은 총 1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북한의 억양과 언어는 음성학적으로 ‘거칠며’, 남한 사회의 사람들이 잘 알아듣기 힘들다는 이유로 교정되어야만 한다고 교육받는다. 또한 하나원 교재의 ‘남·북한 언어비교’ 부분에는 남·북한 역사인식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언어의 역할을 ‘혁명의 무기’로 보는 반면에, 남한의 언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대비시키고 있다(장선하, 2008). 하나센터 역시 추가로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발성법, 표준발음, 사투리 교정, 발표기법 등의 교육을 제공할 만큼, 표준 한국어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적응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으로 의미가 부여된다.



〈그림 6〉 (a)~(b) 태희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사실 제가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대학교 들어가니까 걱정이 무척 되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줄임말 많이 쓰잖아요. 가뜰이나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무시할 수도 있는데, 말까지 못 알아들으면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서 미리 공부했어요.” (태희, 27세, 2016-04-03)

북한이탈주민은 비록 다른 이주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언어적 장벽을 경

힘하지만 북한 특유의 억양과 남한에서 자주 사용되는 외래어는 이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언어 장벽을 야기한다. 연구 참여자 태희 역시 북한 억양을 많이 고쳤지만, 여전히 외래어나 각종 은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다. 대학교에 있는 친구들이랑 원활하게 소통하려면 요즘 유행어나 줄임말들 역시 알아야 한다. 따라서 태희는 또래 친구들과 소통하기 위해 <그림 6>의 사진을 직접 찾아 남몰래 공부까지 했다. 이와 달리 친구들 앞에서는 요즘 유행어나 줄임말을 원래부터 잘 아는 식으로 표현했다. 남한 사람처럼 말하려고 공부했다는 걸 말하는 건 왠지 모르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고프만(Goffman, 1971)은 ‘정상적 외모’가 관행적인 상호작용 맥락의 필수적 일부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정상적 외모는 신체적 매너리즘이며, 이에 의해 개인은 ‘정상’ 상황에서 보호고치를 재생산한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사람들과 유사한 정상적 외모를 가지려고 한다. 이는 옷이나 헤어스타일을 통한 ‘외모 관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외모 관리란 타인에게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할 때 자신의 정체성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는 행위이자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타인에게 보여 질 수 있도록 외모를 바꾸는 행동들을 말한다(안서연·김정현, 2016; 재인용). 일차적으로 이것은 신체 자체를 형성, 변형하는 행위에서부터 의복, 장신구, 화장품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외모를 변화시키는 이차원적인 행위들을 포함한다. 외모가 정체성과 맺는 관계는 ‘사람들이 타인들에게 제시하고 그들 자신에 부여된 정체성을 위한 기반’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Stone, 1962; Teitge Weigert & Teitge, 1986; 김정미, 1999; 재인용). 실제로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자에게 화장품과 옷을 어디서 사야하며, 어떤 브랜드가 좋은지 자주 물어보았다. 또한 다양한 헤어스타일의 사진을 연구자에게 보여주면서 어떤 헤어스타일이 최신 유행이고,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연구자가 만났던 중·장년층의 이탈주민 여성이나 청년층의 남성이탈주민에게서는 볼 수 없었기에 청년층의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특징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하나센터에서 제 또래 봉사자를 소개시켜줬어요. 저 보자마자 하는 말이 북한 사람들 정말 내복만 입고 다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또 북한 사람들은 까만 줄 알았는데 저는 정말 하얗다고 그러는데 참 기분 나빴었죠.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무조건 무시해요. 이런 거 때문에 한국 사람들처럼 옷도 입으려고 하고 억양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게 커요. 적어도 옷 때문에 무시는 안 받아야죠.” (유미, 24세, 2015-12-26)

쿨리(Cooley, 1902)의 ‘거울자아’ 이론처럼 남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경험은 북한이탈주민들로 하여금, 새터민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태도를 인식하게 만든다. 남한 사회에는 북한이 위험하고 무서운 곳 보다는 가난하고 못살며 미발전된 곳이라는 인식이 굳어졌다. 문화연구자들은 2000년을 전후해서 북한과 북한 사람들이 탈역사화되고 추상화되면서 이미지와 정서만 남게 되었다고 지적한다(서성희, 2005; 김은형, 2005; 이슬기, 2009; 재인용). 북한 사람들을 순수하고 순박하게 그리면서 오리엔탈리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열등한 타자로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유미 역시 남한 봉사자와의 만남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 사회의 시선을 경험하게 되었다. 유미는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동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항상 자신들보다 여러 면에서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느꼈다. 그렇기 때문에 걸모습에서 북한 출신 티가 나고 행색이 초라하다면 더욱 무시 받을 거라 생각하여 남한 사람들의 꾸미기 방식을 따라 하기 시작했다.

태희도 ‘북한 티’를 벗어나고 싶어서 남한 사람들이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입고, 어떻게 화장하는지 인터넷에서 매일 찾아본다고 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북한 티’를 버리는 게 중요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그러나 이들은 ‘북한 티’가 구체적으로 어떤 스타일이나 행동을 가리키는지 말하진 못했으나, 남한 사람들의 옷과는 다른 고향 특유의 옷 스타일이나 몸짓 등의 단서(cue)로 주관적인 판단을 내리곤 했다.



〈그림 7〉 (a)~(b) 태희가 휴대폰에 저장한 옷 사진들

“한국에서 살려면 여기 사람들만큼 입어야 될 거 같아요. 저랑 같이 온 고향 친구들이 무슨 브랜드, 브랜드 하는데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충격 받았어요. 저 혼자 정착을 잘 못하는 거 같고. 그 때부터 인터넷으로 유행하는 옷이나 스타일 같은 거 살펴봐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는 샤넬이에요. 그냥 여기 사람들 다 샤넬 들고 다니잖아요, 일반적인 브랜드라서 좀 편한 느낌도 들고요. 제 립스틱도 샤넬이에요.” (태희, 27세, 2015-12-20)

태희는 남한 사람들과의 비슷한 외모가 낯선 환경에서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보호막으로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스타일의 옷이 유행인지 살펴보곤 했다. 그녀의 휴대폰 사진첩에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옷과 가방 사진들이 수두룩했다. 태희는 고향에서 불법 CD를 통해 남한 드라마를 보면서 남한 사람들의 옷차림이 북한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막상 남한 사회에 오니 자신이 예전에 드라마에서 본 출연자의 옷차림하고 현재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유행을 파악하고 이를 따라가고자 했다.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뿐만 아니라 SNS에서 도매가격으로 옷을 파는 사람들을 친구로 등록해 놓고 있었다. 태희가 연구자에게 보여준 대부분의 판매자들은 소위 짝퉁으로 불리는 이미테이션 상품들을 팔고 있었다. 그러나 태희에게 상품의 진품 여부는 크게 의미 있어 보이지 않았다. 태희는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기 보단 사람들이 많이 들고 다니는 특정 브랜드의 상품을 사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일부로 속해지고 싶어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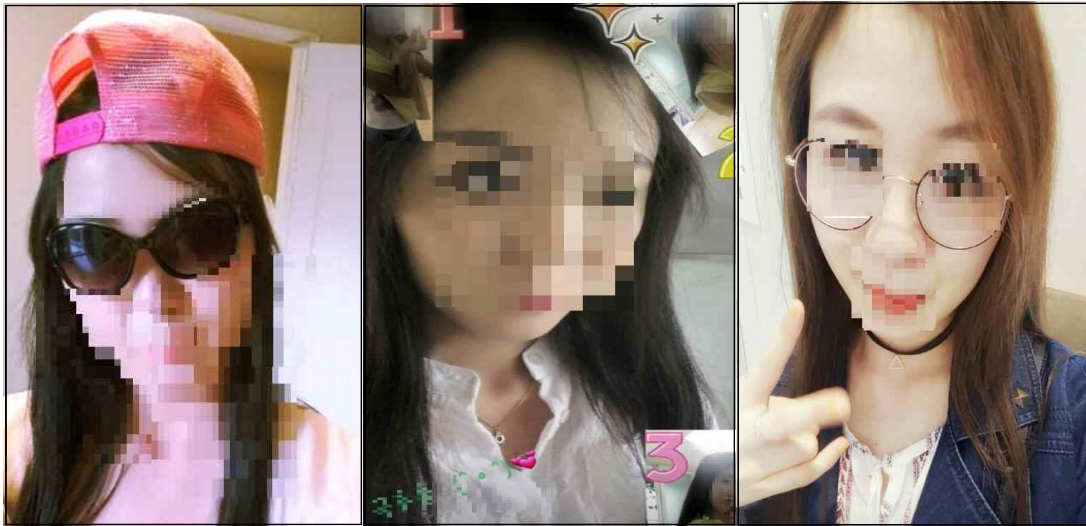
미나는 외모관리를 통해 가장 빠르게 외형적 변화를 한 연구 참여자이다. 미나의 정착도우미<sup>20)</sup>였던 연구자는 그녀가 하나원에서 퇴소한 날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 당시 미나의 모습은 검정색 긴 생머리에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으며, 하나원에서 나눠준 하얀색 블라우스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연구자는 미나를 한 달 간격으로 만나면서 그녀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다. 미나는 머리를 갈색으로 염색했고, 아이라이너를 그리거나 머리색에 맞춰 눈썹도 갈색으로 칠했다. 또한 한창 유행했던 초커 목걸이와 큰 안경을 착용하는 등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외적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변화는 그녀가 SNS에 올린 셀피(Selfie)<sup>21)</sup>를 통해서도 분석이 가능했다. 흥미롭게도 미나의 외모가 변화하듯이, 셀피를 찍는 방법 역시 달라졌다. 셀피

20) ‘정착도우미’는 북한이탈주민의 하나원 생활이 끝난 후 각 지역에서 정착하기까지 약 두 달간 가정방문, 전화상담, 생활 및 교통안내, 지역사회 안내, 진학 및 취업안내를 지원하는 ‘가까운 남한 이웃’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자료출처: 남북하나재단, [www.koreahana.or.kr](http://www.koreahana.or.kr)

21) 셀피촬영 혹은 셀피(Selfie)는 2013년 옥스퍼드 사전에 올해의 단어로 선정되었으며, 스스로의 사진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에 올리는 행동을 뜻한다. 출처: <http://www.oxforddictionaries.com/definition/english/selfie>



는 대표적인 온라인상의 자기표현 방법이고, 사실적인 자기표현이라고 여겨지지만 보정작업과 각도조정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변형하여 표현이 가능하다(안서연·김정현, 2016).



<그림 8> (a)~(c) 미나의 셀피(selfie)들

북한에서 미나는 오빠가 군대에 입대하거나 가족행사가 있을 때 사진관에 가서 두세 번 사진을 찍은 것 이외엔 카메라를 접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남한에 와서 카메라가 달린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면서, 일상에서 사진을 찍는 것이 무척 용이해졌으며 어느 순간부터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특히 셀피를 찍고 누군가와 공유하는 행위는 북한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문화였다. 미나는 자신의 셀피에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준 것을 보면 묘한 감정을 느낀다고 한다. ‘예쁘다,’ 라는 말 한마디가 그녀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가치를 알아주는 것 같다고 했다. 미나는 하나원에서 나온 지 약 2주도 안 돼 <그림 8>의 (a)를 찍었다. (a)는 그녀가 처음으로 SNS에 올린 셀피이기도 하다. 미나는 연구자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박장대소 했다.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모자를 이렇게 뒤로 쓰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선생님(연구자)이 오셨을 때 선글라스 쓰고 오셨잖아요. 예뻐 보여서 엄마랑 명동 가서 샀어요. 나름 한껏 멋을 부리고 사진을 찍은 거죠. 여기 사람들은 이렇게 꾸미는 줄 알고요. 그런데 하나도 예쁘지 않아요. 오히려 무섭네요.” (미나, 25세, 2016-04-02)

미나의 말에 따르면 (a) 사진에 나온 그녀의 모습은 남한 사람처럼 보이고자 의



도적으로 연출한 것이었다. 그녀는 남한 사람들이 평소에 선글라스를 자주 착용하고, 모자를 거꾸로 쓰거나 옆으로 돌려쓰는 모습을 발견했다. 미나는 이러한 연출 행위가 남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멋’을 표현해준다고 생각해 이 차림으로 사진을 찍었다. 이 사진을 찍은 뒤 1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동안 미나의 시각은 많이 변해 있었다. 스스로 만족해서 올린 (a) 사진을 보고 무섭게 생겼다면 철이 없었던 때라 말했다. 시간이 흐른 만큼 미나가 생각하는 ‘멋’의 기준들도 바뀌었으며, 당연히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 등에 있어서도 기존의 모습과 다르게 변화를 주었다.

<그림 8>의 (b)는 하나원에서 나온 지 3달 정도 되었을 때 찍은 것이다. (b)는 (a)와 확연한 차이점이 있다. 선글라스와 모자를 착용하지 않고 화장을 했다는 것도 있지만, 사진을 꾸미고 표현하는 방식이 매우 다르다. 미나는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사진을 현란하게 편집하였다. 네 가지의 각기 다른 사진을 하나의 사진으로 합쳤으며, 별과 하트 모양의 스티커를 붙였다. 세 개의 조그만 사진에는 그 당시 유행했던 손가락으로 하트를 만들거나, 얼굴 한 쪽을 가리는 포즈를 취했다. 미나는 친구들의 SNS에서 특이하게 편집된 사진들을 많이 보았고, 친구들에게 직접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았다고 한다. 이렇게 사진을 연출한 이유는 SNS 친구들에게 자신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 주고 싶었고, 친구들이 자신을 기억해줘서 댓글도 달아주고 ‘좋아요’ 버튼도 많이 눌러주길 원했기 때문이다. SNS 친구들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의 호응은 미나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힘이 되어주었다.

(c) 사진은 비교적 최근에 찍은 사진(하나원 퇴소 11개월 후)이다. 미나는 ‘얼굴 모양 자체는 그대로 놔두고, 살결만 바뀌게 하는’ 방법으로 셀피를 찍었다. 인위적으로 얼굴을 작게 하고 눈을 크게 만드는 것은 자신감 없는 사람들만 하는 거라면서 피부만 하얗게 한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남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셀피를 찍고 연출한 것이었다면, 요즘에는 자기만족과 기록의 용도로 셀피를 SNS에 올린다고 한다. 이러한 미나의 자아표현 방식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모습보다는 젊은 남한 사람의 모습과 더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엄마랑 삼촌은 딱히 말투를 고치려고 하진 않아요. 밖에서 저한테 북한말로 말 걸 때마다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요.” (유미, 24세, 2016-02-16)

“엄마는 뭐 그냥 북한 사람이죠. 언어도 생생하게 살아있고, 그냥 북한티가 확 나거든요. 좀 촌스럽다고 해야 하나. 남한 아줌마들이랑은 확실히 달라요.” (보라, 27세,

유미와 보라는 남한 사회에 적응이 어느 정도 되었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8~90% 정도 적응을 했으며 남한 사람과의 외형적 차이는 점차 줄어드는 게 느껴진다고 했다. 그러나 그들보다 더 일찍 남한에 정착한 부모님에 대해서 물어봤을 땐 북한 사람에 가깝다고 대답했다. 유미와 보라는 언어와 옷차림으로 적응여부를 평가했다. 청년층의 연구 참여자들은 중·장년층의 북한이탈주민보다 학교나 학원 같은 기관을 통해 남한 사람들과 접할 기회가 더 많다. 따라서 남한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들과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이러한 간극을 줄이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은 남한 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표준 한국어를 사용하고 남한 사람과 비슷한 옷을 입으려고 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의 부모세대는 일상에서 남한 사람들과 대면할 일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들은 휴대폰 생산라인에서 부품을 조립하거나 공장에서 재봉 일을 하는데, 대다수의 직장 동료들이 같은 북한 출신이거나 동남아시아에서 온 이주 노동자이다. 따라서 그들은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고향동료와 북한 사투리를 사용해서 대화를 나누고, 집에서 고향 반찬을 싸와서 같이 나눠먹기도 한다. 또한 근무시간 이외에도 가족들 혹은 하나원 동기들과 교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한 사람을 만날 기회가 드물다. 반면 청년층의 연구 참여자들은 남한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빈번하므로 필연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자아’로서의 생존 전략을 추구한다.

## 2. 행동 따라하기

북한이탈주민은 단순히 남한 사람들의 옷차림과 언어만 관찰하고, 이를 모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남한 사람들이 어떤 식의 대인 관계를 형성하고,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지까지 살펴본다. 북한이탈주민은 완벽한 ‘적응’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남한 사람들의 사소한 태도와 행동까지도 배우고 싶어 한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원에서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스스로 ‘눈치껏’ 터득할 수밖에 없다.



〈그림 9〉 (a)~(b) 미나가 SNS에 올린 게시물

“제가 여기 와서 영화 보니까요, 미국 사람들은 다 돌아가면서 인사해요. 한국 사람들도 그런 거 같고요. 여자하고 남자 구분 없이 다 같이 친구로 대하는 모습이 좋았어요. 나도 사람이고, 그 사람도 사람이다. 뭐 이런 거? 고향에 있었을 때는 내가 만나야만 하는 친구들만 딱 만나고, 다른 사람들이랑은 말도 안하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확실히 많이 달라진 거 같아요. 만남 속에서 배우고, 나쁜 점은 찾아서 배우는 과정을 거치는 거 같아요. 저도 그래야겠어요.” (미나, 25세, 2015-12-20)

미나는 고향에서 내성적으로 행동했던 것과 달리 남한에서는 자신의 대인관계를 보다 넓혀 나가고 싶어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극적인 행동을 고쳐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미나는 자신의 결심을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 하듯이, 〈그림 9〉의 사진을 발견하자마자 자신의 카카오톡스토리에 올렸다. 그걸로 부족했던지 ‘남의 것을 보려면 자기의 것도 보여줘야 된다,’ 라는 다짐의 문구를 연달아 적었다.

“고향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제가 직설적으로 말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여기서도 직설적으로 말하니까, (남한 사람)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아, 여기는 좀 돌려서 말해야 되는구나 생각이 들었죠.” (보라, 27세, 2016-01-29)

보라 또한 미나처럼 스스로 남한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거나, 직접 겪은 일을 바탕으로 자신의 태도 중 일부분을 개선시키려 했다. 탈북 이전 보라는 상대방에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버릇이 있었다. 본인 스스로는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고 솔직하게 말한다고 생각해 전혀 개의치 않아했다. 그러나 남한 사람들이 자신의 직설적인 말투를 싫어한다는 것을 눈치를 챈 후, 바로 행동을 고쳤다. 그 어떤 사람도 말투를

고치라고 한 적은 없었으나, 상대방의 표정과 반응에서 눈치 챘다고 했다. 보라는 두세 번 비슷한 일을 겪고 나서야 자신의 태도가 남한 사람들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남한 사람들처럼 아무리 불쾌해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 보다는 숨겨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3. 북한출신 감추기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전략은 바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신분을 감추는 것이다. 사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가 부과하고 있는 갖가지 부담을 견디며 스스로 북한출신임을 밝히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탈주민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한 채 공적 삶과 사적 삶이 분리된 이중 구조 속에서 살아간다(신난희, 2010). 일상생활에서 받는 차별적인 대우를 피하고, 불이익을 막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거짓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전략은 고프만의 인상관리 기술 중 공연자가 사실을 다른 모습으로 표현하는 ‘허위표현(Misrepresentation)’에 속한다.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자 하는 이유는 북한에 대한 남한 사회의 인식에서 기인한다. 대부분의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을 북한이라는 국가적 맥락 안에서 떠올린다. 우리나라의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북한정권을 찬양하고, 군사도발에 가담하며, 미사일로 평화를 위협하는 적대적 이미지로 북한 사람을 바라본다. 또한 남한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해 북한주민의 심각한 식량난 실태를 접하고, 북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대다수 사람들은 미디어에서 심어준 이미지만 기억하게 된다. 따라서 남한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은 한민족이라는 인식보다 가난하고 궁핍한 경제 난민이며 무지하다는 선입견이 팽배하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사회에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사회 인식을 경험하게 되고, 북한 출신을 숨기는 것이 정착에 있어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처음엔 북한에서 왔다고 밝혔거든요. 그 때 ‘이거 먹어봤어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북한에도 남한에 있는 야채 다 있거든요. ‘고구마 먹어봤어요? 부추 먹어봤어요?’ 뭐 같이 먹을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는데, 짜증나서 ‘우리는 그런 건 토끼만 먹어요,’ 라고 말해버렸어요. 이젠 북한에서 왔다고 말 안 해요.” (지호, 28세, 2015-12-18)

원래 지호는 사람들에게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신분을 먼저 밝혔다. 워낙 북한사투

리가 강했기 때문에, 애초부터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감추려하지 않았다. 지호를 만난 남한 사람들은 북한에 대한 호기심을 드러내며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처음엔 지호도 친절하게 대답했지만, 점점 질문의 내용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했다. 고구마나 부추 같은 채소를 먹어봤냐고 물어봐서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북한 사람들은 나무껍질과 강냉이 죽만 먹지 않느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북한에 살았다는 이유로 자신을 무시하는 남한 사람들의 태도를 인지한 뒤로, 지호는 조선족 혹은 강원도 출신으로 자신의 신분을 허위로 말했다.

이처럼 남한 사회에서 겪은 차별과 편견은 북한이탈주민들로 하여금 북한출신이라는 신분을 숨기게 한다. 또한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이 북한이탈주민 사이에서 ‘북에서 왔다고 하면 따돌림 당한다더라,’ 등의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은 애초부터 자신을 감춰야만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다.

“저는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사투리 많이 고쳤어요. 뭐, 고향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땐 ‘우야 그랬다, 우정 그랬다,’ 이런 사투리가 튀어 나올 때도 있는데, 어쨌거나 다른 사람에 비하면 억양이 많이 안 남아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너는 고향이 어디야? 집이 어디야?’ 라고 물으면 웬지 모르게 긴장되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대구에서 왔다고 해요. 친언니가 제가 여기 넘어오기 전에 대구에서 좀 살아서 대구 사투리를 좀 쓰거든요. 저도 언니랑 대화하면서 가끔 따라 쓰는 거 같아서, 그냥 아예 대구라 말해요. 웬지 강원도라고 말하면 탈북자인거 눈치 챌 수 있잖아요.” (태희, 27세, 2015-12-20)

태희는 고향 친구들과 말할 땐 자기도 모르게 북한 사투리와 억양이 저절로 튀어 나온다고 했다. 또한 고향에서 있었던 이야기도 많이 하고, 만두도 빚어먹는 등 친구들과 함께 고향의 기억을 이어나갔다. 그렇지만 남한 사람들과 있을 때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단서를 철저히 숨겼다. 사실 연구 참여자들 중 태희는 북한 사투리와 억양을 가장 많이 고친 사람이었다. 그녀는 세련된 남한 여대생처럼 옷을 입었고, 남한 사람들 앞에선 북한 특유의 억세고 강한 말투가 아닌 상냥하고 조곤조곤한 어투를 구사했다. 하지만 태희는 여전히 출신지에 대한 질문을 들으면 식은땀이 날 정도로 긴장을 한다. 비록 어쩔 수 없이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교 교수님과 친구들에게 신분을 밝혔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출신을 밝히고 싶어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본 사람들에게 대구 출신이라고 거짓말했다. 괜히 강원도 출신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북한 출신임을 눈치 챌 거 같아 애초부터 의심의 여지를 차단시키는 것이다.

“지금 일하고 있는 편의점 사장님한테 북한에서 왔다고 말 안 했어요. 먼저 묻지도 않으시고요. 제가 사투리가 좀 남아 있으니까, 조선족인 줄 아시는 거 같아요. 차라리 조선족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낫죠.” (유미, 24세, 2016-02-16)

유미는 현재 일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면접을 볼 때 자신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하면 괜히 부정적인 선입견으로 면접에서 떨어뜨릴 거 같았기 때문이다. 유미의 사투리를 감지한 사장님은 당연히 조선족으로 생각한 듯 옆에 호텔이 있어서 중국 손님들이 많이 온다고 말을 걸었다고 한다. 또한 유미는 조선족이 아닌 북한이탈주민이라고 정정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손해일 거라 판단하고 특별히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다. 평소 유미는 조선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연구자는 그녀의 말을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유미는 탈북 과정에서 자신을 인신매매하려는 조선족 브로커로부터 탈출한 적이 있어 조선족을 매우 싫어했다. 그녀의 말에 의하면 조선족은 ‘같은 민족이라 할 수 있는 북한 사람들을 팔아먹는 간사한 집단’이었다. 그랬던 유미는 남한에서 자신을 감추고자 본인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조선족 신분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선족이 북한이탈주민보다 남한 사회에서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조선족으로 나타내는 것이 남한 사회 정착에 있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와 반대로 북한에서 왔다고 먼저 솔직하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위의 관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밝히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부터 밝혀야겠다는 생각을 한 사람들도 있다. 고프만(Goffman, 1959)에 따르면 자아의 모습에는 연기를 통해 타인에게 자신이 추구하는 인상을 형성하고자 하는 배역으로서의 자아 뿐 아니라 연기를 수행하면서도 자신이 경험한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자 하는 공연자로서의 자아 역시 존재하는데, 솔직하게 말하는 전략은 후자에 속한다. 먼저 정체성을 밝히는 참여자의 경우 마음이 편해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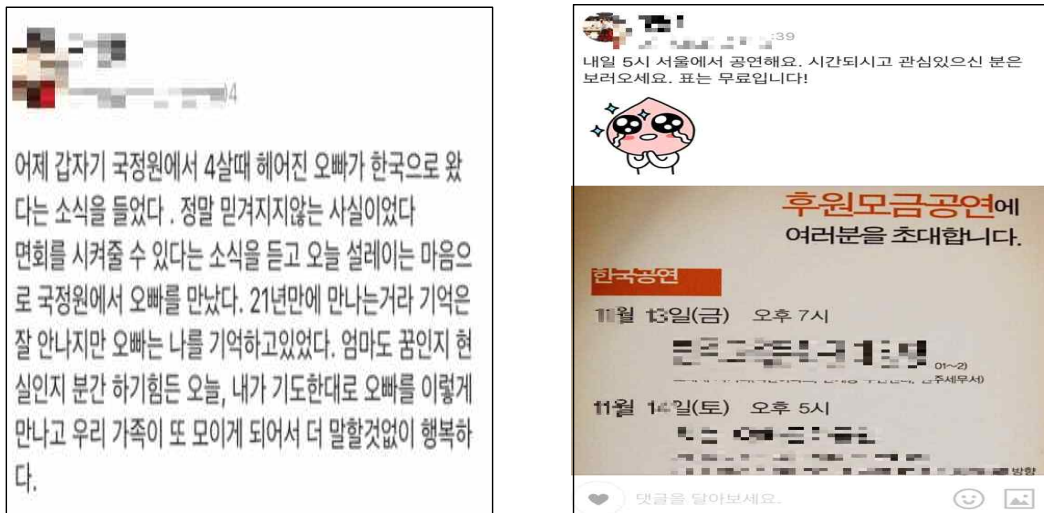
“학교에서 자기소개 할 때 ‘나 북한에서 왔어. 그래서 모르는 거 많아. 많이 도와줘,’ 라고 말했어요. 어차피 말투 때문에 숨기는 게 불가능하니까, 아예 솔직하게 말한 거죠.” (혜수, 18세, 2016-01-17)

혜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자신의 출신을 먼저 밝힌다고 했다. 북한 억양이 남아있는 혜수를 보고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릴까봐 미리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다. 또한 남한에 온지 얼마 안 돼 여러모로 부족한 자신을 이해해주고 도와달라는 부탁도 했다.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제가 먼저 북한에서 왔다고 말하는 편이에요. 숨겨봤자 들통날 거 제가 당당하게 말하는 게 낫죠. 그리고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니까 숨길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저는 일부러 한국 말투로 이야기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괜히 신경 써서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제 스스로 이상한 걸 느끼거든요. 그냥 뭐든지 자연스럽게 하려고 해요.” (보라, 27세, 2016-01-29)

혜수와 마찬가지로 보라 역시 신분을 숨기는 것보다 드러내는 것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 일부로 남한 사람인 척 하면서 타인을 속이는 행동이 오히려 더 불편하고 어렵게만 느꼈다. 또한 보라는 이데올로기 차이와 경제 수준의 격차 등을 배제한 채, 북한을 남한처럼 ‘사람 사는 똑같은 동네’로 동일하게 인식한다. 그래서 북한 출신임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굳이 숨길 이유를 느끼지 못한다.



<그림 10> (a)~(b) 보라가 SNS에 올린 게시물

다른 연구 참여자들과 달리 보라는 솔직하게 신분을 밝히는 자세가 오히려 남한 사회에 정착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답했다. 다른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해나감으로써 주체적인 행위자로 자리잡아갔다. 보라는 자신의 SNS에도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겪었던 경험과 추억을 기록했다. <그림 10>의 (a)는 어렸을 때 북한에서 헤어진 친오빠를 국정원의 도움을 통해 남한에서 만나게

된 날 올린 게시물이다. (b)는 보라가 수학했던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에서 주최한 후원공연을 홍보하는 포스터이다. 이처럼 보라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구별하지 않고, 어느 상황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과감하게 드러내었다.

그러나 보라처럼 행동한 사람은 극히 드물었으며,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 제 2절. ‘자아(Self)’ 강조하기

제 2절에서는 자아표현의 또 다른 전략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의 개인성을 강조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시도들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이 강조하는 특성은 무엇이며, 또한 SNS를 자주 이용하는 청년층에게 SNS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개인성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 1. 동일 집단 내 거리두기

북한이탈주민은 집단 내에서 직업의 유무, 출신지역, 탈북동기, 도덕성과 같은 기준으로 다른 북한이탈주민과 자신을 구별 지었다. 특히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고향에서의 출신성분과 경제적 위치를 중심으로 다른 북한이탈주민과 자신의 차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원래 북한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해요. 저희 동네에서도 평양 가 본 사람이 손에 꼽히는데. 저는 평양 자주 갔어요. 평양에 가면 옥류관 거리 쪽에 다양한 나라 음식을 파는데, 거기서 피자랑 파스타 많이 먹었어요. 태국에서 국정원 사람이 심사하는데 왜 탈북 했냐고 물어봐서 ‘자유’를 찾아서 왔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네가 자유가 뭔지 아냐. 자유를 경험해보지도 않고 자유, 자유 하는데 어이가 없다, 돈 벌러 왔지?’ 라고 소리를 뿜 지르는 거예요. 진짜 화가 났어요. 전 진짜 자유를 찾아서 온 거거든요. 고향에서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제가 뭐가 아쉬워서 아빠 두고 오겠어요. 다른 탈북자들이랑 똑같은 취급 하는 거잖아요. 나 참, 황당해서.” (유미, 24세, 2015-12-26)





〈그림 11〉 (a)~(b) 유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사진

유미는 격양된 목소리로 국정원 심사에서 겪은 일을 설명했다. 자신은 정말 자유를 찾아서 남한에 온 건데, 개인적인 사정은 살펴보지도 않고 무조건 북한에서 왔다고 돈 때문에 탈북 했다는 취급을 해서 매우 기분이 상했다고 했다. 또한 유미는 사진설명하기를 위해 요청한 목록 중 ‘좋아하는 음식’에 관한 사진으로 〈그림 11〉의 파스타와 피자를 보여주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북한에도 서양 음식들이 있고, 자기 가족과 같은 일부 특권층만 평양에서 먹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과 동등한 취급받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

“제가 위에서 왔다고 하니까 한국 애들이 ‘너 밥 먹고는 살았어?’ 라고 물어봐서 충격 받았거든요. 나름 고향에서 제일 잘 사는 집 딸이었는데. 그냥 위에서 왔다고 하니까 다들 제가 엄청 가난한 줄 알고. 그런 인식이 너무 싫었어요. 다른 집은 전기가 2시간 밖에 안 들어오는데, 저희 집은 20시간 들어왔거든요. 한국 TV에서 북한 사람들이 굶고 사는 거 많이 보여줘서 그런 거 봐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전 아니에요.” (혜수, 18세, 2016-01-17)

함경북도 청진 출신인 혜수는 고향에서의 삶이 풍족했다고 말한다. 아버지는 안전부원이었고, 어머니는 큰 식당을 하셨다. 혜수는 성악을 공부했고, 훗날 악단에 들어가 유명한 성악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웠다. 예쁘장한 외모 때문에 외국인같이 생겼다는 말도 종종 들었다고 했다. 고향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아왔던 혜수에게 남한 친구들은 당연하듯이 밥 먹고는 살았냐고 물어 보았다. 북한에서 왔다고 자신을 남한 사람들의 인식에 박혀있는 ‘일반적인 북한이탈주민’으로 취급하는 건 그녀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일이었다.



〈그림 12〉 혜수의 고향집과 비슷한 건물

인터뷰 도중 혜수는 갑자기 연구자에게 북한에서 거주했던 집과 비슷한 건물의 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아 보여주었다. 자신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보이고 싶었기 때문이다.

**혜수:** 저희 시에 이런 아파트가 딱 한 개 있었는데, 제가 거기 살았거든요.

**연구자:** 북한에서 아파트는 부자들만 사는 곳 아닌가요?

**혜수:** 맞아요. 방은 2개 있고, 화장실은 샤워기랑 변기만 있어요. 부엌에 내려가서 나무로 때는 건데요, 바닥을 딱딱하게 해요. 여기 TV에서 북한 사람들 나무 팬다고 보여주는 건 맞는 말이에요. 저도 아파트 살았지만 많이 봤어요. (혜수, 18세, 2016-01-17)

고향에서의 삶이 어땠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미나는 단호하게 자신은 ‘못 먹어서’ 탈북하지 않았다고 했다.

“저희 고장에서 손에 꼽히게 잘 살았어요. 엄마는 대학에서 러시아어 전공했고, 아빠는 시인이었어요. 저도 손퐁금 했고. 거기는 집안이 좋아야 약기 다룰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다 저희 부러워하고 우러러 봤다고 해야 하나. 저는 뭐 못 먹어서 여기 넘어온 게 아니죠.” (미나, 25세, 2015-12-20)

고향에서 마을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받으며 살았고, 본인 역시 특권층의 상징인 약기를 다루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삶을 포기하고 남한에 온 이유는 더 넓은 세상 속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였다고 말한다.

유미와 혜수, 그리고 미나는 다른 보통의 이탈주민과는 다르게 넉넉하고 대접받으면서 살았던 자신들의 과거를 여러 번 강조했다. 이는 남한 사회에 있는 대다수의 평범하거나 혹은 하위층 출신의 북한이탈주민과 자신을 구분 지으려는 태도이며,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인식으로부터 자신을 제외시키려는 일련의 모습이라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사회의 약자가 자신보다 더 약한 집단과 자신을 차별화함으로써 자신의 우위를 확립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 역시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Willis 1977; 유명기 2002; 재인용)이 재연 되고 있는 것이다.

## 2. SNS에서 표현하기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구축해주는 온라인 서비스이며, 2000년 이후로 마이스페이스(MySpace), 페이스북(Facebook)등의 등장<sup>22)</sup>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어느덧 SNS는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국내에서 SNS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령대는 20대<sup>23)</sup>이며, 하루 평균 80.7분으로 이용 시간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 역시 10~20대의 젊은 세대답게 카카오토크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고프만(Goffman, 1959)이 사람들의 삶을 연극무대로 비유해 전면과 후면영역을 나누었듯이, SNS 공간은 현실의 연장으로 자신이 의도한 모습을 보이는 전면영역으로 간주할 수 있다. SNS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취향과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한다. 멘델슨과 파파캐리시(Mendelson & Papacharissi, 2010; 김해원, 2015; 재인용)는 대학생들의 페이스북 사진들이 개개인에 의해 선택된 일련의 전략적인 행위들이라는 것을 밝혔다. 이처럼 SNS 속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고, 표현하고, 교섭한다.

북한이탈주민 역시 자신을 이상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으로 표현하기 위해 특정 모습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SNS를 통해 북한에선 쉽게 표현할 수 없었던 ‘개인성’을 나타냈으며, 현실공간에서 표현하지 못한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미지를 통해서 드러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특징에서 나타난 것이 아닌 청년층이라는 다른 특성으로 인해 두드러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22) 자료출처: ‘SNS’, 네이버 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26243&cid=42171&categoryId=42180>

23) 자료출처: ‘50대, 30~40대보다 SNS 더 열심히 해. SNS 가장 오래 이용하는 세대는 20대’, 서울신문(2016-04-18),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18500247>

의 SNS에서 나타나는 자아표현은 또래의 남한 사람들과 표현 양상만 달랐을 뿐, 표현하려는 목적과 방식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 2.1. 실력 뽐내기

북한이탈주민은 현실공간에서 정체성을 숨기거나 남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연출하느라 원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SNS를 통해 표현하지 못한 정체성을 나타내고자 하는데, 주로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어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SNS를 통해 인증하고 자랑하는 것처럼 북한이탈주민 역시 자신의 실력이나 능력을 뽐내는 사진을 올리면서 한 사람으로서 인정받고자 했다.



〈그림 13〉 혜수가 직접 한 네일아트

“네일 하는 걸 좋아해요. 인터넷에서 네일아트 사진 찾아서 가끔 따라 하기도 하는데 주로 제 스타일대로 하는 편이에요. 주변에서 잘한다고 자꾸 해달라고 해요.” (혜수, 18세, 2016-03-26)

현재 고등학생인 혜수의 취미는 바로 네일아트이다. 그녀의 휴대폰 사진첩에는 ‘셀프 네일’ 작품 사진들이 수십 장 넘게 저장되어 있다. SNS를 하지 않는 혜수는 카카오톡 프로필에 자주 셀프 네일 사진을 올려놓는다. 마치 예술가가 갤러리에



전시하듯 카카오톡 프로필에 사진을 전시하고 있다. 혜수의 프로필을 본 사람들은 직접 했냐고 말을 걸었고 ‘내가 이런 실력이 있는 줄 몰랐다,’ 며 칭찬을 해주었다. 혜수는 그 때가 바로 남한 친구에게 처음으로 인정받은 순간이라고 했다.



〈그림 14〉 (a)~(c) 보라가 SNS에 올린 요리 사진

“기숙사에서 제가 직접 만든 음식들이예요. 요리하는 게 저한테 제일 쉬운 일이에요. 요리하는 게 재밌기도 하고, 또 좀 하는 거 같기도 해요. 중국에서 살 때, 주인집 아줌마 도와주면서 같이 어울리고 먹고 그랬어요. 제가 만든 음식 사진을 자주 찍는 편이에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기도 하고, 그냥 제 스스로 뿌듯해서 사진으로 남기고 싶더라고요.” (보라, 27세, 2016-03-13)

연구 참여자 보라 역시 SNS를 통해서 자신의 요리 실력을 자랑하고 있었다. 요

리하기는 평소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능력으로, 보라는 현실공간에서 직접 친구들에게 요리를 해주지 않는 이상 자신의 실력을 뽐낼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온라인 공간에서는 직접 만든 음식 사진을 올림으로써, 자연스럽게 자신의 솜씨를 뽐낼 수 있었다. SNS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누구나 쉽게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바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시선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 편하다고 했다.



<그림 15> 미나가 SNS에 올린 자격증 사진

“학급에서 저랑 다른 언니들 세 명만 전산회계1급 자격증이랑 ITQ마스터 자격증 땀어요. 나머지 15명 정도는 실패했구요.” (미나, 25세, 2016-04-02)

미나는 5개월 동안 직업전문학교를 다니면서 전산회계1급과 ITQ마스터 자격증을 준비했다. 처음 보는 용어들이 낯설어 고생을 많이 했지만, 열심히 준비한 끝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미나는 자격증 사진을 카카오톡스토리 게시물에 올려 자랑했다. 자격증에서 개인정보가 적힌 부분은 마치 ‘뽐내려는’ 듯한 자세를 한 고양이 이모티콘으로 가렸다.

## 2.2. 이상적인 모습 연출하기

쿨리(Cooley, 1902)에 따르면 이상화된 자신의 면모를 세상에 보여주려는 충동이 다양한 직업과 계급 구성원들의 표현 방식에서 발견된다고 한다. 고프만(Goffman, 1959)은 이를 ‘이상화(Idealization)’ 라고 제시했는데, 이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관객에게 노출시키지 않고, 사실을 그럴듯하게 꾸며 포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상화’ 전략은 SNS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자아표현 방식으로, ‘있어빌리티(있다+ability)’란 신조어까지 탄생시켰다. ‘있어빌리티’는 포장력이자 연출력이 되고 자신을 브랜딩하는 하나의 기술<sup>24)</sup>을 뜻한다. 연구 참여자들 역시 자신을 특정한 이미지로 표현하고자 SNS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16> 미나가 SNS에 올린 브런치 사진

**연구자:** 평소 브런치 스타일로 먹는 걸 좋아하나요?

**미나:** 아뇨. 솔직히 이런 밀가루 진짜 안 좋아해요. 예전에 하나센터 선생님하고 회사 면접 보러 가기 전에 잠깐 들린 곳이에요. 처음 가 봤어요. 전 하나도 안 먹었어요.

24) ‘있어빌리티’는 허언증의 일종이다. 허언증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공간에서 더욱 강력해진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SNS 허언증’을 파악한 현실에 지친 사람들이 가상 세계로 도피하면서 생긴 결과라고 진단한다.

자료 출처: ‘있어빌리티’ 욕구... 30대 유부남, 돈 많은 총각 의사인 척, 중앙일보(2016-05-2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2618791>

**연구자:** 저는 이 게시물을 보고 미나씨가 빵을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한 입도 안 먹을 정도로 빵을 싫어하는데, 이렇게 카카오톡에 올린 이유가 있나요?

**미나:** 선생님 말로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브런치라는 단어도 처음 들어봤는데. 저도 그냥 사람들에게 ‘나도 브런치라는 거 즐길 줄 안다?’ 라는 식으로 올린 거죠. (미나, 25세, 2016-04-02)

미나는 또래의 남한 여대생처럼 보이고 싶어 했다. 그래서 자신도 브런치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진을 찍고 SNS에 올렸다. 비록 밀가루를 좋아하지 않아 한 입도 안 먹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SNS의 북한 친구뿐만 아니라 남한 친구들이 브런치 사진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봐주기를 기대했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SNS 라는 공간에서 목적과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동시에 인상관리를 통한 다양한 정체성을 창출해 내기도 하였다.

### 제 3절. 소결

이번 장에서는 적대국 출신인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데 있어 어떠한 자아표현 전략들을 사용하는지 살펴보았다. 자아표현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정체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동적이며 다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상황에 따라 전략적이며 유연한 자아표현을 보여주었다.

우선 북한이탈주민이 취하는 자아표현 전략에는 ‘남한 사람처럼 보이기’가 있다. 가장 가시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람과의 외형적일 동일화를 추구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은 표준한국어를 구사하고자 북한 사투리를 고치기 위해 고군분투 하였다. 이는 북한의 억양과 언어는 거칠며 교정되어야만 한다(장선하, 2008)는 하나원의 교육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외모관리를 통해 남한 사람들과 유사한 정상적 외모(Goffman, 1959)를 가지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남한 사회에서 북한이 가난하고 열등한 곳이라는 인식을 알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은 외형적으로 남한 사람들과의 동일화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북한이탈주민은 단순히 남한 사람들의 옷차림과 언어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모방하기도 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출신을 감추는 전략



을 사용하였다. 이는 북한을 국가적 맥락 속에서 적대적 국가로 인식하는 남한 사람들의 태도에 기인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은 강원도나 조선족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자신을 숨긴다.

두 번째 ‘자아(Self) 강조하기’ 전략은 자신의 개인성을 강조하며 다른 사람, 특히 다른 북한이탈주민과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이탈주민은 고향에서의 출신 성분, 경제적 상황 등을 바탕으로 다른 북한이탈주민과 동등한 취급을 받는 것을 거부하며, 자신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청년층답게 SNS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자아를 표현하였다. 고프만(Goffman, 1959)이 사람들의 삶을 전면과 후면영역으로 나누었듯이, SNS공간 역시 현실의 연장으로 자신이 의도한 모습을 보이는 전면영역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보통의 젊은 세대 SNS 이용자처럼 자신을 자랑하거나 특정 소양을 갖춘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했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은 SNS 라는 공간에서 목적과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자아’를 드러내는 동시에 인상관리를 통한 다양한 정체성을 창출해 내기도 했다.

## 제 6장. 정보추구행위 전략들

북한이탈주민은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이주민 집단보다 남한 사회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한 채 남한에 오게 된다. 특히 중국에 거주한 경험 없이 직행으로 탈북한 사람들은 남한에 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연구 참여자들은 탈북하기 전 남한을 ‘중국과 비슷한 나라’로 생각했다고 한다. 북한 사회보다 자유롭고 안정적인 신분을 보장해줘서 왔을 뿐, 정확히 남한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알고 그것을 따라 목숨을 걸고 탈출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이주민은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면서, 일상생활에서도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고 (Silverstone and Georgiou, 2005), 이로 인해 다양한 영역에서 높은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된다는(Sanchez-Birkead *et al.*, 2011) 선행연구처럼 북한이탈주민 역시 남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들은 반세기가 넘는 분단으로 인해 형성된 사회적·문화적 이질감, 언어 및 생활 습관의 차이 등으로 극단적인 불확실성을 경험하기도 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정보와 지식을 필요로 한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정보와 지식은 생존을 위한 수단이자 남한 사회에서 안정을 찾기 위한 강력한 도구로 작용한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은 무분별하고 획일적이게 정보를 얻으려 하지 않는다. 수용자는 능동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와 동기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매체를 활용한다는 (Katz, Blumler & Gurevitch, 1974) 이용과 충족이론에 따라, 이들은 목적 지향적 행위를 보여준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영위하고 싶다는 목적 아래 나름대로 합리적인 정보추구행위를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북한이탈주민은 유동적인 정체성을 경험한다. 정체성이 재구성됨에 따라 그들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위치와 존재감을 확인하며, 정보이용이나 판단 역시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에 맞도록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번 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착과정에서 어떠한 정보추구행위 전략을 보이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필요 정보는 무엇이며, 어떠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지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정보행위에 있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알아보고자 한다.

### 제 1절. 필요정보 유형

제 1절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가 무

엇인지 살펴본다. ‘북한’ 출신의 ‘초국가적’ ‘청년’ 이주민이라는 연구 참여자의 특성을 유념해두고 필요한 정보를 유형화 시키고자 한다.

## 1. 일상생활 정보

일상<sup>25)</sup>은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반복되는 생활을 뜻한다. 즉 일상이란 ‘늘, 평소, 항상’이라는 의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특별하지 않게 항상 반복되어 이루어지는 가장 보편적인 생활이며 인간 근본적인 상태와 모습을 일컫는다. 일상생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수용하는 과정은 남한 사람에겐 그리 어렵지 않지만,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하는지 감조차 잡히지 않는 일로 느껴진다. 조용완(2006)은 북한이탈주민이 어디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 모르고, 주변에 정보를 얻을 만한 사람이나 기관이 없어 매우 열악한 정보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정보를 얻기 위한 기술과 능력이 부족하여, 주로 자신의 가족과 북한이탈주민 친구 및 동료에게 정보를 얻는다고 한다. 남한에 연고가 없는 북한이탈주민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회연결망이 극소수이며, 이로 인해 생활의 기회를 새롭게 얻을 수 있는 방법도 부족하다.

이주민의 정보 요구는 지역과 경제적인 상황의 차이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사보라이넨(Savolainen, 1995)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적인 정보를 가장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이주민의 정보요구를 연구한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이주민이 주거, 교육, 보건 등 일상에 필요한 정보를 찾는다는 것(Khoir *et al.*, 2014)을 확인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 역시 정체성, 사회참여 등의 욕구에서 비롯되는 정보보다 소비활동, 건강, 취업, 여가생활 등과 같은 삶의 기초생활적 욕구와 관련된 정보를 필요로 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와 달리 ‘북한 출신의 초국가적 청년 이주민’이라는 연구 참여자의 특성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정보필요 유형을 분석하였다.

### 1.1. 소비생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의 시장경제와는 현저하게 다른 사회주의 경제 환경에서 생활했다. 따라서 그들은 기본적인 시장경제 원리를 파악하는 일뿐만 아니라 생활금융이나 조세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물론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이 고향의 장마당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고 판매한 경험이 있어, 시장경제에 대해

25) 동아 출판사 백과사전 부, 『동아 세계대백과사전』, 동아출판사, 1975

아예 무지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남한 사회에서처럼 신용카드나 상품권 등으로 물건을 계산한 적이 없고, 상대적으로 제품의 선택권이 다양하지 않아 경제생활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에게 구매체험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합리적인 소비를 익히는 데 있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하나원을 퇴소한 이후 연구 참여자들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물건을 구입해야 했으나, 물건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어떤 물건을 구입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어려울 때 많았다고 한다. 그들은 물건을 살 때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지 못했으며, 정보를 찾아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물건을 구입하기 전 다양한 상품에 대한 정보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선택을 취하는 소비 방법과도 거리가 멀었다. 특히 남한에 연고가 없는 북한이탈주민일수록 소비 생활에 있어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처음 집에 들어가면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보면 되요. 하나센터에서 갖다 준 이불, 가스레인지 이런 거 밖에 없어요. 그것만 가지곤 못 살잖아요. 그릇, 옷장, 그리고 음식도 어디서 사야하는지 하나도 몰랐어요. 가뜰이나 길도 잘 몰랐을 때라 엄청 막막했죠.” (지호, 28세, 2015-12-18)

지호가 하나원으로부터 배정받은 임대 아파트에는 가스레인지와 이불 이외에 가구는 한 점 조차 없었고, 그릇도 턱없이 부족했다. 생활용품을 구매하는 것도 일이었지만, 당장의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먹을거리를 사는 것도 시급했다. 지호는 어디를 가서 어떤 물건을 사야하며 이를 위해 누구로부터 정보를 얻어야 하는지 몰라 난감했다고 했다. 북한이탈주민은 기본적인 구매 정보의 부재로 잘못된 상품을 구매하거나 충동구매를 하는 경험을 겪곤 한다. 지호 또한 정수기를 구입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여, ‘무조건 크고 단단한 게 좋은 것’이라는 개인적인 판단기준으로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대용량 사이즈의 정수기를 신청하기도 했다.

“하나원에서 나오자마자 휴대폰을 사러 갔거든요. 거기서 약정이 어떻고, 기본요금이란 단말기 값은 어떻고 이러는데. 저는 거의 모르다시피 하고 구입했어요. 그냥 사라는 대로 샀어요.” (유미, 24세, 2015-12-26)

연구 참여자들은 다른 제품보다 특히 휴대폰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했다. 장선하(2008)에 따르면 휴대폰은 남한의 첨단 문명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소유

하고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북한이탈주민에게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한다. 또한 휴대폰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다른 북한이탈주민 친구들과의 연계망을 유지하는 도구이자 중국, 더 나아가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도 연결시켜주는 ‘초국가적 통신매체’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은 휴대폰을 구입하고 사용하는 데 정보를 찾고 싶어 했다. 이는 단순히 휴대폰 사용법에 관한 것을 넘어 약정, 단말기 할부 등 구매와 관련된 것을 포함한다.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에서 퇴소하자마자 전입신고와 같은 행정상 업무를 처리하고 제일 먼저 휴대폰을 구입한다. 남한 사람들도 간혹 헛갈리는 휴대폰 약정요금과 단말기 할부금 등의 내용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겐 외계어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요금제뿐만 아니라 수신자 부담 통화,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 보이스 피싱 사기 등에 관한 정보도 안내 받지 못한 채 구입 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유미 역시 자신에게 맞는 상품과 요금제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지만, 이를 획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매장 직원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휴대폰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물품이지만 정작 북한이탈주민은 이러한 정보에서 소외당하고 있었다. 이는 비단 휴대폰 구입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 연구 참여자들은 구매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물건을 꼼꼼하게 비교해서 합리적으로 구매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어떤 물건을 구입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물건을 구입하는 방법 자체에 대한 정보도 필요로 했다. 특히 또래 남한 학생들처럼 집보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그들은 식당, 카페 등에서 원하는 음식 혹은 커피를 주문하거나 특정한 쇼핑 환경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방법 등에 대해 궁금해 하였다.

“제가 노량진에서 학원을 다니는데, 점심시간 때 학생들이 햄버거 많이 먹더라고요. 저번 주에는 저도 한 번 먹어보고 싶어서, 새우버거 주문을 했어요. 얼마 추가하면 큰 거 준다고 이말 저말 했던 거 같은데, 너무 빨라서 못 들었어요. 그리고 저보러 직접 카드를 긁으라는데, 이게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는 지도 모르겠고. 제가 막 버벅 거리니까 점원이 좀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사투리도 쓰니까 북한에서 온 거 눈치챘을까 봐 괜히 신경 쓰이고.” (환희, 20세, 2015-12-19)

환희는 햄버거 가게에서 주문을 하다가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 점원은 환희가 주문한 메뉴 이외에 다양한 선택 사항을 제안했을 뿐만 아니라, 카드 단말기에 직접 계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환희는 점원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고, 괜히 자신의 신분 이 드러날까 초조했었다고 한다.

“카페 메뉴가 조선어로 써 있긴 한데 뭐가 뭔지 모르니까. 어떤 걸 시켜야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뭐, ‘아메리카노’ 이렇게 시키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사이즈도 물어보잖아요. 레귤러 어찌구 저찌구. 그게 무척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카페는 직접 가져다 주기도 하고, 어떤 곳은 아니잖아요. 주문하고 나서 서서 기다려야 하나, 아니면 앉아있으면 되나 막 혼자 헤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살펴보기도 하고.” (태희, 27세, 2015-12-20)

이제는 습관처럼 카페를 이용하고 있지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태희는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고 받는 과정 자체를 두려워했었다. 카페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아메리카노’, ‘샷추가’, ‘레귤러 사이즈’, ‘테이크 아웃’, 등의 외래어를 못 알아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주문을 하고 나서 어떻게 음료를 받아야 하는지도 몰라,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물건을 계산하거나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을 몰라 당황할 때마다 혹여 다른 사람들에게 북한이탈주민 출신이 탄로 날까봐 걱정했었다. 따라서 그들은 단순히 올바른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넘어 구입하는 행위에 관한 사소한 정보까지 필요로 했다. 그들에게 남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법은 단순히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것을 떠나 자신을 보호하는 중요한 도구로 쓰였다.

## 1.2. 친구 사귀기

북한이탈주민은 정착을 빨리 하기 위해 남한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 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주민 집단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은 막상 남한 사람들과 만나면 문화나 경험의 차이로 공감대 형성이 어려워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은 남한 사람들과 무슨 말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의 관심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

“제가 오자마자 학교를 바로 다녀야 돼서 그냥 제 나이 때 애들과 잘 소통 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했던 거 같아요. 남한 친구 만들어야 되고 어울려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애들이랑 더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여기 애들은 뭐에 관심이 있을까, 오늘 학교 가면 무슨 말을 꺼내야할까, 이런 거요. 예휴, 지금 생각해도 슬프네요.” (수지, 24세, 2015-12-22)

하나원에서 퇴소하자마자 수지는 새터민을 위한 고등학교가 아닌 일반 고등학교

로 진학했다. 북한출신이라는 것을 미리 밝힌 수지에게 친구들은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었다. 그러나 수지는 시간이 갈수록 딱히 북한이야기가 아니면 친구들과 할 말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남한 학생들이 보통 어떤 이야기를 하고, 무엇에 관심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다.

“적응 하려면 한국 친구들 사귀는 게 제일 좋아요. 저도 고등학교에서 친한 애들 있거든요. 친한 건 확실히 맞거든요? 근데, 뭐랄까 공유하는 게 별로 없어요. 통화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카톡으로도 하는 말이 뭐 방탄(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줄임말)에 관한 거죠. 여기 애들은 무슨 이야기하는지 궁금했어요.” (혜수, 18세, 2016-01-17)

혜수 역시 남한 친구들과 ‘말할 거리’가 없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행히 친구들과 ‘방탄소년단’이라는 아이돌 그룹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그 이외에 친구와 무슨 대화를 해야 할지에 대해 감을 잡기 어려웠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친구 관계를 형성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해 했다. 고향 친구들을 만나면 “너네 친구들이랑 무슨 얘기 하나?”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기도 했다. 이는 비단 수지와 혜수 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 참여자들 역시 동의한 부분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남한 사람들과의 유대감과 친밀감이 높지 않아 관계를 이어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1.3. 아르바이트 구하기

연구 참여자들 모두 취업보다는 진학을 일순위로 두었으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경제활동을 시작하고 싶어 했다. 정부에서 지급한 정착금<sup>26)</sup>의 절반 이상을 이미 브로커 비용으로 사용했거나,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삶에 보탬이 되려면 매달 지급되는 생계비지원금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브로커를 통해 모국의 가족들과 연락을 취하고 송금을 하려면 아르바이트를 구해야만 했다. 가족들에게 송금을 하는 모습은 북한이탈주민을 초국가적 이주민으로 바라 볼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

26) 정부는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착금을 줄이고 적극적으로 취업에 나서는 사람들에게는 각종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착지원 제도개선방안을 2004년 7월 23일에 확정하였다. 그리고 2004년 12월 23일 북한 이탈주민 지원정책의 기본방향을 기존의 보호 중심에서 자립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2005년 1월 1일부터 단독 입국자에게는 기본급으로 1천만원을 지급하고, 적극적으로 취업훈련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직업훈련 장려금, 취업장려금, 자격취득 장려금, 기초직업훈련수당 등의 명목으로 1,540만원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주택임대비용은 750만원은 기존의 방식대로 지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적극적으로 취업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착금의 감소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다른 사회약자층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개인당 월 54만원을 지급받던 생계급여는 32만원으로 줄어들게 되었다(김화순·신재영, 2005).

기도 하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남한 사회의 아르바이트 문화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직종에 관한 정보 역시 현저하게 부족했다. 따라서 이들은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 있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 이들은 거주지와 거리, 시급, 근무요일 등의 기준으로 아르바이트 정보를 걸러냈다. 그리고 나선 직접 찾아가 가게 분위기를 살펴든지, 혹은 주변 남한 사람들에게 물어봄으로써 직종에 대한 확신을 얻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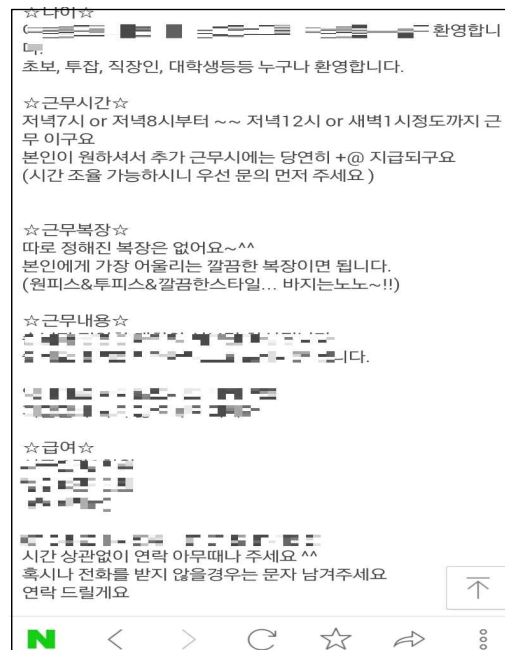
“수급비 가지고는 좀 살기가 어려워요. 집세랑 공과금 뭐 이런 거에 쓰다보면 교통비 정도 남거든요. 그것만 가지고는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리고 가끔 (북한에 있는) 가족들도 도와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알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유미, 24세, 2015-12-26)

유미는 하나원에서 퇴소하자마자 아르바이트에 관한 정보를 찾았다. 하나센터의 사회복지사로부터 알게 된 구직사이트를 통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구했고, 현재 1년 넘게 일하고 있다. 북한에 있는 아버지와 통화를 했는데 새어머니가 암에 걸리셔서 평양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도움을 요청하셨다고 했다. 비록 유미는 남한에 있지만, 북한의 가족들을 부양하고 챙겨야 할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브로커 비용 대느라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북한에 있는 부모님한테도 보내드려야 하니깐. 그리고 저는 돈을 막 아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거기 있을 때도 친구 생일 때 1000위안씩 주고 그랬어요. 암튼 제 생활 유지하려면 알바는 꼭 해야 됐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자마자 열심히 알바 찾았던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건 오후 3시에 출근해서 다음 날 새벽 5시에 퇴근해요. 재료 다듬고 설거지 하는 일이에요.” (지호, 28세, 2015-12-18)

지호 역시 정부에서 지원받는 수급비로는 여유롭게 생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구하고자 했다. 또한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송금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이는 북한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의 가족들은 ‘남한에 가면 넉넉하게 산다는데 우리 좀 도와줘라,’ 라며 송금을 대놓고 요구한 경우도 있다. 지호의 휴대폰 사진첩에서 아래의 <그림 17>과 같은 아르바이트 정보가 담긴 사진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림 17〉 지호가 휴대폰에 저장한 아르바이트 정보

“아르바이트가 힘들긴 하죠. 그런데 부모님께서 나이가 많으셔서 이제 일을 잘 못하시거든요. 저랑 언니 둘 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 참 죄스럽기도 하고요.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악착같이 모아서 보내야죠.” (태희, 27세, 2016-04-03)



〈그림 18〉 태희가 아르바이트 당시 찍은 사진

태희는 연구자에게 위 〈그림 18〉 사진을 보여주었다. 태희는 하나원에서 퇴소하자마자 집 앞 순댓국 가게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한다. 당시엔 북한 사투리를 심하게 써서 태희는 주방에서 설거지나 재료를 다듬는 일밖에 할 수 없었

다. 이 사진을 찍은 날은 유독 기운이 없고 설거지양도 많아서 우울했었다고 한다. 태희는 메신저로 친언니에게 사진과 함께 ‘일만 하려고 여기 온 건 아닌데, 얼른 대학 가고 싶다,’ 라는 내용을 적어 보냈다. 언니에게 처음으로 힘들다고 토로한 날이었다. 오히려 언니는 ‘미안하다,’ 라고 답장을 보내 태희의 마음이 참으로 아팠다고 했다. 남한에 와도 북한에 있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애환이 느껴지는 대목이었다.

북한이탈주민은 ‘아르바이트 + 생계비지원금’이라는 형태를 기본 생존전략으로 채택한다. 아르바이트는 시간제이고 경력인정이 안 되지만, 취업이 쉽고 이에 생계비지원금이 합산되면 총소득이 높아진다(김화순·신재영, 2005)는 현실적인 이익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원에서 나오자마자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이유는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한 것보단 고향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하고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려는 데 있었다.

## 2. 진로 및 미래 탐색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연구 참여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는 바로 진로 및 미래 탐색에 관한 것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처럼 학령기의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에서 퇴소하자마자 대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어떤 직업이 자신에게 맞을지 고민한다. 선행연구에서도 학령기 북한이탈주민들이 공부해서 좋은 직장을 갖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며(신희정·박선아, 2009), 북한에서의 출신성분에 의한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배제되었던 교육의 기회에 대한 욕망의 분출과 남한 사회에서 획득할 수 있는 교육자본의 하나로서 대학진학을 선택한다고 보고되고 있다(이혜경, 2003; 김성윤, 2006; 권나혜, 2006; 재인용). 연구 참여자들은 남한 사람들의 냉대와 차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는 것이라 생각해 성공하고자 하는 의욕이 매우 컸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사회에서 북한에서 생각조차 못해본 꿈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이룸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아실현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는 남한 사회 정착에 중요한 가치로 부상한다.

### 2.1. 대학 진학하기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에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남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남한 전체의 학력 중시 풍토를 경험하게 된다. 하나원에서는 정부가 최대 4년

동안 등록금을 지원해주며, 북한이탈주민은 특별전형으로 명문대에 입학하기 쉽고 학령기의 이탈주민에게 대학 진학을 추천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사회에서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자본인 대학 졸업장을 따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삼게 되고(정병호, 2014), 북한에서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욕으로 대학 진학을 준비한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그들의 부모세대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또래의 고향 사람들이 남한에서 단순 서비스 직업에 종사하고 임시직을 전전하는 경우를 목격해 있다. 대부분의 단순 반복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좌절과 무력감을 느끼게 되며, 이는 정착에 있어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주위 사람들을 관찰한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교 졸업장을 획득해 ‘제대로 된’ 직업을 획득하고자 생각을 가지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의 대학진학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학령기의 북한이탈주민은 무조건 명문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대학교 네임밸류 보다는 전공을 우선순위로 두고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나원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명문대에 입학한 탈북자들이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자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좋은 대학교보다는 어떤 전공이 훗날 취직하는 데 있어 유리한지 알고 싶어 했다.

“탈북자들이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기는 쉽잖아요. 근데 끝까지 공부 마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럴 바에는 그냥 중간 정도의 학교만 들어가면 되요. 대신 전공을 잘 선택해야죠. 취업 잘 되는 과를 선택해야죠.” (미나, 25세, 2015-12-20)

미나는 명문대학교에 입학하는 것보다 중간 정도의 학교라도 들어가 졸업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 대신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전공을 선택하고자 했으나,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 난감해 하였다.

“사회과학대학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나원에서 대학교 전공 설명이 적힌 책자를 받긴 했는데,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전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 배우려면 영문학과 가야하나 생각했죠.” (미나, 25세, 2015-12-20)

미나는 하나원에서 배부한 대입 안내책자에 나온 ‘사회과학대학’이라는 용어조차 이해하지 못했으며, 책자를 읽어도 ‘정치외교학과’와 ‘사회학과’는 도무지 무슨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대학교 영문학과를 마치 학원으로 생각한 듯 영어를 배우기 위해 영문학과를 고려한다고 말했다. 영문학과에 진학하는 대부

분의 사람들의 영어 실력이 뛰어나다는 연구자의 말을 듣고 영어를 잘 하는데 왜 영문학과에 가서 또 공부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하기도 했다.

“제가 하나원에서 5월에 나왔는데, 그 해 수시 원서를 넣었거든요. 경영학과로요. 원래 탈북자들이 간호학과 많이 가서 선생님이 거기 넣으라 했는데 저는 주사를 원체 무서워 해서요. 그래서 남한 애들은 경영학과 많이 간다고 해서 선택 한 거죠. 주변에서 ‘탈북자들 그냥 받아준다, 대학가기 쉽다,’ 고 해서 아무 준비 안하고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물어보고 영어로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알았으면 준비 좀 했을 텐데, 뭐 정보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떨어졌죠.” (유미, 24세, 2015-12-26)

유미는 하나원 뿐만 아니라 하나센터에서도 ‘대학 입학은 쉽고, 오히려 졸업이 어렵다,’ 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특별히 대학입학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냥 면접관들과 편하게 대화하고 오면 된다,’ 라는 사회복지사의 조언으로 면접에 임했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다. 미리 제대로 된 면접 정보를 얻었다면 이렇게 허무하게 떨어지지 않는 것을 거라고 아쉬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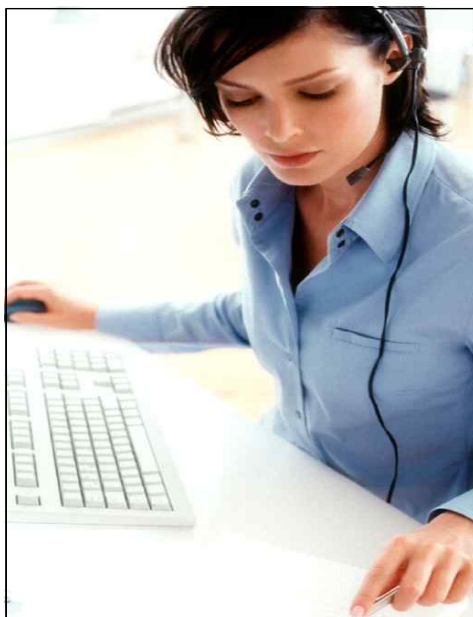
이처럼 남한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자 진로에 대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찾았던 이탈주민들은 준비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 많은 고충을 겪었다. 그들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학업수준을 가늠하지 못했으며, 학업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다.

## 2.2. 직업 찾기

북한이탈주민이 대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이유는 학문적으로 배우고 싶다는 의지도 있겠지만, 그 보다도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한다. 이들은 좋은 대학교의 졸업장일수록 높은 연봉의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연구 참여자들이 언급하는 소위 ‘좋은 직장’이란 정년이 보장되고, 처우가 정당하며,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을 뜻했다. 특히 처우를 강조했는데, 이는 무조건 높은 연봉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유미와 지호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간호조무사와 교사로 일했지만, 월급을 받은 적은 거의 없다고 했다. 돈 대신 물건을 받거나, 당과 수령을 위한 희생이라는 명목으로 강제로 일할 수밖에 없었다. 불공정한 처우로 인해 당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었고, 이는 궁극적으로 탈북을 결심하는 데 큰 영향을 주

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은 일한 만큼 정당히 받을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싶어 했다.

“지금은 돈 때문에 일만 하고 있지만, 대학원에 정말 가고 싶어요. 그래서 회계사든 교수든 남들이 인정해주는 전문 직업을 가질 거예요. 가뜰이나 탈북자라고 하면 무시하는데, 지금처럼 식당에서 설거지 한다고 하면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무슨 일 하나고 많이 물어보니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일을 해야죠. 이 사진(그림 19)에 나오는 여자처럼 컴퓨터도 잘 다루고 뭐랄까 멋있어 보이는 직업을 갖고 싶어요.” (지호, 28세, 2016-03-27)



〈그림 19〉 지호의 ‘꿈’을 나타내는 사진

〈그림 19〉는 지호의 ‘꿈’을 나타내는 사진이다. 지호는 사진 속 여성이 정장느낌이 나는 셔츠를 입은 채 컴퓨터로 일을 하며 마이크가 연결된 이어폰을 꽂아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는 전문직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진을 선택했다고 한다. 그리고 훗날 자신도 〈그림 19〉의 여성처럼 옷을 깔끔하게 입고 세련되 보이고 싶다고 덧붙였다. 지호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학업을 잠시 미루었지만, 학업에 대한 의욕은 그 어떤 연구 참여자보다 강했다. 틈날 때마다 지호는 연구자에게 대학원 진학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또한 연구자로부터 얻은 경영학과 대학원생들이 읽는 필독 도서 목록을 보고 책을 구입하곤 했다. 북한에서 사범대학교 수학교육학과를 전공했던 지호는 사투리만 고치면 남한 수학 학원에서 충분히 강사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지호는 오래 동안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위치의 직업을 가지고 싶었다. ‘북한이탈주민’을 꼬리표이자 콤플렉스로 인식하고 있는 지호에겐 좋은 학벌과 직업은 남한 사회에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보유해야 할 필수 조건이었다.

### 3. 고향과 연결하기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이후에도 고향에 있는 가족들과 관계를 이어나가는 초국가적 이주민이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의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통신 교류가 금지되어있다. 따라서 다른 이주민들이 직접 본국과 연락을 취할 때, 북한이탈주민은 브로커를 통해 ‘선’을 놓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북한이탈주민에겐 고향과 지속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정보, 특히 신뢰할만한 브로커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이 이용하는 브로커는 역할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리고 오는 데 필요한 ‘탈북 브로커’이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sup>27)</sup>에 따르면 절반 이상이 ‘브로커가 필요하며, 브로커의 도움으로 탈북했다,’고 답한 바 있다. 실제로 연구 참여자들 모두 브로커를 통해 탈북을 시도했다. 두 번째는 본국의 가족들에게 자금을 전달해주는 ‘송금 브로커’이다. 고향에 가족을 두고 온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은 미안함 때문에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고향에 자주 송금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은 믿을만한 ‘송금 브로커’를 알고 싶어 했다. 대부분의 브로커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남한·중국·북한 내 연계망을 통해 국경을 넘나든다. 송금 방식은 조선족 브로커가 개설한 남한 계좌를 통해 중국까지 송금이 되고, 송금이 된 돈을 위안화나 달러로 환전한 뒤 북한에 직접 들어가 전달하는 방식<sup>28)</sup>으로 이루어진다.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데리고 오려면 적어도 500~1,000만원의 브로커 비용을 마련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가족의 탈북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은 송금이나 전화통화로 모국과 연계하고 있다.

27)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실이 지난해 북한이탈주민 2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82.7%가 ‘탈북브로커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탈북자의 절반 이상(58.9%)이 ‘브로커의 도움으로 탈북했다’고 답했다. ‘혼자서 탈북했다’는 답변은 9.3%에 불과했다. 자료출처: ‘두 얼굴의 탈북 브로커 실태’, 데일리 한국(2014-11-15).

<http://daily.hankooki.com/lpage/society/201411/dh20141115112833137780.htm>

28) 자료출처: ‘탈북자 대북송금 기본이 천 달러’, 자유아시아방송 (2016-04-21)

[http://www.rfa.org/korean/weekly\\_program/ad81ae08c99d-d480c5b4c90db2c8b2e4/askquestion-04202016133339.html](http://www.rfa.org/korean/weekly_program/ad81ae08c99d-d480c5b4c90db2c8b2e4/askquestion-04202016133339.html)

“이제 여기 생활이 좀 적응이 되고, 돈도 모여서 (북한) 집에다가 보내려고 브로커가 필요했는데 믿을만한 ‘선’ 찾는 게 어렵더라고요.” (태희, 27세, 2016-04-03)

태희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보탬이 되고 싶어 송금할 돈을 어느 정도 모으자, 돈을 안전하게 전달해 줄 믿을만한 브로커가 필요했다. 하나원 동기들로부터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기 때문에, 처음엔 브로커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다. 그래서 브로커를 통해 소액만 고향에 보냈다. 몇 번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브로커가 일을 제대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된 태희는 그 뒤로 큰 액수를 맡긴다고 했다.

## 제 2절. 정보획득방법

제 2절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정보추구행위를 위해 어떻게 정보를 획득하는지 분석한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정보원은 무엇이며, 또 이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알아본다.

### 1. 일상적 정보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남한에 있는 가족과의 연결망이 두드러지지만 다른 비공식적 연결망이 넓게 형성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북한에서의 삶의 방식을 꼽을 수 있다. 북한은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폐쇄되고 단절된 사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간에도 이동의 자유가 없고, 사회 계급과 계층 간에도 교류가 없다. 그러다 보니, 남한에 와서도 다른 이탈주민들과의 개인적 인간관계를 맺는 일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가족 외에 하나원 동기 모임을 연결망으로 가지고 있지만, 다른 이주민과 같이 네트워크가 넓게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 이주민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이주민은 인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주민 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다(Epstein, 1978; Mitchell, 1974; 주종택, 2000; 노고운, 2001; 재인용). 이때 이주민 집단이 공식적인 기관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조직적인 활동을 펴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곳에서는 비공식적 연결망<sup>29)</sup>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29) 비공식적 연합(coalition)은 5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Boissevain, 1974). 첫 번째, clique는 지속적으로 모임을 갖지만 구성원의 관계가 친밀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모임을 유지하기 위한 특정한 목적을 갖지 않는다. 두 번째, gang은 구성원들이 애정에 기반 하여 정기적으로 만나며, 공통의 관심사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리더 중심의 연합이다. 세 번째 action set은 특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

된다(Boissevain, 1974). 종종 북한이탈주민과 비교분석 되는 조선족의 경우 단일한 집단보다는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달 되는 정보와 경험들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관한 것들까지 포함한다(노고운, 2001).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은 일반적인 틀에 매여 살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의 삶과 의식은 출신 성분, 사회 계급, 삶의 환경 등에 의하여 완전히 이질화·파편화(유시은 외, 2012) 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주민 집단 보다는 폐쇄적인 연결망을 형성하며, 이로 인해 협소한 정보를 얻고 있다.

### 1.1. 고향인맥 활용하기

북한이탈주민은 스스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을 겪는 현실에 대하여 당연하듯이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도 했다. 이용자의 정보행위를 다룬 기존의 연구들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접근가능성, 이용용이성, 친숙성이 높고 비용이 저렴한 비공식 정보원에 의존한다는 것을 밝혔다(양순우, 2010). 북한이탈주민이 역시 고민을 해결하고자 주변에 쉽게 물어볼 수 있는 가족이나 친척 그리고 고향 친구에게 의지했다. 따라서 이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보다는 근거 없이 떠도는 소문위주의 정보를 얻곤 했다.

“아무래도 하나원 동기 언니들이랑 매일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니까, 다들 어디서 주서들은 이야기들을 막 말해요. 이렇게 하면 수급비가 더 나온다더라, 이 자격증을 따야지 취업이 쉽다더라. 가끔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죠.” (지호, 28세, 2016-03-27)

남한에 연고가 없는 지호는 하나원에서 알게 된 언니들이랑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지호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실시간으로 쉽게 연락을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심리적인 거리감이 없어서 언니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얻는다고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무조건 신뢰할 만한 정보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또한 남한에 먼저 정착한 가족들이 있는 연구 참여자들일 경우 그들로부터 현실적인 조언을 듣기도 했다.

---

해 그들의 행동을 조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는 한 명의 리더나 하나의 당파에 의해 구성원들의 목적을 이루려는 행동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내부의 특수성과 특수한 작업을 통해 모이며, 구성원은 상황에 따라 제한되어야 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faction은 정치적 과정에 기초한 사회 조직의 형태를 띤다. 이것의 구조적 특성과 리더에 관한 문제가 중심을 이룬다(노고운, 2001).



“이모가 아무래도 17년 전에 한국에 먼저 왔으니까 도움 많이 줬어요. 어떤 물건 사야 되는지도 알려주시고..... 그냥 본인이 경험한 게 있으니까 알아서 다 도와주세요.” (미나, 25세, 2015-12-20)

“이게 좀 갈릴 수도 있는데. 저는 별로 정착하는 데 남한 사람들 도움 받은 건 없었던 거 같아요. 주로 한국에 먼저 온 언니 통해서 정보를 얻어요. 언니가 아무래도 저보다 여기서 오래 살았고, 경험도 있으니까 잘 알아요. 그리고 이모들한테도 도움 많이 받았어요. 이모들이 한국 온지 10년이 다 돼가거든요. 이모들이 처음부터 옷 많이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울렛가면 싸다고, 거기서 사는 게 훨씬 좋다고 말해줬어요.” (수지, 24세, 2015-12-22)

미나와 수지는 주로 남한에 먼저 정착한 가족을 통해서 정보를 얻었다. 미나의 이모는 17년 전에 남한에 왔기 때문에, 남한 사회에 적응하고 익숙해졌다고 볼 수 있다. 미나의 이모는 어떻게 교통카드를 충전하며, 마트에서 장보고 계산하는 법, TV는 어디 브랜드가 좋으며 여가시간에는 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었다. 수지 역시 자신보다 일찍 남한에 입국한 언니와 이모들로부터 조언을 구했다. 미나와 수지에게 이모와 언니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인 동시에 배울 게 많은 정착 선배이다.

“제가 인조고기를 좋아하는데, 어디서 파는지 몰랐거든요. 하도 제가 인조고기 타령을 해갖고, 엄마가 같이 하나원에 있었던 아줌마한테 물어봤데요. 인천 어디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엄마가 사와서 먹었어요. 고향음식 먹고 싶을 때는 같은 북한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훨씬 낫죠. 정보를 많이 알고 있을 테니까요.” (환희, 20세, 2016-04-03)

북한이탈주민은 고향사람들을 통해 주로 정보를 얻곤 하지만, 다른 이주민들과 달리 커뮤니티를 만들지 않는다. 이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오랫동안 거주하는 지역은 이주민들 스스로 익숙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사회 단체와 종교기관 및 다양한 상권을 형성하면서 커뮤니티 공간도 바뀌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은 고향친구, 하나원, 단체 활동 등에서 만들어진 관계가 아니면 새로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관계를 형성시키는 일은 매우 드물다(정병호, 2014).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은 생존을 위해서 홀로 고민하거나, 기껏해야 주위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폐쇄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있었다.

## 1.2. 남한 사람에게 도움 얻기

주변에 알고 지내는 남한 사람이 있을 경우 북한이탈주민은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남한 사람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을 물어보고는 했지만,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생각을 갖고 있었다. 또한 자신의 출신지를 모르고 있는 남한 사람들에게 괜히 기본적인 내용의 질문들을 했을 때, 자신의 신분이 탄로 날수도 있다는 생각에 애초부터 질문을 하지 않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전에 (연구자) 선생님이 머리 짧게 쳤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물어봤잖아요. 뭐 집 앞에 미용실이 많긴 한데 어디가 잘 하는지 모르고, (고향)친구들도 아마 잘 모를걸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본 거죠. 선생님 머리가 마음에 들기도 해서요. 그때부터 쪽 거기서만 했어요. 아무래도 친구들은 여기서 머리를 잘라 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어디가 좋은지 잘 모르잖아요. 선생님이 오래 동안 다녀본 곳이라니까 믿을 수 있어요.” (지호, 28세, 2015-12-18)

어느 날 지호는 연구자가 다니고 있는 미용실을 알려줄 수 있느냐고 물어봤다. 연구자가 평소 이용하고 있는 미용실은 지호의 집에서 한 시간 가량 떨어져 있었지만, 지호는 그 거리를 감수하고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다. 지호의 집 앞에는 대형 프랜차이즈 미용실을 포함해 적어도 다섯 개 이상의 미용실이 있지만, 지호는 굳이 연구자가 다니고 있는 미용실을 택했다. 지호는 웬지 남한 사람들이 더 잘 알만한 정보의 경우 고향 친구들보다 연구자에게 물어보는 것을 선호했다.

“하나원에서 나오고 나서 저도 막 뭐라도 당장 해야 될 거 같은 거예요. 지원금도 언젠가는 끊기니까 엄청 불안했고요. 알바 찾는 사이트에서 엄청 찾기는 했는데. 어떤 알바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무작정 전화해서 면접 잡아놨는데, 제가 안 가고 그러니까. 욕 문자 받고 그래서 침에 황당했어요. 저는 그냥 싫으면 안 가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해도 되는 알바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자) 선생님한테 제가 찾은 알바 정보 물어본 거예요.” (미나, 25세, 2015-12-20)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에서 나온 뒤 뭐든지 닥치는 대로 해보고 하루 빨리 적응하고자 가끔은 성급하게 일을 추진할 때가 있다. 미나도 또래의 남한 학생들이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를 바로 시작하고 싶어 했다. 하나센터 선생님이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를 알려주었지만, 수많은 정보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나는 연구자에게 종종 아르

바이트 정보를 보내주면서,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해 일종의 확인을 받은 했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이 정보행위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번 장 마지막 부분에 다루었다.

### 1.3. 공식적인 기관에 물어보기

현재 남한 전역에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남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32개의 하나센터가 있다. 하나센터의 설립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취업, 문화체험, 생활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도우며, 하나원 퇴소 이후부터 약 한 달간의 기간 동안 남한 사회에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 전 입신고 등과 같은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오로지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설립 되었지만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하나센터나 시청의 새터민 담당부서 같은 공식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어려워했다. 이와 같은 공식기관은 전화 한 통화로 연락할 수 있어 물리적 혹은 지리적인 접근성이 매우 높았지만, 북한이탈주민에게는 마음 놓고 물어볼 수 있는 심리적인 접근성이 더욱 중요했다. 때문에 공식기관은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곳임이 분명하지만,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심리적 거리감이 존재하는 곳으로 받아들여진다.

“수급비나 복지에 관련된 거는 시청 새터민 담당자한테 물어봐요. 담당자니까 당연히 잘 알고, 정확한 정보잖아요. 엄마랑 삼촌이 말해주는 정보는 믿어줄 수 없어요. 정확하지 않은, 새터민들 속에서 돌고 있는 그런 정보. 아줌마들끼리 이야기하는 거를 저한테 막 ‘야,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더라, 이걸 하지 말라더라,’ 이러는데 이상해요. 그쪽에 말을 해서 확인해봐야 아는 거 같아요.” (유미, 24세, 2015-12-26)

유미는 생계지원금이나 취업과 같은 정착지원 정책과 관련된 것은 사회복지사에게 물어보는 것을 선호했다. 새터민 담당자이기 때문에 신뢰도 높은 정보를 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 중 대다수가 시청 혹은 하나센터 소속의 사회복지사에게 정보를 얻는 것보다 주변 고향 친구들로부터 얻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하였다. 사회복지사에게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면 괜히 민망해지기도 하고, 설명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럴 바엔 고향 친구들로부터 ‘카더라’ 통신을 접하는 게 훨씬 쉽고 마음이 편했다.

“하나센터에 딱 한 번 간적 있어요. 진로 상담 받았는데, 제 의견은 안 물어보고, 탈북

자들이 많이 한다고 간호사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역회사 들어가고 싶다고 하니까 요즘 한국 애들도 취업 힘든 거 모르냐고 하던데요? 딱 듣자마자 기분 상했죠. 한국 애들이 못하면 나도 당연히 못 하는 건가?” (보라, 27세, 2016-01-29)

보라는 하나센터에서 진로상담을 해준다고 연락이 와서 갔다가 기분만 상했다고 말했다. 하나센터 선생님은 무작정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준비하고 있는 간호사 자격증을 해보라고 추천해주었다. 보라는 유창한 중국어 실력을 가지고 있어 무역회사에 취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선생님은 남한 학생들도 취업하기 힘든데 다시 생각해보라고만 했다. 보라는 선생님의 말을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기준을 낮추라는 식으로 느꼈다고 한다. 또한 진로를 상담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 북한이탈주민의 수준에서 직업을 한정짓고 강요하는 느낌이 들었다면서, 그 뒤로 하나센터에 진로에 관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했다.

[탈북자 동지회<sup>30)</sup> ‘하나센터’ 관련 게시물에 달린 댓글 일부]

(1) 지원재단이 필요 없다. 우리가 북한이탈주민 지원 재단의 도움을 받은 것은 아직까지 하나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회사에 가보고 싶다고 하면 대한민국 회사는 어디가나 다 그렇다고 한다. 그런데 몇 번 속아서 취직했다가 나와서 혼자 회사를 구하고 취직하였더니 하나센터에서 소개 해주는 그런 회사가 어디 있을까 싶다. 제발 탈북자들을 말미로 저희들의 밥줄을 연명하려는 재단은 없어야 한다.

(2) 전국의 탈북자지원 재단이든 센터든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왜 정부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 놓고 국민들의 세금을 망탕 탕진하는지 궁금합니다. 센터에서 알선해 주는 곳에 가면 적성에도 맞지 않는 (...) 모두 본인들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서 또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선택합니다. 말로만 탈북자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입꼬리를 찡긋거리며 비양대는 하나센터 직원의 모습에 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센터는 그리 많은데 정작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의 글은 ‘탈북자동지회’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하나센터에 관련된 게시물에 달린 댓글을 일부 발췌한 것이다. 하나센터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평가는 다양한 게시물에서도 발견될 수 있었는데, 부정적인 내용이 대다수였다.<sup>31)</sup> 공통된 내용

30) 자료출처: ‘탈북자동지회’, <http://nkd.or.kr/>

31) 물론 본 연구 참여자들의 인터뷰 내용과 ‘탈북자동지회’에 있는 댓글만으로는 전국 각지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공식기관을 일반화시킬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연구자가 만난 북한이탈주민 중에 공식기관을 통해 도움을 얻은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공식기관에 대한 불만이 빈번하게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책지원에 있어 개선점이 필요해 보인다.

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다면서 정작 무시하거나 강압적으로 대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설립된 공식기관이지만, 정작 북한이탈주민을 이해하지 못하며 권위적으로 이들을 대한다는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은 주변의 다른 북한이탈주민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 2. 정보매체 활용하기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위와 같이 다양한 정보원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가 필요할 때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구하기보다 스스로 해결해보고자 하는 것을 가장 선호했다. 그들은 고민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함께 풀어나가기보다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대처하기를 원했다. 이러한 이유로 정병호(2014)는 대인관계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고립감과 북한이탈주민 사이에 깊게 깔려 있는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보기도 했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은 청년층의 특징을 살려 매스미디어를 통해 남한생활의 안정성을 추구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매스미디어는 문화 통로로써 문화를 반영하기도 하고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기 때문에(홍기선, 1985; 이창현, 2000; 재인용) 타문화적응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은 외부에 대한 위협이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정보에 대한 욕구가 커지며 최종에는 매스미디어에 의존하는 양상을 보인다(Ball-Rokeach & DeFleur, 1976). 즉 매스미디어는 타문화적응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덧붙여 매스미디어는 이탈주민에게 남한 사회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현실을 이해시킬 뿐만 아니라 남한 사회 현실에 대한 인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응 및 재사회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곽정래·박승관, 2006).

### 2.1. 정보매체의 유형

북한이탈주민은 대중매체 중 특히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통하여 남한 사회를 경험함으로써 새로운 규범, 가치체계, 그리고 관계형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생활방식을 학습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이 북한에서 불법 CD나 DVD를 통해 남한 드라마와 영화를 본 적이 있었고, 그 중 몇몇은 드라마에서 재현된 남한 사회에 대한 환상으로 탈북하기도 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이런 경험으로나마 간접적으로 남한 사회의 삶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다.

“고향에서 (불법) CD로 ‘거침없이 하이킥’을 본 적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남한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대충이나마 알게 된 거 같아요. 알바라는 것도 ‘하이킥’ 보면서 알게 됐어요. 알바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돈 버는 거잖아요. 북한에서는 일 안하면 단련대로 끌려가요. 그래서 무작정 일 해야 돼서 저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어요. 돈은 당연히 한 푼도 못 받았죠.” (유미, 24세, 2016-02-16)

유미 역시 북한에서 남한의 인기 시트콤인 ‘거침없이 하이킥’을 재미있게 봤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시트콤을 통해 자기 또래의 남한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능동적으로 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자기가 일한 만큼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면서 부러웠다고 한다. 유미는 북한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지만, 월급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서 정권에 대한 불만이 많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탈북’ 밖에 없었는데, 마침 남한에 먼저 간 엄마가 브로커를 보내줄 수 있다고 해서 오게 되었다.

“사투리 고치려고 드라마 보고 따라 해요. 여기 처음 왔을 땐 부단히 했던 거 같은데, 요즘은 바빠서 아주 가끔 해요. 주로 인터넷으로 드라마를 보는데, 여자 주인공이 말하면 잠깐 정지시키고 거울보고 따라 해요. 웃기죠? 그런데 도움 되는 거 같아요. 요즘 재밌게 보는 건 ‘냉장고를 부탁해’요. 이거 보면서 상식을 배울 수 있어요. 뭐, 이걸로는 이렇게 요리해라, 몇 분 끓여라, 이런 거요.” (혜수, 18세, 2016-01-17)

혜수는 드라마 속 주인공들을 귀감으로 삼아 그들의 말투를 모방하곤 했다. 또한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의상이나 헤어스타일을 보면서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드라마를 보면서 남한 사람들의 억양과 어휘를 배운다고 답하였다. 드라마는 이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에게 남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알게 해준다.

“‘공부의 신’ 보고 너무 기적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노력하면 다 되는구나. 나 같은 것도 그럴 수 있을까? 한번 해보자,’ 이런 거 배웠죠.” (환희, 20세, 2015-12-19)

환희는 출신성분이 좋지 않아 북한에서 대학교를 가거나 입당하는 건 꿈도 못 꿔었다. 탄광촌에서 자란 그녀는 주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 탄광에서 일하는 것이 삶의 전부였다. 이미 정해져 있는 운명 앞에서, 환희는 의욕적으로 살 이유가 없었다. 따라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 적도 없었으며, 그저 주어진 삶에 순응할

뿐이었다. 그러나 남한 사회에 와서 이러한 생각이 점차 바뀌기 시작했다. 환희는 문제아들의 명문대에 가기 위한 고군분투를 그린 드라마 ‘공부의 신’을 보면서, 자신도 노력하면 다 이룰 수 있다는 삶의 태도를 배웠다. ‘나 같은 것’이라며 꿈도 희망도 없는 자신을 낮춰 말했던 환희는 주어진 환경에 수동적으로 살지 않고 ‘한번 사는 인생’을 열정적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TV를 통해 남한 사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었지만, 이들이 정보를 얻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매체는 바로 인터넷이었다. 이주민의 정보행위에 관한 연구에서도 정보원으로서 인터넷의 영향력을 다룬 연구들이 많았을 정도로(Kari and Savolainen, 2001) 인터넷은 이주민의 정착에 필수 요건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인터넷은 이주민에게 온라인 교육, 직업 찾기, 정착 지원 등 다양한 정보를 접할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이주민의 적응을 돕는 데 핵심적인 요인으로 부상했다(Caidi and Allard, 2005).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청년층인 연구 참여자들은 접근성이 용이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찾았다. 이들은 주로 포털 사이트에 키워드를 검색하거나, 커뮤니티 카페 혹은 SNS를 통해 온라인상의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으로 정보를 접했다.

“저 스스로 인터넷에서 찾는 게 제일 편하고 빨라요. 제가 소심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잘 못 물어봐요. 인터넷 없었으면 적응이 엄청 힘들었을 거 같아요. 주로 네이버에 검색해요. 얼마 전까지 다녔던 회계학원도 인터넷에 ‘국비학원’ 쳐가지고 제일 가깝다고 나온 곳에 가서 등록한 거거든요. ‘길찾기 어플’은 진짜 혁명인 거 같아요. 버스 정류장이 어딘지 나오고, 무슨 버스 타라고 알려주잖아요. 덕분에 쉽게 적응하고 있는 거 같아요.” (유미, 24세, 2016-02-16)

유미는 정착하는 데 있어 인터넷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인터넷이 없었다면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방황했을 거 같다고 덧붙였다. 평소 성격이 내성적인 유미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어렵다고 했다. 고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신뢰할 수가 없었고, 남한 사람에게 물어보기엔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밝혀야 할까봐 선뜻 물어보지 못했다. 정말로 필요하지 않는 이상 공식기관에는 물어보지 않았다. 공식기관은 신뢰할 수 있지만, 웬지 모르게 심리적인 거리감이 느껴졌다. 하나원에서 나온 지 1~3개월 사이에는 물어봐도 눈치가 안 보였지만, 그 이후부터는 물어볼 때마다 자기가 적응을 잘 못하는 것 마냥 물어본다고 생각할까 봐 꺼려진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유미는 정말로 필요하지 않는 이상 스스로 문

제를 해결하고자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였다.

“인터넷에 웬만한 정보가 다 있는데 굳이 사람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 같아요. 치위생사 준비하거나 현직 치위생사들이 서로 정보 공유하는 그런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 매일 들어가서 정보 얻어요. 제가 직접 알아보기엔 한계가 있잖아요. 카페 들어가면 사람들이 시험이나 병원 정보 알려주고, 가끔 치과 알바자리도 공유해주니까 편하죠. 그리고 치위생사만 알 수 있는 힘든 일 같은 거 서로 이야기하고, 위로해주고.” (수지, 24세, 2016-02-27)

수지는 전공인 치위생학과 관련된 커뮤니티에 가입해, 평소 쉽게 얻을 수 없었던 정보들을 발견하곤 했다. 또한 단순히 전공에 관련된 지식을 획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진로를 선택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함으로써 동질감을 느끼게 돼 좋다고 했다.

이처럼 인터넷은 연구 참여자들의 삶에 깊숙이 침투해있었다. 주된 이유는 사람들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색 몇 번으로 찾을 수 있는 정보를 굳이 불편함과 민망함을 무릅쓰고 사람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 모두 ‘탈북자 동지회’, ‘새터민들의 쉼터’ 등의 북한 이탈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지 않았고, 이용하지도 않았다. 이들은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북한 사람들과 자주 만나지 않고, 의도적으로 거리를 둔다고 했는데, 이러한 태도는 온라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네이버 같은 남한의 포털 사이트에 더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굳이 북한이탈주민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찾을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 2.2. 정보원 되기

연구 참여자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보다 스스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찾고 획득하는 과정을 선호하였다. 항상 인터넷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방법보다 빠르고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었다. 그들은 이러한 정보추구 성향으로 가정에서 핵심적인 정보원으로 거듭났다.

“버스 노선 찾는 거, 병원 진료 예약 같은 것도 제가 다 인터넷으로 해주니까..... 아무래도 얼마나 삼촌이 저한테 물어볼 때가 많아요. 제가 대신 시청에 전화해서 수급비 관련 되서 물어볼 때도 있고요.” (유미, 24세, 2016-02-16)



유미는 엄마가 알려주는 정보는 북한이탈주민 사이에서 돌고 도는 거라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거나 직접 공식기관에 연락해 정보를 찾았다. 유미의 엄마와 삼촌은 유미가 알려준 정보가 더 정확했던 경험이 많아, 그 뒤로 유미에게 버스노선 같은 사소한 것부터 수급비나 주거에 관련된 정보를 물어보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엄마는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게 느리고, 익숙치 않아요. 저도 친구가 알려준 건데, 인터넷에서 물건 살 때 가격 비교 해주는 사이트 이용하라고 엄마한테 말해줬죠. 카카오토티도 제가 깔아주고요.” (혜수, 18세, 2016-03-26)

혜수 역시 인터넷 사용이 서툰 엄마를 대신하여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주었고, 남한 사람들로 부터 들은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기도 했다. 혜수의 엄마는 대부분의 의사 결정을 할 때 혜수에게 물어본다고 한다. 이는 북한에선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다. 고향에선 어른들의 일엔 참견하면 안 된다고 누누이 들었지만, 남한에선 정반대로 엄마가 혜수의 조언을 먼저 구했다.

이민자를 지속적으로 연구한 추(Chu, 1999)에 따르면 이민자 아이들이 부모나 가족들을 대신해서 주류사회와 소통하는 중개자(mediator)역할을 한다고 한다. 부모에 비해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거나 인터넷 같은 기술을 통해 주류사회의 언어와 문화를 더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다. 따라서 아이들은 언어능력이 부족한 부모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여 정보를 알아봐주는 ‘정보원’이 된다. 이는 미국 내 거주하고 있는 멕시코, 중국인 등 다양한 이민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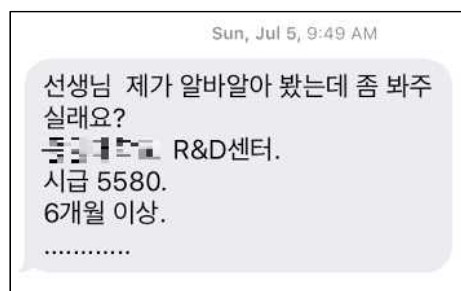
연구 참여자들 역시 가정에서 정보원 역할을 하고 있다. 남한 사람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중·장년층의 북한이탈주민은 정보를 획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고, ‘꼰대’는 심리적인 거리감으로 하나센터나 시청 새터민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보기 보단 주변 고향 친구에게 정보를 얻는다. 고향 친구들에게 얻은 정보는 불확실한 경우가 많지만, 정보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청년층의 북한이탈주민은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해 정보를 찾는데 익숙하며,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부모세대보다 더 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부모세대는 이런 자녀들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있다. 이러한 부모들의 기대와 의존은 연구 참여자들의 정체성 변화에 영향을 준다. 이들은 부모 대신 가정의 중요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실질적으로

어른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러한 역할 변화는 부모와 함께 살지만 부모에게 의존할 수 없고 오히려 가정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이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큰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주기도 했다.

### 3. 정보행위의 어려움

연구 참여자들이 인터넷에 익숙하다고 해서 항상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만을 찾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젊은 세대이기 전에 모국과 사회·문화적으로 배우 상이한 곳에 온 이주민이기도 하다. 특히 인터넷이 철저하게 차단된 북한이라는 폐쇄적인 국가 출신이기 때문에, 정보 행위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연구자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주장된 것과 달리 북한이탈주민이 정보 빈곤 속에 있기 보다는 오히려 정보의 풍요 속에서 혼란을 겪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북한이탈주민의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역량과 상관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단순히 컴퓨터라는 미디어를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찾아낸 정보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모든 사용자들에게 요구되는 비판적인 사고력을 의미하고, 여러 형태의 정보를 자신의 목적에 맞는 새로운 정보로 조합해냄으로써 올바르게 사용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Glister, 1997).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 디지털 기술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남한 사람들에 비해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인터넷을 사용하며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남한 사람들에게 대신 정보를 판단해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림 20> 미나가 연구자에게 보낸 문자

<그림 20>은 미나가 연구자에게 보낸 문자이다. 미나는 연구자에게 종종 아르바이트 정보를 보내주면서,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것이며 자기에게 맞는 일인지 판단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는 미나에게만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 실제로 대부분

의 북한이탈주민은 수많은 정보 속에서 자신에게 유용한 정보가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인터넷을 주요 정보매개체로 삼았으나, 인터넷의 수많은 정보의 혼란 속에서 정작 필요한 핵심 정보를 구분하지 못하기도 했다.

### 제 3절. 소결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사회에서 다양한 불확실성을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영위하고자 남한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고 싶어 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은 정보추구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들의 정보추구는 생존과 안정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이다. 또한 유동적인 정체성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은 정보를 시시각각으로 요구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번 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필요 정보 유형은 무엇이며, 어떠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지 논의하였다. 이주민은 주거, 교육, 보건 등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선행연구(Khoir *et al.*, 2014)처럼 연구 참여자들 역시 소비활동, 취업, 여가생활 등과 같은 기초 생활적 욕구와 관련된 정보를 원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의 ‘북한’, ‘초국가적’, 그리고 ‘청년층’이라는 복합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진 정보요구 유형과는 다른 정보들을 찾았다.

우선 연구 참여자들은 물건을 선택하고 구입하는, 즉 소비생활에 관한 정보를 얻고 싶어 했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의 시장경제와는 상이한 사회주의 경제 환경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다른 이탈주민에 비해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곤 한다. 그렇기에 소비생활에 관한 정보를 얻어 합리적인 소비자가 되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 번째로 대부분의 이주민이 적응을 위해 이주국의 주민들과 교류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연구처럼, 북한이탈주민 역시 정착을 빨리 하기 위해 남한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길 원했다. 그러나 이들은 남한 사람들과의 유대감과 친밀감이 높지 않으며, 공통분모가 없어 관계를 이어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남한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했다. 세 번째로 연구 참여자들은 취업보다는 진학을 일순위로 두었으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경제활동을 시작하고 싶어 했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하기 위해선 정부의 정착금만으론 턱없이 부족했기에, 아르바이트를 꼭 찾고 싶어 했다. 네 번째로 연구 참여자들은 학령기답게 학업 및 진로 계획과 관련된 정보를 요구했다. 이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는 것이 남한 사회의 냉대와 차별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했다. 따라서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명문대와 취업에 유리

한 학과를 선택하려 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은 초국가적 이주민으로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선’을 놓을 방법을 찾았다. 국가보안법상 북한은 반국가단체이기에 북한과의 정보통신 교류는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은 믿을 만한 브로커를 구하고 싶어 했다.

북한이탈주민은 이주민 공동체에 참여하기보다는 가족이나 고향 친구에 제한된 폐쇄적인 연결망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보다는 근거 없이 떠도는 소문위주의 정보를 얻곤 했다. 간혹 주변에 알고 지내는 남한 사람이나 하나센터 혹은 시청 같은 공식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긴 했지만, ‘결끄럽고 권위적으로 대한다,’는 이유로 주요 정보원으로 활용하지 않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구하기보다 스스로 고민을 해결해보는 것을 선호했다. 이들은 젊은 세대의 특징을 살려 TV와 인터넷 같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남한 사회의 삶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디지털 기술에 익숙했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한 스마트폰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찾았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정착하는 데 있어 인터넷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의 인터넷을 활용하여 정보를 찾는 행위는 가정에서 핵심적인 정보원 역할을 하게 했다. 추(Chu, 1999)에 따르면 이민자 아이들이 부모를 대신해서 주류사회와 소통하는 중개자(mediator) 역할을 한다고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연구 참여자들 역시 중·장년층의 부모를 대신하여 인터넷이나 주변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찾아주곤 했다. 따라서 이들은 고향에서와 달리 남한에서는 집안의 어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는 이들에게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이 인터넷에 익숙하다고 해서 항상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만을 찾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젊은 세대이기 전에 낯선 환경에 정착한 이주민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은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에서 어떤 정보가 자신에게 유용한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즉 그들은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수준이 낮기 때문에, 남한 사람들에게 대신 정보를 판단해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제 7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동화론’과 ‘문화적응’ 이론에 입각해 북한이탈주민을 남한 사회에 적응해야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정의한 선행연구들을 비판하는 사례연구이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이 북한이탈주민의 다양한 사회·문화적인 배경과 모국과의 네트워크를 고려하지 않은 한계를 뛰어넘고자 초국가주의(Vertovec, 2001) 틀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본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남한에서 살아가는 동시에 북한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을 유지하는 초국가적 이주민(Basch, Schiller, and Blanc, 1994)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초국가적 이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서 정체성을 어떻게 재구성 하며, 자아표현과 정보추구행위의 측면에서 어떠한 적응 전략들을 펼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0~20대의 북한이탈청년 8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다른 세대들에 비해 매체 활용도가 높으며, 자기계발에 있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또한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며, 개인주의적인 동시에 독특한 것들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이러한 점을 유념해 두고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참여관찰과 심층 인터뷰를 수행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민속지학적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찰적 사진 인터뷰(reflexive photography interview) 연구 방법을 통해 문제의식에 접근해보았다. 사진은 문자와 달리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전달 기능을 갖고 있어 사람들의 자아표현을 위한 강력한 수단(백안의, 2012)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심층적으로 관찰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북한’ 출신의 ‘초국가적’ ‘청년층’ 이주민이라는 연구 참여자들의 복합적인 특성들이 정체성과 적응 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려고 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연구 문제를 설정했고, 그에 따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초국가적 이주민인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서 정체성을 어떻게 재구성 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북한이탈주민은 남한과 북한 모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둘은 상황에 따라 서로 조화되거나 갈등하는 등 유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시기별로 분석하자면 북한이탈주민은 적응 초창기엔 적극적으로 남한 사회에 적응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탈북의 생존자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자신감은 남한사회의 체제에 적응하기 위한 ‘적극성’으로 전환된다(권나혜, 2006). 덧붙여 북한이탈주민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남한사회의 가치에 적극적으로 동조함으로써 남한 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했다. 북한이

탈주민은 적응을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게 되는데, 남한 사람과의 외형적인 동화화를 추구하거나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다른 북한이탈주민과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탈주민이 일방적으로 남한 사회에 동화되고자 한 것은 아니다. 이들은 남한 사회에 적응하면서 북한의 언어(북한 사투리), 음식, 음악 등 의 다양한 문화를 이어나가고 있었다. 즉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의 문화와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동시에 남한에 정착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는 등 유동적이며 복합적인 정체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모습은 1.5세대 이주민이 보여주는 모국 문화실천 방식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다니코(Danico, 2004)는 1.5세대 한국계 미국인들에 관한 연구에서 1.5세대가 이중 문화적이고 이중 언어적이라는 특성으로 세대적 정체성과 인종적 정체성을 전환(switch)할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지적한다. 이주 1.5세대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인종적 정체성을 전환할 수 있다는 특성은 10대~20대 초반에 탈북을 경험한 연구 참여자들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참여자들의 다중적인 정체성 구성 방식은 이주 1.5세대, 더 나아가 조기유학생 등이 경험하는 양상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사회의 현실에 부딪히게 되며 초초함과 절망감을 느끼기도 했다. 정착 초기에는 북한 출신임을 숨기려 애를 썼지만,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때론 북한이탈주민임을 드러내는 것이 자신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거나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다. 더 나아가 북한이탈주민은 모국에서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신념이 남한에서의 삶과 갈등을 겪기도 했는데, 상황에 맞게 정체성을 조율해 나갔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은 스스로 중요시하는 가치들을 견지한 채 능동적이며 주체적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다. 또한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브로커를 통해 고향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송금을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초국가적 활동을 했다. 이러한 정체성의 변화를 겪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국가 정체성은 북한이탈주민을 완전하게 설명해주지 못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과 남한, 어느 한 쪽에 고정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한쪽에 귀속된 정체성이 다른 정체성을 압도하기보단 양쪽의 정체성이 서로 조화하거나 갈등하는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해갔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은 적대 국가 출신으로 남한 사람과 민족적 동질성을 공유하고 있는 특수한 존재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적응을 위해 어떠한 자아표현 전략을 취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탐구하고자 했다. 그 결과 유동적이며 다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상황에 따라 전략적이며 유연한 자아표현을 보여주었다. 우선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북한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된다는 것을 알게 되며, 이로 인해 남한 사람들과 유사한 정상적 외모를 가지려고 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사람처럼 보이기’ 전략을 두드러지게 사용했다. 이들은 언어, 옷차림, 헤어스타일 등으로 남한 사람과의 외형적인 동일화를 추구했다. 더 나아가 남한 사람들의 행동을 모방하며, 북한 출신임을 숨기는 전략을 취했다. 두 번째로 ‘자아(self) 강조하기’ 전략을 통해 자신의 개인성을 강조하며 다른 사람, 특히 다른 북한이탈주민과의 차별성을 나타냈다. 북한이탈주민은 고향에서의 출신 성분, 경제적 상황 등을 바탕으로 다른 북한이탈주민과 동등한 취급을 받는 것을 거부하며, 자신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청년층답게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아를 표현하였는데 이를 통해 자신을 자랑하거나 특정 소양을 갖춘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했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은 SNS 라는 공간에서 목적과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자아’를 드러내는 동시에 인상관리를 통해 다양한 정체성을 창출해 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적응 과정 속에서 어떠한 정보추구행위 전략을 펼치는지 알아보았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사회에서 극단적인 불확실성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영위하고자 남한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고 싶어 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들로 북한이탈주민은 정보추구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들의 정보추구는 생존과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다. 또한 유동적인 정체성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은 각기 다른 정보를 시시각각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정체성, 사회참여 등의 정보보다 소비활동, 취업, 여가생활 등과 같은 기초 생활적 욕구와 관련된 정보를 원했다. 우선 연구 참여자들은 물건을 선택하고 구입하는, 즉 소비생활에 관한 정보를 얻어 합리적인 소비자가 되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 번째로 대부분의 이주민이 적응을 위해 이주국의 주민들과 교류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선행연구처럼, 북한이탈주민 역시 정착을 빨리 하기 위해 남한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했다. 세 번째로 연구 참여자들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하기 위해선 정부의 정착금만으론 턱없이 부족했기에, 아르바이트를 꼭 찾고자 했다. 네 번째로 연구 참여자들은 학령기답게 대학진학과 취업에 관한 정보를 요구했다. 이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는 것이 남한 사회의 냉대와 차별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은 초국가적 이주민답게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선’을 놓을 방법을 찾았다. 정보획득의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은 가족이나 고향 친구에 제한된 폐쇄적인 연결망을 이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보다는 근거 없이 떠도는 소문위주의 정보를 얻곤 했다. 간혹 주변에 알고 지내는 남한

사람이나 하나센터 혹은 시청 같은 공식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긴 했지만, ‘꼴깍리고 권위적으로 대한다,’ 는 이유로 주요 정보원으로 활용하지는 않았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청년층의 특징을 살려 TV와 인터넷 같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스스로 고민을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인터넷을 활용하여 정보를 찾는 행위는 가정에서 핵심적인 정보원 역할을 하게 했다. 이들은 중·장년층의 부모를 대신하여 인터넷이나 주변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찾아주곤 했다. 부모세대는 이런 자녀들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있다. 이러한 부모들의 기대와 의존은 연구 참여자들의 정체성 변화에 영향을 준다. 이들은 부모 대신 가정의 중요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실질적으로 어른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러한 역할 변화는 부모와 함께 살지만 부모에게 의존할 수 없고 오히려 가정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이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큰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주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인터넷에 익숙하다고 해서 항상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만을 찾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수준이 낮기 때문에, 어떤 정보가 자신에게 유용한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서 적응해 나가는 동시에 북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또한 유지하려는 초국가적 이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초국가주의를 다룬 연구들은 이주민의 초국가적 장에서의 활동, 더 나아가 모국의 개선을 위한 국제적 활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고에서 다룬 북한이탈주민의 초국가적 행태는 이들이 남한에서 삶을 개척해 가는 생존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개인적인 성격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의 ‘북한’ 출신의 ‘초국가적’ ‘청년층’ 이주민이라는 복합적인 특징들은 이들의 정체성 재구성, 자아표현 및 정보추구행위 전략에 영향을 주었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유동적이면서도 다중적인 정체성을 유지했으며,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자아표현 전략을 연출하였다. 그리고 이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에 필수 요건인 정보(Shoham and Strauss, 2007)를 요구하였으며, 이를 획득하기 위해 주변 사람이나 인터넷 같은 매체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궁극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사회에 순응해야만 하고, 남한 사람처럼 변해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들은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태도로 남한 사회의 적응을 위해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초국가적 이주민이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을 초국가적 이주민으로 인식하고, 그들의 정체성 변화와 적응 전략들을 심층인터뷰와 사진을 통해 개괄해보았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좀 더 보완한다면 지금보다 더 풍부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연구는 남한 사회 정착 기간이 5년 이하인 북한이탈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보다 연구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선, 성별·연령대·정착기간·연구 참여자 수 등을 다양하게 설정해 더 많은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북한이탈청년들이 남한 사회 정착 과정에서 어떠한 적응전략을 펼치며 정체성에 대한 스스로의 해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여주고자 하였으나, 자료 수집 기간이 충분히 길지 못해 질적인 깊이를 두텁게 만들지 못했다. 충분한 시간 차이를 두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재구성 과정과 그 속에서 행해지는 자아표현과 정보추구행위를 더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향후 연구 과제로 남는다. 세 번째로 연구자는 고프만(Goffman)의 ‘인상관리’ 기술을 중심으로 본 연구를 서술해나갔다. 그러나 고프만의 주장은 이론이나 방법론으로서 완성되지 못했으며, 전개방법이나 개념정의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모든 사회적 관계를 일종의 전략으로 바라본 고프만의 틀을 벗어나 북한이탈주민의 유동적인 행위들을 분석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보추구행위에 대한 현상은 객관적으로 기술했으나, 그러한 현상을 유발하게 만든 요인을 철저하게 분석하지 못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정보추구행위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특성을 밝혀내는 작업과 이러한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내는 작업이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바탕으로 더욱 더 보완된 향후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변화 및 적응 전략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탐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한층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동화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았던 시각으로부터 벗어나 이들을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자아로 간주하며, 더 나아가 모국과 이주국 사이의 삶을 동시에 유지하는 초국가적 이주민으로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단순히 일반적인 이주민으로 여기지 않고, 그들의 차별성과 특수성을 유념해 두고 정체성 변화와 적응 전략들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개인마다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는 동화와 순응을 강조하는 기존의 획일화된 정책에서 벗어나 북한이탈주민 개인차를 감안한 수용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그동안의 이주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들이 주로 노동이주, 결혼이주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고, 이민국가의 맥락에서 동화이론과 문화적응이론에 관한 논의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초국가적 관점으로 분석한 것

은 북한이탈주민, 더 나아가 이주민에 관한 이론적 논의의 지평을 넓히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은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이주민을 단순히 동화되어야 된다는 존재로 인식하기보다는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풍토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권나혜 (2006). 남한 내 탈북이주민 대학생의 정체성과 생활경험.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정래 · 박승관 (2006). 새터민의 매스미디어 이용과 사회적응. 『한국언론학보』, 제 50권 6호, 415~439.
- 강상년 (2004). 탈북자의 한국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대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갑선 (2005). 정보추구행태 모형의 연구 경향. 『정보관리학회지』, v.22, 235~254.
- 김동엽 (2010). 필리핀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초국가적 행태에 관한 연구. 『동남아시아연구』, 20권 2호, 31~72.
- 김민정 · 유명기 · 이해경 · 정기선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9(1), 159~193.
- 김병로 · 최경희 (2012).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 비교 분석. 『통일과 평화』, 제 4집 1호, 101~139.
- 김병서 (1983). 연극적 분석론, 사회과학방법론 비판. 서울: 청람논단.
- 김상일 (2014). 한국과 중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의 국가정체성 비교.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주 (2014). “나 이렇게 살아요.” 자아 표현 및 전시 도구로서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연출 행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란 (2013). 다문화사회 한국의 사회통합과 다문화주의 정책. 『한국사회』, 제14집 1호(2013년), 3~30.
- 김영순 · 임지혜 · 정경희 · 박봉수 (2014). 결혼이주여성의 초국적 유대관계에 나타난 정체성 협상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이론』, 10권 3호.
- 김유정 (2008). 웹 개인미디어에서의 사이버 자기표현.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52(6), 2008.12, 78~99.
- 김재호 (2007). IPTV 이용과 충족 관점에서 본 시청자 태도 비교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미 (1999). 탈북여성의 정체성 변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하나 (2012). 고프만의 ‘인상관리’ 관점에서 본 사회과 교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해원 (2015). SNS 거주민의 일상과 네트워크 실천: 페이스북 ‘쓰기’ 활동과 ‘관계’ 활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홍구 (2011). 초국가주의적 문화의 이동과 한국 속 ‘동남아 현상,’ 『동남아시아연구』, 21권 2호, 77~123.
- 김화순 · 신재영 (2005). 북한 이탈주민의 취업준비 유형에 관한 사례연구: 고용지원제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平和問題研究所, 17(1), 191~212.
- 노고운 (2001).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한국 내 조선족 노동자의 삶과 적응전략.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기순 (1998). 한국인의 커뮤니케이션: 체면-눈치-기분의 상호거래적 분석에 대한 시론. 『커뮤니케이션학연구』, 6('98.12), 249~285.
- 박태진 (2010). 청소년기 자아의 치료와 정체성을 찾는 저널 쓰기 연구-저널 도구 '대화' 쓰기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작문학회 연구발표회 자료집』, 5~27.
- 백안의 (2012). 자아표현 욕구와 SNS 상의 사진 유형에 관한 연구: Facebook, Cyworld, 人人网에서 나타난 자아표현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일순 (2010). 이동과 장소의 초국가성-싱가포르 거주 한인들의 국제적 이주, 적응 그리고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사공복희 (2003). 정보추구행태모형의 비교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0(1), 93~119.
- 신희정·박선아 (2009). 새터민 대학생의 체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3(1), 101~130.
- 송성화 (1985). E. Goffman의 연극적 사회학에 대한 분석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선미 (2012). 사진의 본질에 대한 인식론적 접근: '바라보기(seeing)'와 '지각하기(perceiving)'의 분석을 중심으로. 『영상예술연구』, 21, 337~360.
- 신명희 (2007). 중학생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아정체감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원 (2006). 새터민 청소년들의 정체성 교섭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수경 (2013).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적응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률·공주희 (2010). 사진 이미지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과 가능성 : 유아교육 현장에서 사진의 교육적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진학회지 AURA』, no.23, 6~15.
- 이상규·홍석경 (2014). '강북'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문화와 계급 정체성 형성에 대한 영상방법론적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87~129.
- 이수정 (2011). 다문화주의가 통일에 말걸기. 『KDI 북한경제리뷰』, 13(10), 62~78.
- 이슬기 (2009). 북한 이주 1.5세대 여성들의 정체성 구성 방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준 (1998). 『사진 이상한 예술』, 서울: 눈빛출판사.
- 이창현 (2000). 탈북자들의 남한방송 수용과 문화적응: Q방법론을 통한 방송프로그램 선호유형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14권 2호, 151~186.
- 이호영·조성은·오주현·김석호·이윤석 (2012). 디지털세대와 기성세대의 사고 및 행동양식 비교연구. 『방송통신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 오원환 (2011). 탈북 청년의 정체성 연구: 탈북에서 탈남까지.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기상·김종근·이원섭 (2008). 디지털리터러시 환경에서의 사진미디어 고찰: 장애인 문화지평을 위한 사진리터러시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포럼』, 20, 237~248.
- 유명기 (2002). 외국인 노동자, 아직 미완성인 우리의 미래. 『당대비평』, 18, 12~35.
- 유시은·오경자·정안숙·전우택 (2012). 북한이탈주민의 의식 변화에 대한 질적 연구-

- 남한 입국 3년 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통일연구』, 제 16권 2호, 67~120.
- 윤인진 (2003). 코리안 디아스포라-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한국사회학』, 제 37집 4호, 101~142.
- 윤인진 (2009). 『북한이주민-생활과 의식, 그리고 정착지원정책』, 서울: 집문당.
- 양순우 (2010). 외국인유학생의 정보추구행태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희연 (2008). 조기유학의 초국가적 네트워크 특성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인진 (2012). 디아스포라 초국가주의의 고전 및 현대 연구 검토. 『재외한인연구』, 제 28호.
- 이동후 (2004). 여성의 디지털 욕망: 자아표현의 즐거움 그리고 정체성, 『2004 계명대 개교50주년기념 비사학술대회자료집』.
- 장선하 (2008). 한국사회의 탈북이주민 국민 만들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현미 (2014). 고프먼 관점에 따른 자아의 유형화와 커뮤니케이션적 함의-인터넷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자아에의 적용. 『커뮤니케이션이론』, 제 10권 2호. 325~270.
- 정경일 (2001). 남한 정착 북한 출신 주민의 언어 적응 실태 조사 연구 보고서, 문화관광부.
- 정병호 (2004). 탈북 이주민의 환상과 부적응: 남한사회의 인식혼란과 그 영향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제 10집 1호. 33~62.
- 정병호 (2014). 냉전 정치와 북한 이주민의 침투성 초국가 전략. 『현대북한연구』, 제 17권 1호. 49~100.
- 정진경 · 양계민 (2004).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23, 101~136.
- 조용완 (2006). 북한이탈주민의 정보요구와 정보행태에 관한 연구-부산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 40권 제 3호. 121~149.
- 조정아 (2014). 탈북 청소년의 경계 경험과 정체성. 『현대북한연구』, 제 17권 1호. 101~155.
- 하춘광 · 김효순 (2014). 저소득 여성노인의 거주이동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마산시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4(2), 2014, 70~102.
- 허지연 (2003). 탈북자의 탈북요인과 중국, 한국 이동경로에 관한 연구: 이상적 정착지와 행위변화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황수진 (2004). 현대사진에서 나타나는 자아(self)이미지의 심층적 연구: 사토라레(サトラレ-Satorare)전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Banks, M. (2001). *Visual Methods in Social Research*. SAGE.

Ball-Rokeach, S. J & DeFleur, M. (1976). A dependency model of mass media effects. *Communication Research*, 3(1), 3~21.

Bar-Yosef R (1968). De-socialization and re-socialization: The adjustment process of

- immigrant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 27~43.
- Basch, L., Schiiller, G. and Szanton-Blanc, C. (1994). *Nations Unbound: Transnational Projects, Postcolonial Predicaments, and Deterritorialized Nation-States*. New York: Gordon & Breach.
- Bates, M. (2010). Information Behavior.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s*, New York: CRC Press, vol. 3, pp. 2381~2391.
- Bauman, Z. (2000). *Liquid Modernity*. Cambridge: Polity.
- Berry, W. J. (1990). Psychology of acculturation: Understanding individuals moving between culture. In R. Brislin (Eds.), *Applied cross-cultural psychology*. Newbury Park, CA: Sage.
- Berry, W. J. Kim, U. and Boski, P. (1987). Psychological Acculturation of Immigrants. *Cross-Cultural Adaptation: Current Approaches*, Newbury Park: CA.
- Boissevain, J. (1974). *Friends of Friends*. New York: St. Martin' s Press.
- Caidi, N. and Allard, D. (2005). Social inclusion of newcomers to Canada: An information problem?.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27(3), 302~324.
- Caidi, N. Allard, D. and Quirke, L. (2010). Information Practices of Immigrants. *Annual Review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Case, D.O. (2002). *Looking for information: A survey of research on information seeking, needs, and behavior*.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Case, D. O. (2007). *Looking for information: A survey of research on information seeking, needs, and behavior (2nd ed.)*. Amsterdam: Academic Press.
- Castles, S. (2000a). *Ethnicity and Globalization: From Migrant Worker to Transnational Citizen*. London: Sage.
- Cooley, C. H. (1902).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Schocken.
- Chu, C. M. (1999). Immigrant children mediators (ICM): Bridging the literacy gap in immigrant communities. *The New Review of Children' s Literature and Librarianship*, (5), 85~94.
- Crawford, S. (1978). Information needs and uses. *Annual Review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13, 61~81.
- Danico, M. Y. (2004). *The 1.5 Generation: Becoming Korean American in Hawaii*,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Dervin, B. (1983a). Information as user construct: the relevance of perceived information needs to synthesis and interpretation. *Knowledge structure and use: implications for synthesis and interpretation*, Philadelphia, PA: Temple University Press.
- EAVI(European Association for Viewers Interests) (2011). Testing and Refining Criteria to Assess Media Literacy Levels in Europe. Final Report.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Faist, T. (2000). *The Volume and Dynamic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Transnational*

- Social Spac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isher, K. E. Durrance, J. C. and Hinton, M. B. (2004). Information grounds and the use of needed-based services by immigrants in Queens, New York: A Context-Based, Outcome Evaluation Approach.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5(8), 754~766.
- Fisher, K., Naumer, C., Durrance, J., Stromski, L. & Christiansen, T. (2005). Something old, something new: preliminary findings from an exploratory study about people's information habits and information grounds. *Information Research*, 10(2).
- Giddens, A. (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Stanford University Press.
- Giddens, A. (1994). Living in a Post-Traditional Society. *Reflexive Modernization*, Polity Press.
- Glister, P. (1997). *Digital literacy*. New York, NY: Wiley.
- Goffman, E. (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New York: Doubleday Anchor Original.
- Goffman, E. (1963). *Behavior in public places: Notes on the social organization of gatherings*. New York: The Free Press.
- Goffman, E. (1967). *Interaction ritual: Essays on face to face behavior*. New York: Doubleday Anchor Books.
- Gordon, M. (1964). *Assimilation in America Life*. Oxford University Press.
- Gouldner, A. (1970). Other symptoms of the Crisis: Goffman's Dramaturgy and Other New Theories. *The Coming Crisis of Western Sociology*. New York: Basic Book, 378~390.
- Guarnizo, L. and Smith, M. P. (1999). *Transnationalism from below*,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 Guarnizo, L., Portes, A., and Haller, W. (2003). Assimilation and Transnationalism: Determinants of Transnational Political Action among Contemporary Migrants.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108, No. 6: 1211~1248.
- Hannerz, U. (1996). *Transnational Connections: Culture, People, Places*. London: Routledge.
- Harris, R.M. & Dewdney, P. (1994). *Barriers to information: how formal help systems fail battered women*.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Hobsbawm, E. (2011). World Distempers. Mike Davis, Kenneth Pomeranz (Eds.), *New Left review 61*. 공원국 · 안효상 · 김성호 외 역. 혼란스러운 세계-에릭 홉스봄과의 대담. 『뉴 레프트 리뷰 3』, 서울: 길. 341~369.
- Jenkins, R. (1996). *Social Identity*. London: Routledge.
- Jones, E. E., and Pittman, T. S. (1982). Toward a general theory of strategic self-presentation. In J. Suls (Ed.),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the self*. 1:231~262. Hillsdale, NJ: Erlbaum.
- Johnson, J., Andrews, J., and Allard, S. (2001). A model for understanding and

- affecting cancer genetics information seeking.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23(4), 335~349.
- John K. Galbraith. (1992). *The Culture of Contentment*. 이상영 역 (2003). 『만족의 문화』. 동아일보사.
- Kari, J. and Savolainen, R. (2001). Web searching in the Context of Information Seeking in Everyday Life. *The Cases of Civic and Spiritual Action*.
- Katz, E., Blumler, J. and Gurevitch, M. (1974). Utilisation of mass communication by the individual, in J. Blumler, and E. Katz(eds.), *The Uses of Mass Communications: current perspectives on gratifications research*, Beverly Hills and London: Sage.
- Kibria, N. (2000). Race, Ethnic Options, and Ethnic Binds: Identity Negotiations of Second-Generation Chinese and Korean Americans. *Sociological Perspectives*, Vol. 43. 77~95.
- Khoir, S., Du, J. T., and Koronios, A. (2014). Study of Asian Immigrants' Information Behaviour in South Australia. In *iConference 2014 Proceedings*.
- Krikelas, J. (1983).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patterns and concepts. *Drexel Library Quarterly*, 19, 5~20.
- Kuhlthau, C. (1991). Inside the search process: Information seeking from the user's perspective.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2(5). 311~388.
- Kuhlthau, C. (1991). Inside the search process: Information seeking from the user's perspective. Journal of the user's perspective.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2(5), 361~371.
- Kusenbach, M. (2009). Salvaging Decency: Mobile Home Residents' Strategies of Managing the Stigma of Trailer Living. *Qual Sociol.* 399~428.
- Lipshitz, R. and Strauss, O. (1997). Coping with Uncertainty: A Naturalistic Decision-Making Analysi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69(2): 149~163.
- Lipshitz, R. and Strauss, O. (2003). *Destination Canada: Immigration debates and issues*. Toronto: Oxford University Press.
- Levitt, P. and Schiller, G. N. (2004). Conceptualizing Simultaneity: A Transnational Social Field Perspective on Societ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8-3.
- Malinowski, B. (1948). *Magic, Science and Religion and Other Essays*. Glencoe, Illinois: The Free Press (Reissued Long Grove, IL: Waveland Press, 1992).
- Mead, G. H. (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Nightingale, V. (1996). *Studying audiences: The shock of the real*. London: Routledge.
- Ong, A. (1999). *Flexible Citizenship: The Cultural Logic of Transnationality*.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Park, R. E. (1950). *Race and Culture*, Glencoe, Ill., The Free Press.



- Pettigrew, K. E. (2000). Lay information provision in community health settings: how community health nurses disseminate human services information to the elderly. *Library Quarterly*, 70(1), 47~85.
- Portes, A. (1997). Immigration Theory for a New Century: Some Problems and Opportuniti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31, No. 4: 799~825. Special Issue: Immigrant Adaptation and Native-Born Responses in the Making of Americans.
- Portes, A., Guarnizo, L.E. and Landolt, P. (1999a). Transnational Communities. Special issue, *Ethnic and Racial Studies*, 22(2).
- Portes, A., Guarnizo, L.E. and Landolt, P. (1999b). The study of transnationalism: pitfalls and promises of an emergent research. *Ethnic and Racial Studies*, 22(2).
- Redfield, Robert, Linton, Ralph & Herskovits, Melville, J. (1936). Memorandum for the Stud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38(1): 149~152.
- Riccio, Bruno. (2001). From 'ethnic group' to 'transnational community' ? Senegalese migrants' ambivalent experiences and multiple trajectories.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27(4). 583~599.
- Robins, K. and Aksoy, A. (2010). From spaces of identity to mental spaces: Lessons from Turkish-Cypriot cultural experience in Britain.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27(4).
- Rouse, R. (1991). Mexican migration and the social space of postmodernism. *Diaspora*, 1(1): 8~23.
- Rouse, R. (1995). Questions of identity: personhood and collectivity in transnational 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Critique of Anthropology*, 15(4).
- Ryang, S. (2001). Diaspora and Beyond: There is No Home for Koreans in Japan.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4(2): 55~86.
- Safran, W. (1991b). Diaspora in Modern Societies: Myth of Homeland and Return. *Diaspora* 1: 1.
- Sanchez-Birkhead, A. C., Kennedy, H. P. and Miyamoto, T. P. (2011). Navigating a new health culture: Experiences of immigrant Hispanic women. *Journal of Immigrant Minority Health*, 13, 1168~1174.
- Savolainen, R. (1995). Everyday life information seeking: Approaching information seeking in the context of "way of life."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7(3), 259~294.
- Savolainen, R. (2008). *Everyday information practices: A social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Toronto: Scarecrow Press.
- Schiller, N. (1997). The Situation of Transnational Studies. *Identities*, Vol.4, No.2.
- Schlenker, B. R. (1980). *Impression Management: The self-concept, social ident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 Moterey, Calif: Brooks/Cole.
- Schunck, Reinhard. (2011). Immigrant Integration, Transnational Activities and the Life

- Course. *A Life-Course Perspective on Migration and Integration*. Dordrecht, Heidelberg, London, New York: Springer.
- Shannon, C. E. and Weaver, W. (1949). *The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Shoham, S. and Strauss, S. (2007). Information needs of North American immigrants to Israel. *Journal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Ethics in Society*, Vol. 5. 185~205.
- Silverstone, R. and Georgiou, R. (2005). Editorial Introduction: Media and Minorities in multicultural Europe.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1, 433-441.
- Srinivasan, R. and Pyati, A. K. (2007). Diasporic Information Environments: Re-Framing Immigrant-Focused Information Research.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8) 12, 1734~1744.
- Vertovec, S. (1999a). Conceiving and researching transnationalism. *Ethnic and Racial Studies*, 22(2).
- Vertovec, S. (2001). Transnationalism and Identity,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27(4), 573~882.
- Vertovec, S. (2009). *Transnationalism*. London & New York: Routledge.
- Weiser, Judy. (1988). See What I Mean? Photography as Nonverbal Communication in Cross-Cultural Psychology. *Cross-Cultural Perspectives in Nonverbal Communication*. Toronto: C. J. Hogrefe.
- Wilson, T.D. (1981). On user studies and information needs. *Journal of Documentation*, 37, 3~15.
- Wilson, T. D. (1999). Models in information behaviour research. *Journal of Documentation*, 55(3). 249~270.
- Wilson, T. D. (2000). Human Information Behavior. *Special Issue on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3(2). 49~55.
- Wilson, T. D., Ford, N., Foster, D., Eliis D., & Spink, A. (2002). Information seeking and mediated searching. Part 2. Uncertainty and its correlate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3(9). 704~715.

## Abstract

# The Identity Changes and Adaptation Strategies of Young North Korean Defectors

JungHwa Choi

Department of Communication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sets out to criticize many precedent studies which argue that North Korean defectors should be assimilated into South Korea based on ‘assimilation’ and ‘acculturation’ theories. These precedent studies don’t reflect not only various sociocultural backgrounds of North Korean defectors, but also their linkages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Therefore this study considers North Korean defectors as transnational migrants who put down roots in a host country maintaining strong homeland ties, and belonging to religious and political movements that span the glob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dentity changes’, moreover adaptation strategies which are partitioned into ‘self-presentation’ and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With this in mind, research, including participatory observation and in-depth interviews, was conducted on eight young gener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 research also adopted reflexive photography interview method in order to encourage the informant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research. Three research questions in total were designed for the inquiry.

First of all, what are the changes in identities of North Korean defectors by time series? Also how can these changes be interpreted? When North Korean defectors entered the South Korean society, they were very confident because they felt the experience of ‘Escaping North Korea’ was very meaningful for them. It became a great impetus for them to undergo hardship in South Korea. In addition they would like to keep distance from other North Korean defectors to settle successfully in

South Korea. However, North Korean defectors were not severed from the way of life and the culture of North Korea. They had practiced their culture such as language, food, and music. This phenomenon shows that North Korean defectors are transnational migrants. As time went on, they penetrated the limitation of themselves in South Korea and they began to show their identity as North Korean defectors when it was beneficial to show it. Ultimately, the national identity began to be meaningless for North Korean defectors. They insisted that they have two identities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nd they have to negotiate these flexible identities based on particular situation.

Second, what are the main reasons that North Korean defectors use self-presentation strategies, and how are the strategies expressed? The main reason that North Korean defectors made the self-presentation strategies was to be recognized as an equal individual in the South Korean community. Therefore they would like to express themselves as South Korean by copying clothes, language, and behavior. Also North Korean defectors wanted to highlight ‘self’ or ‘individuality.’ Therefore they insisted that they are not same as other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They wanted to be recognized as ‘special person’ based on their higher social and economic status back then in North Korea. Moreover, participants liked to express their identities on SNS like other young generation in South Korea. They made an impression management to show their ideal images on SNS.

Finally, what are the information needs that North Korean defectors eager to acquire, and how they gain the information? Results show that North Korean defectors desired to seek everyday life information to act as South Korean. The most wanted and needed information was for future careers. North Korean defectors hoped to get rid of stigma from South Korean perception by continuous self-development such as graduating from top ranking universities and having a respected job. Therefore, they needed information related with their future. Also it was found that North Korean defectors preferred using Internet rather than asking informants to get information, differently from the precedent studies. The ability that participants could use Internet freely made them to be an Information mediators for family members. It affected their identities to be recognized as family leader. Lastly some of North Korean defectors were troubled and confused by bountiful information of Internet not by information poverty.

Keywords : North Korean defectors, Transnationalism, Identity, Self-presentation,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Student Number : 2013-22846